

선화가 동성 스님
"선화는 수행자들의 청정한 정신세계에서 탄생합니다."
16·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2월 1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33호 2013년 3월 27일 수요일

이 세상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으면 행복이 찾아온다
지혜는 최상의 생활로 이끈다.
금주의 법구 〈법구경〉

법인 관리·안거 다변화 토대 '성과'

조계종 중앙종회 193차 임시회가 남긴 것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193차 임시회는 법인법과 삼장원?염불원법 등 굵직한 종단 현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았던 것은 법인법의 제정 여부였다. 2005년 초안이 마련된 법인법은 2011년 3월 총무원장 명의로 첫 발의가 됐으며, 2년 간의 논의를 거쳐 수정 제정안을 내놓았다.

종회의원 혜림 스님이 선학원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법 취지를 공감했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학원과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이를 담당할 선학원대책위원회도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성직 스님을 선출됐으며, 위원 선출은 의장단에 위임했다. 〈관련 기사 3면〉

조계종 교육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총무원장이 발의한 '삼장원?염불원법' 제정도 이번 종회의 성과 중 하나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계종 사찰은 삼장원과 염불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운영 사찰 주지는 매 안거 1개월 이전 기간 중 정진하고 연찬할 분야와 과목, 교재, 문헌, 방부인원 등을 공지해야한다. 이들 수행기관에서 정진한 승려에 대한 안거이력은 교육원이 관리하며, 총림 내 있는 경우 방장의 지도 감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염불원이 총림에 있는 경우 총림법에 규정한 총림 염불원으로도 볼 수 있게 규정했다.

연동 법안인 승가고시법 개정을 통해서는 3급 승가고시에 선원을 비롯한 삼장원, 염불원에서 4안거 이상을 성만한 스님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제정 취지에 대해 "이번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안거수행 풍토가 조성될 수 있으며, 총림의 경우 염불원을 운영함으로서 총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종헌종법제개정특위로 이관돼 차기 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불교임상의료수행원법 제정안(대표발의 원경 스님)도 수행 이력의 다양화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하다. 병원 등 의료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보현행도 수행이력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종단 주요현안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내놓기 위원회도 구성된 점도 눈길을 끈다. 의제를 연구하기 위한 의제개혁특별위원회와 다양한 출가제도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출가활성화추진특별위원회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종단의 통일된 의제와 출가자 감소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여러 굵직한 안건을 처리한 종회였지만 '옥의 티'도 존재했다. 지난해 191차 임시회에서 쇄신입법 취지로 개정됐던 사찰법과 산중총회법, 선거법은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요구로 다시 개정됐다.

법인법 수정 제정 통해
종단 법인 관리체계 세워
경학·참법 수행이력 인정

본사 주지 요구로 법 개정
종회 자율성은 숙제로 남아

본사 주지들의 요구였지만, 법의 실효성을 시험해 볼 기회도 없이 입법기관이 법을 개정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종도들이 법에 대해 인식하기도 전에 너무 자주 법이 개정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교구 이관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찰법 개정은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해 본사 관할 사찰을 같은 교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반적 여론과는 거리가 있는 결정이었다.

이밖에도 종회는 2012년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원로의원에 태응, 대원, 종진, 혜성, 흥교, 성우, 성파, 설조, 천제, 적명 스님을 추천하는 등 종단 주요 인사안들을 처리하고 3월 21일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잃어버린 성보…시민 제보로 찾다 학계에서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던 연복사탑중창비가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문화재 카페 회원인 시민 김석중 씨가 용산 철도회관에서 우연히 비석을 발견해 시에 제보했다"며 "조만간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3월 21일 밝혔다. 연복사탑중창비(演福寺塔重創碑)는 1494년 태조 이성계가 개성 연복사의 오층불탑을 건립하게 된 내력을 담은 비석으로 이수부분 비액에는 전서체 '연복사탑중창지기'가 씌여져 있다. 1910년대에 서울 용산 지역으로 옮겨졌다. 연복사탑중창비는 명나라 석비 조형양식을 띄고 있으며, 중국식 석비 양식을 수용한 조선 초기 석비예술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제공=서울시

새 정부, '소망' 대신 '사랑'을 택했나

시사저널, 박근혜 인맥 조사… 사랑의교회 교인 다수

일명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내각으로 불리웠던 이명박 前 대통령만큼이나 현 박근혜 정부의 요직들도 개신교인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된 것은 소망교회가 아닌 사랑의교회로 인맥이 이동됐을 뿐이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은 1222호 기사 '꼭꼭 숨었던 박근혜 정부 인맥 찾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인사와 새 정부의 핵심 요직을 맡은 사람 중 사랑의교회 교인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사랑의교회 사역 명부인 '2011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현 정부의 인맥을 해부했다. 사랑의교회 신자 중 청와대 핵심 요직에 기용된 대표적인 인물은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다. 이들은 각각 집사와 장로로 교회 소임을 보고 있다. 허 실장과 주 수석의 부인들도 모두 권사로 알려졌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신제윤 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사랑의교회 신도다. 신 내정자는 2004년부터 사랑의교회를 다녔고, 부인도 교회 집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신 내정자의 기부금 내역도 상당액이 교회 기부금임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 측근 인사 중 사랑의교회 교인으로는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과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있다. 김 회장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박 대통령 당선을 이끌었다. 이 최고위원은 사랑의교회 신축 부지 허가 논란이 일었을 때부터 구설에 올랐으며, 해당 지역인 서초구에서 17, 18대 국회의원 지냈다.

〈시사저널〉은 "이명박 정부 때 소망교회 인맥이 각광을 받았다면 현 정부에선 사랑의교회로 교계 권력이 이동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이명박 정부도 초기 소망교회 등 특정 교회 출신이 정부 요직을 장악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중일 기자

933호 INDEX

종합 2·3
부석사 불상 환수운동 본격화
7대 종교자 박대통령과 오찬
BBS 불교방송 파국 치닫나
불교인권위 자살예방센터 제안
한마음선원 동국대 1억원 지원

시방세계 5
출가열반절 입재법회



함께가요 강의실-선과 뇌과학 8
테마가 있는 사찰기행 12
영월 법흥사
문화 20
고려화불展 개최한 혜담 스님

행복바라미, 본격 출발!

날마다좋은날, 21일 홍보대사 위촉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3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행복바라미' 캠페인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행복바라미 모금캠페인은 사회공헌기금 마련을 위한 거리모금 캠페인으로 4월 28일 우정국로에서 시작해 5월 12일까지 15일간 전국 16개 시·도 108개소에서 진행된다. 모금된 기금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날마다좋은날은 이날 캠페인 진행을 위해 체조 손연재, 양학선, 펜싱 신아람, 사격 진종오, 김장미, 양궁 주현정, 최현주,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 등 스포츠 스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위촉식에는 양학선, 신아람, 최현주 선수가 참석했다.

선수들에게 위촉패를 전달한 이기흥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자비와 참여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익 사업"이라며 "모두의 행복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신용카드 단말기가 부착된 행복바리미 거리모금함 및 자원봉사단 복장 공개 등이 진행됐다. 위촉식에는 이기흥 날마다좋은날 이사장과 양학선, 신아람, 최현주 선수, 김희옥 동국대 총장,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위촉식에 참여한 홍보대사들과 인사들. 사진왼쪽 부터 이기흥 날마다좋은날 이사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 체조 양학선 선수, 펜싱 신아람 선수,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가운데는 거리모금함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공동캠페인
재학기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 어릴 때 읽은 책 한 권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맑고 깨끗한 동심에 봄날 씨앗을 뿌리듯 부처님 가르침을 심는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큰 숲이 될 것입니다.

- 본지와 조계종 포교원은 공동으로 전국의 사찰, 사부대중과 함께 새 학기와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까지 어린이 불서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전법은 불자의 임무이며 사명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 묘목을 심는 마음으로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02)2011-1903 (조계종 포교원)
02)2004-8251 (현대불교)
■ 동참계좌 : 국민 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당신이 죽는 날

그 누구도 지켜줄 자가 없으니

스스로를 의지해 갈 준비를 하라.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주변의 친구들과 친척들은 당신과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합니다. 약간의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재벌일지라도 죽을 때에는 1원도 가져갈 수 없고, 가장 힘이 센 장군도 목숨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명령을 내린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모든 이가 그렇듯 그도 항복해야 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몸을 떠나고, 중음계를 떠돌게 됩니다. 중음신이 됩니다. 당신은 음지에서 상실감과 절망감에 젖어 홀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끔직한 환영들은 너무도 무섭습니다. 비록 그 환영은 당신 마음의 투영 이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바르도(중음)상태에서의 환영은 실제 상황처럼 무섭게 다가 옵니다.

이 상황에서 오직 편안할 수 있는 원천은 당신이 해왔던 수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로운 국가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이유로 늘 방심하지 말아야 하고 수행을 해서 죽음에 대처하십시오. 수행을 하는 것은 다가올 생에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며 미래의 행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관음좌상 제자리 찾기 '한마음'

제자리봉안위, 21일 출범식… 환수운동 본격화

일본 쓰시마 관음사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밀반입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 좌상을 제자리로 봉안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공동대표 주경, 도신, 정범 등, 이하 봉안위)는 3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그간 서산시민들의 추진위원회로 운동을 전개했던 봉안위는 이번 출범을 계기로 조직을 구성하고 불상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간다.

봉안위에는 정치, 언론, 지자체, 지역불교계의 명망있는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봉안위 고문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지도위원에는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과 성완종, 이이재, 홍영표, 이원욱 국회의원, 이완섭 서산시장 등이 참여했다.

공동대표는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조계종 기획실장),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 수덕사 재무부장 정범 스님과 김원웅 前국회외교통상위원장, 김경임 前 튀니지대사, 엄승용 前 문화재청 정책국장이 맡았다.

이날 봉안위 발족식에서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불상은 돌과 쇠붙이에 원력과 염원, 혼을 불어 넣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불상은 제자리에 있을 때 더욱 그 의미가 빛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종단, 교구본사, 지역 사회가 서산 부석사 관음좌상의 반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다"며 "이 같은 국민과 불자들의 원력으로 불상이 본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학계, 지역불교 등
유명인사 봉안위 대거 참여

약탈 가능성 증명에 최선
갈등 아닌 교류의 계기로
日언론 왜곡보도엔 '아쉬움'

불상 환수를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협조도 약속됐다. 지도위원으로 참석한 성완종 국회의원은 "이제는 정부 주도로 과학적 조사를 통해 불상의 부당한 반출을 입증하고 협상을 통해 반환을 이끌어야 한다. 국회도 정부와 함께 불상을 제자리로 봉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는 3월 21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환수운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이날 발족식에서는 3월 14~15일 이뤄진 일본 대마도 관음사 방문에 대한 결과보고도 이뤄졌다. 봉안위 측은 현재 관음사가 무인(無人) 사찰로 현 지 정문화재인 서산 부석사 불상을 봉안할 자격이 없으며, 불상의 설명문도 오류가 많아 보관 관리에 허술함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언론의 과도한 취재와 왜곡보도로 진의를 전할 수가 없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향후 봉안위는 부석사 불상의 약탈 가능성과 한국 문화재 수탈사 등을 조명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 내 우호 여론과 관계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동집행위원장 원우 스님(부석사 총무국장)은 "현재 일본 관음사 측은 '불상을 반환한 후 소유권을 논하자'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세속의 잣대가 아닌 같은 불제자로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불상 환수를 놓고 갈등보다는 새로운 교류의 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北 도발 멈추면 인도적 지원 고려해달라"

7대 종교 지도자, 박 대통령과 첫 오찬서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지도자와 첫 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북한의 핵위협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는 없다"고 비판하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길로 나온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도 "북한의 핵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종교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신중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9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소속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첫 회동을 가졌다. 사진은 대표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박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청와대

태고종 총무원장선거 7월 20일 이전 실시

종회, 총무원장선거법 등 개정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 선거가 7월 20일 이전에 치러질 예정이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산)는 3월 21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11차 임시회를 열고 총무원장선거법을 비롯한 종무원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호법원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총무원장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은 임기만료 2개월 전주에 하도록 했다. 이에 선거는 현 총무원장 인공 스님의 임기만료(9월 20일) 2개월 전인 7월 20일 이전에 시행된다. 총무원장 선거권자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장선거인단만이선거권을 갖도록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 및 본산급 주지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총무원장 후보자는 후보등록과 동시에 선거일 30일 전까지 종단의 모든 종무직에서 사퇴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총무원장의 궐위 혹은 유고로 인해 시행된 선거로 당선된 총무원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시작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해당 선거일 6개월 전에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했다. 김주일 기자

군종교구, 첫 비구니 군승 설명회

3월 20일 동학사서

조계종 군종교구가 3월 20일 공주 동학사 강원을 찾아 '비구니 스님 군승 파송 설명회' 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교구장 자광 스님이 직접 나서 비구니 학인 스님 60여 명을 대상으로 군승 파송의 필요성과 임관 과정을 설명했다.

군승 파송 자격은 장교로 임관하는 해를 기준으로 만 35세 이하인 조계종 사미니계 수지자로 4년제 대학졸업자이어야 한다. 군종교구는 운문사 등 비구니 사찰과 동국대, 승가대의 비구니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계속 개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金戒剛壇 보살계산림

영축총림 통도사는 개산조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시고
금강계단을 쌓아 戒를 설하신 戒律의 근본도량입니다.
계사년 금강계단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세세생생의 불연으로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입 재 2557년 4월 14일(음 3. 5) 일요일
▶회 향 2557년 4월 16일(음 3. 7) 화요일
▶장 소 통도사 금강계단
▶전계 대화상 중산 혜남

• 동 참 금 : 5만원(새마을금고 : 6269-09-005031-0 예금주 : 통도사)
• 문의 및 접수처 : 통도사 종무소 055)382-7182, 화엄전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 각 말사(암) 종무소
• 차량안내 : 부산 온천장 지하철역 오전 8시 ~ 9시

靈鷲叢林 通度寺 주지 원산 도명 합장

종단 법인 관리 토대 · 종도 의무 강화

조계종 법인법 수정 제정 의미와 과제

법인법 제정안이 조계종 중앙종회 제19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2011년 3월 첫 발의된 법인법이 2년의 시간을 거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조계종이 법인법을 제정한 취지는 명확하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법인은 재단이 95개, 사단이 111개로 지자체에 등록한 법인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확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인에 대한 종단 등록과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종회 인사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자승 스님은 "법인 관련자들이 종단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수행하고 전법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권한과 의무는 마주보며 가야하는 것이기에 다른 종도와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종헌 종법체계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두자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법인법 제정에 따라 종단은 종도와 사찰들이 설립한 법인들의 등록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등록 시에는 종법령이 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제반 권리를 보장했다. 또한 법인 정관에 조계종 소속 승려가 법인 이사의 2/3 이상이 재가 이사는 종단 등록 신도로 규정하도록 해 종단과의 소속감을 높였다.

조계종 유지재단, (재)선학원, (재)조계종 대각회는 이사 전원이 종단 승려여야

1년 內 법인들 종단 등록
2/3이상 종단 승려 이사로
선학원에 6개월 유예기간

법인들 반대 의견 많아
법 이해 · 조율은 숙제로

하며, 선학원 이사 중 1/3은 종단이 추천할 것을 명시했다. 선학원에 대해서는 법 적용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법인은 법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재산 및 정관의 변동 사항을 총무원에 보고해야 하며 사찰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종단이 정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미등록 법인에 대한 제재 조항도 명시됐다. 미등록 법인의 임원과 산하 사암의 재산상 권리인과 관리인은 선거권 등 권리를 제한받으며, 종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종도와 사찰이 설립한 법인들의 현황 파악과 관리는 삼보정재를 지키기 위한 시대적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인법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종단과 법인과의 온도 차가 현격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장 반발이 심한 곳은 선학원과 대각회다. 대각회 이사장 도업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사회와 소속 사찰 회의가 열리지 않아 공식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견임을 전제한 도업 스님은 "법인법의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법인을 현재의 법으로 소급해 적용시킨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며 "주지 임명과 사찰 운영에 침해 요소도 적지 않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법인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학원의 경우 기관지 〈불교저널〉을 통해 자신들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선학원은 〈불교저널〉편집장 칼럼을 통해 "조계종 집행부가 남다른 의지로 관철시킨 법인법은 그러나 선학원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선 법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다. 한 복지법인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에 등록해 검증된 법인들을 종단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종단도 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사단법인 관계자는 "당대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해도 후대로 갈수록 그 의미가 퇴색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법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저자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은 이번 종회를 통해서 선학원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학원대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법인 간 이견이 많은 만큼 논의 대상을 일선 법인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본법 안에서 세부적 의견들을 수렴해 종령과 세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 관리의 씨앗을 뿌린 조계종 법인법이 향후 어떤 열매를 맺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성철 스님 열반 20년 사업 '다채'

백련불교재단, 4월 8일 '육조단경 강좌' 등 연중 전개

백련불교문화재단이 성철 큰스님 열반 20주년을 맞아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과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은 3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8일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의 '육조단경 대강좌'를 시작으로 성철 스님 열반 20주기 기념행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우 스님의 육조단경 대강좌는 선(禪)의 기원을 육조혜능 스님의 육조단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성철 스님의 평소 뜻과 육조혜능 열반 13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강좌로 4월 8일부터 11월까지 매월 두 번째 월요일 오후 7시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린다. 대강좌 동참비는 15만 원이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은 성철 스님의 사상과 육조 혜능 선사의 사상의 연관성을 조명하기 위해 9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육조혜능과 퇴옹성철 그리고 한국불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고우 스님의 기조법문을 시작으로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혜능과 한국 선불교 전통' △김형효 서강대 석좌교수의 '혜능, 성철 그리고 현대인의 사상적 지형'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2012년부터 진행해온 성철 스님 수행처 순례도 재개 된다. 3월 30일 예산 수덕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3월 17일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국대 경주캠, 혜원 스님에 감사패 전달

한마음선원, 동국대 경주선센터 기금 1억원 지원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이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계영 총장은 3월 17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을 방문, 정기법회 후 혜원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한마음선원이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선센터 건립기금으로 써달라며 후원한 1억원 기부에 대한 것이다.

혜원 스님은 "학교와 동국대 국제선센터 건립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더욱 큰 일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故 대행 스님과 주지 혜원 스님 그리고 한마음선원 신도께서 평소 깊은 애정으로 본교를 후원해주셨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나은 기자**

고소·퇴임 촉구… 불교방송 파국 치닫나

BBS 노조 비위로 이사장 고소
사장 퇴진 놓고 공방 이어져
오는 28일 이사회 결과 '주목'



노조가 이사장 영담 스님을 비리 혐의로 고소하는가 하면 불교방송 前진행자 스님들이 '이채원 사장 사퇴 촉구 법회'를 여는 등 불교방송 이사장과 사장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사회가 사장 해임안을 상정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불교방송 사태가 파국 국면에 다다랐다. 불교방송 노조가 이사장 영담 스님을 비리 혐의로 고소하는가 하면 불교방송 前진행자 스님들은 '이채원 사장 사퇴 촉구 법회'를 여는 등 이사장과 사장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전영신)는 3월 18일 조계사 내 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한 조사위 구성을 촉구하고 3월 20일 횡령 · 배임 의혹과 관련해 이사장 영담 스님을 검찰에 고소했다.

불교방송 노조는 이날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한 불교방송 이사회와 불교계 결단을 촉구한다"며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사내 각종 비리를 밝히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불교방송노조는 △불교방송 이사회의 진상규명 소위 구성 △이사회 조사결과 발표 전까지 이채원 사장 흔들기 중지 △뮤지컬 원효 및 대구불교방송 사옥마련 의혹 해소 △후원회 사용내역 조사 후 공개 등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3월 13일부터 방송을 중단한 성전 스님 등 불교방송 前진행자 스님들은 3월 21일 불교방송국 앞에서 '불교방송 정체성 회복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열고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스님들은 "이채원 사장의 발로참회와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주동자 색출에 내몰렸고 고뇌에 찬 문제제기가 줄서기라고 폄하당하는 일들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이날 법회는 전국 각지에서 前진행자 스님들의 신도들이 버스를 대절해 참석하는 등 사부대중 5백 여명이 모여 피켓을 들고 '이채원 사장 사퇴'와 '불교방송 정상화 촉구' 등을 외쳤다.

현재, 교계 일각에서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과 이채원 사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힘겨루기가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3월 28일 이사회에서 이채원 사장의 해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숙 기자**

종단협 소속 종단 자살예방센터 운영해야

종단협 인권위, 18일 기자회견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 방지를 위한 불교의 역할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이하 종단협 인권위)는 3월 18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종단 내 자살예방센터를 둘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인권위는 성명서를 통해 "경제발전 위주의 국가 정책은 외형적인 성공은 가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청소년, 노인문제 등과 함께 자살공화국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불러왔다"며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질 좋은 삶을 위한 개혁으로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기회균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교계는 자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각 종단에서는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일 주 문



보조국사 제803주기 종재

순천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5월 5~6일 2일간 보조국사 제803주기 종재 및 보살계 수계산림을 개최한다. (061)753-5306



호국대성사 서산대제 개최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4월 29일 서산대사 탄신 493주년 호국대성사 서산대제를 봉행한다. (061)534-5502



사찰건강도시락 경연대회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4월 24일 봉은사 향적원에서 사찰건강도시락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02)3218-4836



2013 리더스포럼 개최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4월 3일부터 박창범 교수를 초청해 2013년 첫 리더스포럼을 진행한다.



동티베트 역사문화탐방단 모집

조성택 우리는선우 이사장은 5월 31일까지 중국 사천성 및 동티베트 지역을 돌아보는 제2기 세계역사문화탐방단을 모집한다. (02)2278-8672



김성숙 선생 제44주기 추모재

민성진 운암 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4월 12일 서울 현충원에서 '운암 김성숙 선생 제44주기 추모재'를 거행한다.

이정현 · 조광래 씨,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 왼쪽〉과 조광래 나로호우주발사추진단장〈사진 오른쪽〉이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을 수상했다.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이연택)는 3월 2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32차 정기총회에서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정치외교학과 78년 입학)과 조광래 나로호우주발사추진단장(전자공학과 82년 입학)에게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을 수여했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이정현 동문의 경우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조광래 동문은 나로호 발사를 성공시키며 한국 우주항공 산업 발전에 큰 획을 그은 공로를 인정해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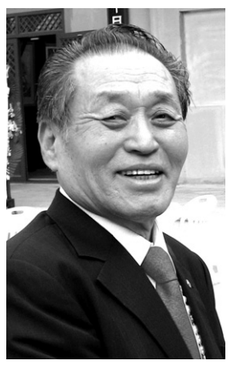
〈이전〉 포교사단 사무실 이전

포교사단 사무실이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12-2번지 삼선빌딩 4층으로 이전했다. (02)927-0588

"불교미술 거장 만봉 스님 불화세계 전승"

이용국 신원불교재단 이사장, 만봉불화박물관 개관





해발 1100미터의 망경대산 서쪽 계곡의 울창한 수림에 위치한 만봉사 · 만봉불화박물관 전경(좌)과 이용국 이사장.

"백수(白壽)가 다 되도록 화필을 놓지 않으시고 정진하신 만봉 스님의 불교미술과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계승 · 전파하겠습니다."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이자 한국 불교미술의 거장인 故 만봉 스님(1910~2006)의 불화세계를 전승하고,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만봉사 · 만봉불화박물관이 오는 5월 28일 개관한다.

만봉사 · 만봉불화박물관 건립을 이끈 이용국(재)신원불교재단 이사장(78)은 "만봉 스님은 금강산의 여러 고찰과 전국 명산대찰을 비롯해 보신각 등 수없이 많은 국보급 문화재의 단청과 불화를 남겼다"며 "우리나라 불교미술사에 길이 남을 소중한 유산과 한국불교미술의 정수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원불교재단은 2008년 10월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7,687㎡ 부지에 120억 원을 들여 만봉사 · 만봉불화박물관 건립을 착수했다. 현재 완공된 상태이며, 지난 3월 9일 만봉사 · 만봉불화박물관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만봉사 · 만봉불화박물관은 해발 1100미터의 망경대산 서쪽 계곡의 울창한 수림에 위치하고 있다. 만봉사 종각에는 이용국 이사장의 법명이자 호(號)를 딴 범종인 '신원의 종'이 있다.

이용국 이사장은 "종단과 종교를 수용하는 독립종단의 사찰로서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며 편안하게 기도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봉불화박물관에는 만봉 스님의 유물과 탱화 등 불화작품을 비롯해 도자기 등 수백점이 전시 보관되고 있다. 특히 2012년 12월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초(불화작품 밑그림) 10점이 전시돼 박물관으로서의 품격을 더했다. 이용국 이사장은 "만봉 스님의 작품을 효율적이면서 가장 안전하게 보존 및 전시를 하고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만봉 스님의 업적 및 작품을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원휄트공업' 창업주로 자수성가한 이용국 이사장은 독실한 불자다. 충청남도 홍성출신인 그는 8세가 되던 때 모친을 여의면서 자연스레 불교에 심취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에는 충청 용봉사와 수덕사를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의지하게 됐죠. 이후 서울로 상경해 사업 하면서 절을 세우겠다는 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사장은 1965년 '신원휄트공업'을 세우고 국내 최초로 휄트(FELT)생산을 시작했다. 휄트를 연구 · 개발한 결과 현재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우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이사장은 경영활동을 하면서 늘 부처님과 함께했다. 서울 본사와 인천 · 충남 등 공장에 석불을 모시고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과일 등 공양물을 올린 뒤 종업원들과 함께 나누었다.

그러다 이용국 이사장은 1990년대 초반 만봉 스님을 처음 만나 만봉 스님의 불화 전시가 있을 때마다 스님을 찾았고 전시회 마련도 도왔다.

"만봉 스님은 정말 부처님과도 같았어요. 항상 청빈하게 살면서 나보다 남을 생각했죠. 욕심이 없던 스님은 오로지 불화그리기에만 열중하셨어요."

이용국 이사장은 이런 만봉 스님의 수승한 뜻을 새겨 특색 있는 문화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불교문화와 연계한 콘텐츠 프로그램 구축과 시연회를 통한 수행문화체험을 제공하고,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나은 기자**

"특별재심 연기… 법규위 이관 희망"

원두 스님 18일 기자회견 "과거사 참회 의사 있다"

"최근 글을 쓰기 위해 당시의 종회 회의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면면히 살피니 지난날 잘 살지 못했는지 후회가 듭니다. 후배 스님들을 보듬지 못했던 제 지난날을 반성했습니다."

1994년 사태로 체탈도첩된 원두 스님〈사진〉은 3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상황을 이같이 술회했다.

스님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징계가 정당한지를 묻는 특별재심 청구를 조계종 호계원에 제출했다. 이후 3번의 심리가 진행됐으나 현행법상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져 법규위원회로 청구를 이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법규위원회의 심리가 자신에 대한 적극적 소명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다. 현재 원두 스님은 자신의 특별재심 청구심판에 대해 연기해줄 것을 신청했다.

"늘 후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종단이 화합하지 못했던 그날의 잘못도 통감합니다.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지난날의 과오를 말할 의사도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도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신중일 기자

청암사 · 구미대 연계프로그램 '눈길'

12년 21명 사회복지사 취득… 18명 입학

청암사승가대학과 구미대학의 사회연계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청암사승가대학 ·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은 3월 21일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자 구미대학교 특수보육계열 아동복지과와 연계해 불교복지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대학과의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2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21명의 스님들이 배출됐으며, 올해 3월 현재에는 18명의 학인 스님들이 구미대학교에 입학해 수학하고 있다.

구미대학 특수보육계열 아동복지과를 졸업하면 아동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실기교사2급을 취득하게 된다. 동국대학교



를 비롯한 일반 4년제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 가능하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도명스님 제 18주기 다례재 봉행

도명 스님 제 18주기 다례재가 3월 20일 고성 화암사에서 화암사 회주 정휴 스님을 비롯해 前 파계사 주지 도원 스님, 화암사 주지 동선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동선 스님은 "살아생전 은사 스님이 강조하셨던 가르침을 잘 되새기며 가행정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20주기를 맞는 2년 뒤에는 기념 문집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명 스님은 1962년 파계사에서 고송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월정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조



계종 종회의원과 규정부장을 지냈으며, 1995년 2월 예천 보문사에서 입적했다. **김주일 기자**

제4기 화쟁리더십아키데미 개강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조계종 화쟁위)는 3월 18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제4기 화쟁리더십아카데미를 개강했다. '붓다의 대화 연구소'가 함께 하는 이번 4기 화쟁리더십아카데미는 부처님의 대화법을 통해 새로운 화쟁적 대화법을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실제 강의 형식으로 진행됐던 이전 아카데미와는 달리 이번 강좌는 화쟁적 대화실습과 중재실습 등으로 꾸려졌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마친 참가자들은 2인씩, 혹



은 그룹으로 팀을 이뤄 번갈아가며 대화를 진행했다. **신중일 기자**

봉 행

고승대덕 초청 보살품계 수계의식 및 영산 대법회

(사)한국불교조견종(照見宗) 창종 기념 한마음 전국 노래자랑

▶ 불기2557(2013)년 4월 28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조견종 대본산 선화사 ◀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그것을 지닌 이에게 아름다움과 향기가 진동하듯이 청정성 도덕성 자율성 무소유의 삶이 수행자의 근본이고 자존심이며 양심입니다. 부처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을 수행하면 중생 누구에게나 이익이 따르듯이 실상 세계와 허상세계 속에서 무엇이 진심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신음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지(無知)의 어둠을 버리고 인자(仁慈)로서 완전한 생함을 이끌어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고 자애(慈愛)로 충만시켜 영원(永遠)토록 하늘 높이 비상(飛上)하는 일체(一切)의 결과에 항복하지 않고 비굴하거나 두려워 하지 않으며 진위(眞僞)를 식별(識別)하여 근본(根本)의 문제를 독파(讀破)한 지혜롭고 자유(自由)와 덕(德)을 갖춘 고승대덕 큰스님 그리고 부지런히 수고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참 좋은 날을 택해 한국불교 조견종(照見宗) 창종을 선포하고 알리고자 하오니 종속 승속을 막론하고 인류의 꽃 비할데 없는 주인 불타 세존께 한마음 한뜻으로 두 손 모아 향 사르며 계수예배 동참하여 주십시오.

불기 2557년 4월 8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견종(照見宗) 총무원장 성문

고승대덕 보살품수 수계의식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수행을 큰스님들께 점검받고 보살 법계를 품후 수계하는 의식입니다.
7증사 증명 법주 큰스님으로부터 보살 품수를 받은 불자야말로 진정한 불자로 거듭 태어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여법한 의식에 따라 진리를 받아들이는 날 비로소 참 불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품수 의식 후 고가의 소원성취 기념품 전원 증정합니다.)

희망의 소리 한마음 전국 노래자랑

창종 및 수계의식의 참 좋은날.. 불자라면 누구나 음성공양의 전법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화합과 즐거움이 가득한 인연의 장에서 마음껏 재능을 보여주세요.

- 응시자격 : 음악을 통해 예술적, 예능적 소양과 소질을 개발하고 함께하는 밝은 마음으로 정진하고 계시는 모든 불자여러분.
- 특 전 : 선발된 분들은 일정 교육 이수 후 조견종 전법가수로서 방송음원 제작 및 전반에 대해 후원.
- 접수기간 : 2013년 4월 1일부터 28일까지 (당일 현장접수까지)
- 접 수 : 예약 010-3365-9185. 010-9228-0622

- 봉행위원회
- 증명대법사 : 각성. 무산. 법열. 혜암. 보인. 도일. 혜담. 담월. 보안
- 원 로 위 원 : 혜산. 혜천. 법일. 일오. 성해. 운산. 정암. 벽운. 벽암. 도성. 현광. 신풍. 혜철. 대광. 진표. 혜안. 청해. 일강. 지암. 일오. 월정. 일공. 의성. 동산. 청암. 동원. 월산. 청하
- 집행위원회
- 위원장 : 무공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 위 원 : 활안. 광명. 설송. 지광. 아산. 석호. 청송. 장수. 성철. 지암. 청산. 구암. 지영. 석수. 만봉. 태대. 월광. 광명. 청광. 설송. 동화. 경흥. 정섭. 병대. 불광. 혜인. 해동. 청광. 지암. 태대. 일광. 진상. 동진. 아산. 위산. 송월. 금란. 태일. 무량수. 환인. 원당. 도성. 지광. 법천. 현각. 혜륜. 길주. 무허. 운장. 성덕. 도광. 일광. 뮤린. 광선. 법성. 명조. 청산. 인산. 동환. 태선. 법성. 인산. 일웅. 청암. 운월. 혜남. 월단. 청원. 보문. 혜봉. 지영. 대광. 법천. 영관. 약산. 법민. 구화. 원당. 해인. 재연. 우담. 태인. 만청. 월암. 지월. 원공. 월담. 법정. 청담. 관행. 월산. 법기. 서광. 원상. 연화. 법통. 지법. 금화. 도현. 만오. 기복. 공산. 법환. 해인. 지암. 연화. 현불. 대명. 월성. 선학. 보각. 도현. 진순. 밀허. 혜담. 벽암. 대보. 도운. 혜승. 도선. 지암. 동화. 지암. 혜일. 금당. 법경. 청담. 법현. 청광. 향덕. 향덕. 원광. 해월. 만오. 태산. 광식. 덕천. 규진. 정안. 일경. 일월. 범행. 대명. 부건. 만봉. 혜담. 법천. 장원. 이지영. 용화. 해원. 지암. 황봉. 대도. 보각. 불광. 법성. 해봉. 진공. 혜산. 철산. 영암. 성범. 대각. 청산. 금강. 영월. 법안. 무상. 고림. 지현. 청안. 만호. 혜공. 자현. 상운. 영사. 대광. 현송. 월암. 도광

- 봉행위원회
- 위원장 : 성문(한국불교조견종 총무원장)
- 위 원 : 금신(채미숙). 명월(김순자). 범심(신규순). 보광(김분자). 선덕(윤순녀). 보명(조숙자). 용월(정순임)

- 봉사위원회
- 위원장 : 자운(조복순)
- 위 원 : 진해(김금순). 대화(이우광). 한각(윤미자). 향수(김미지자). 가지(이순옥). 견범(박숙자). 관념(김은순). 명신(서재순). 범일(정연숙). 보덕(김춘자). 한당(배효임). 수운(최미자). 용심(최미리). 자은(김필순). 심신(유해남). 관득(송용주). 호명(육순이)

- 홍보위원회
- 위원장 : 관경(최옥희)
- 위 원 : 자성(정성희). 정진(우복한). 명원(김우순). 청심(박은경)
- 대외협력섭외위원장 : 도광(전사련 기획실장)
- 위 원 : 장규호(전사련 디자인부장). 최대호(종교세계신문 취재부장)

문 의 : (사)한국불교조견종 010-3365-9185. 010-9228-0622
주 소 : 경기 파주시 파주읍 향양 2리 214-4번지 (사)한국불교조견종 대본산 선화사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승보공양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승보공양을 선포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병선 추진위원장,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포교원장 지원 스님,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


대웅전에 모인 불자들이 ARS로 동참하고 있다.


이날 조계사 대웅전에는 300여 불자들이 모여 승보공양을 서원했다.


선포식 이후 CMS 약정을 진행하는 추진위원들.

"스님들 노후가 편하면 수행이 절로"

조계종 출가열반절 법회 및 승보공양 실천운동 선포식

조계종, 종단 차원 승보공양 운동

3월 19일 선포식, ARS 진행

300여 불자 승보공양 서원

26일까지 108배 참회 발원 법회

요양비 없는 스님 우선 지원

포교원, 중앙신도회 등 동참

"그동안 힘든 일이 있을때 마다 사찰을 찾아 스님에게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동안 스님들에게 받은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갚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세찬 고등학교 교장

"절에서 기도를 집전해주시며 가족 건강을 항상 기원해 주셨어요. 많은 스님들이 노후를 걱정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종단에서 기금을 모은다는 말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김영희 주부

부처님이 왕자의 직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로 떠난 출가재일인 3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 조계종 총무부장)는 3월 19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출가열반재일 정진법회 입재식과 함께 승보공양 실천운동 선포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진행하는 승보공양 실천운동은 요양비와 입원치료비가 없는 고령의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단 차원의 모금운동이다.

불교에서는 재가자가 승단을 외화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오랜 전통으로 자리해왔다.

무소유 원칙에 따라 스님들은 출가하면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모든 재산은 삼보정재에 편입된다. 대부분 스님들의 월 보시액은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게다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스님들이 다수다.

그러다보니 노후가 되거나 큰 병을 앓게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특히 선원이나 사찰에서 수행에만 전념하는 스님들의 경우 노후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현실은사재 축적의 주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날 정진법회 입재식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증명법사로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이기흥 중앙신도회 회장 등 재가 불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열반재일인 3월 26일까지는 전국 사찰에서 매일 108배 참회발원 정진법회가 진행되며 승보공양 일환으로 CMS와 ARS 기금 모금이 실시된다. 참가자들은 출가열반절 수행일지를 통해 자신의 정진을 되돌아 볼 수 있다.

"조계종 신도 일동은 승보공양 실천운동이 21세기 출재가 대중의 공동체 회복운동임을 자각하고 불국정토가 화현되는 그날까지 '범종도 승보공양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진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류병선 조계종 중앙신도회 승보공양실천운동추진위원장의 발원문 선창으로 시작됐다. 사회자의 취지를 알리는 말과 함께 재일법회를 기해 조계사를 찾은 수많은 불자들은 발원문을 따라 읽으며 승보공양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입재식에서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부처님의 출가정신은 삶을 바르게 관조하라는 것에 있다"며 "일주일간 정진하며 새로운 자기를 만드는 용맹심과 함께 주변을 돌보는 자비심을 기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원 스님의 법문 이후 승보공양 홍보 동영상 상영과 함께 ARS 동참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대웅전에 모인 불자들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승보공양 ARS에 동참했다.

재일 기도를 위해 조계사를 찾은 김명숙 씨는 "ARS전화로 한푼 두푼 보시한 돈이 나이든 스님들의 노후와 병원비 등으로 사용된다니 절로 돕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법회가 끝난 뒤 지원 스님과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류병선 승보공양 실천운동 추진위원장 등은 조계사 대웅전 앞에 마련된 승보공양 후원 부스를 찾아 약정서에 서명했다.

한편, 승보공양 운동이 시작된 직후 조계종 총무원 종무원조합(위원장 심주완)은 전 종무원들의 후원 동참서를 승려복지회 회장 지현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날 후원에 동참한 종무원들은 120명으로 108배 1배 당 100원씩 매월 10800원을 후원한다.

심주완 위원장은 "1주일간 약 120 여명이 후원에 참여했고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스님들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수행과 전법교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승려복지회장 지현스님은 "승려노후복지에 마음을 모아준 종무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우리 스님은 우리가 모신다는 여러분의 생각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RS 동참 (060)700-1077, 1회 통화에 3000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승보공양 운동은 출·재가 화합 계기"

류병선 승보공양 추진위 위원장



"스님들 노후 마련을 위한 재가자들의 승보공양 운동은 향후 불교계에서 출가자와 재가자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류병선 승보공양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74세, 법명 보광월)은 출가열반재일을 맞은 19일 승보공양의 의미를 강조했다.

승보공양운동추진위원회는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추진하는 '범종도 승보공양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결성된 단체.

'승보공양추진위원회'는 중앙신도회 회장단이 전원 참여한다. 류병선 위원장은 현재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이자 대구 동화사 및 조계종 제9교구 신도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벨벳부문 세계 생산 및 수출 1위 기업인 영도벨벳을 이끌고 있는 류병선 위원장은 오랫동안 대구지역 불자와 신도조직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류병선 위원장은 평소에도 영도벨벳의 성공을 비롯한 모든 일들이 모두 부처님의 가피덕분이라고 밝히는 독실한 불자.

남편인 故 이원화 전 회장과 함께 1960년 영도벨벳을 세우고 1995년 직기 180대를 증설하는 등 사업확장에 나섰지만 IMF사태로 인해 워크아웃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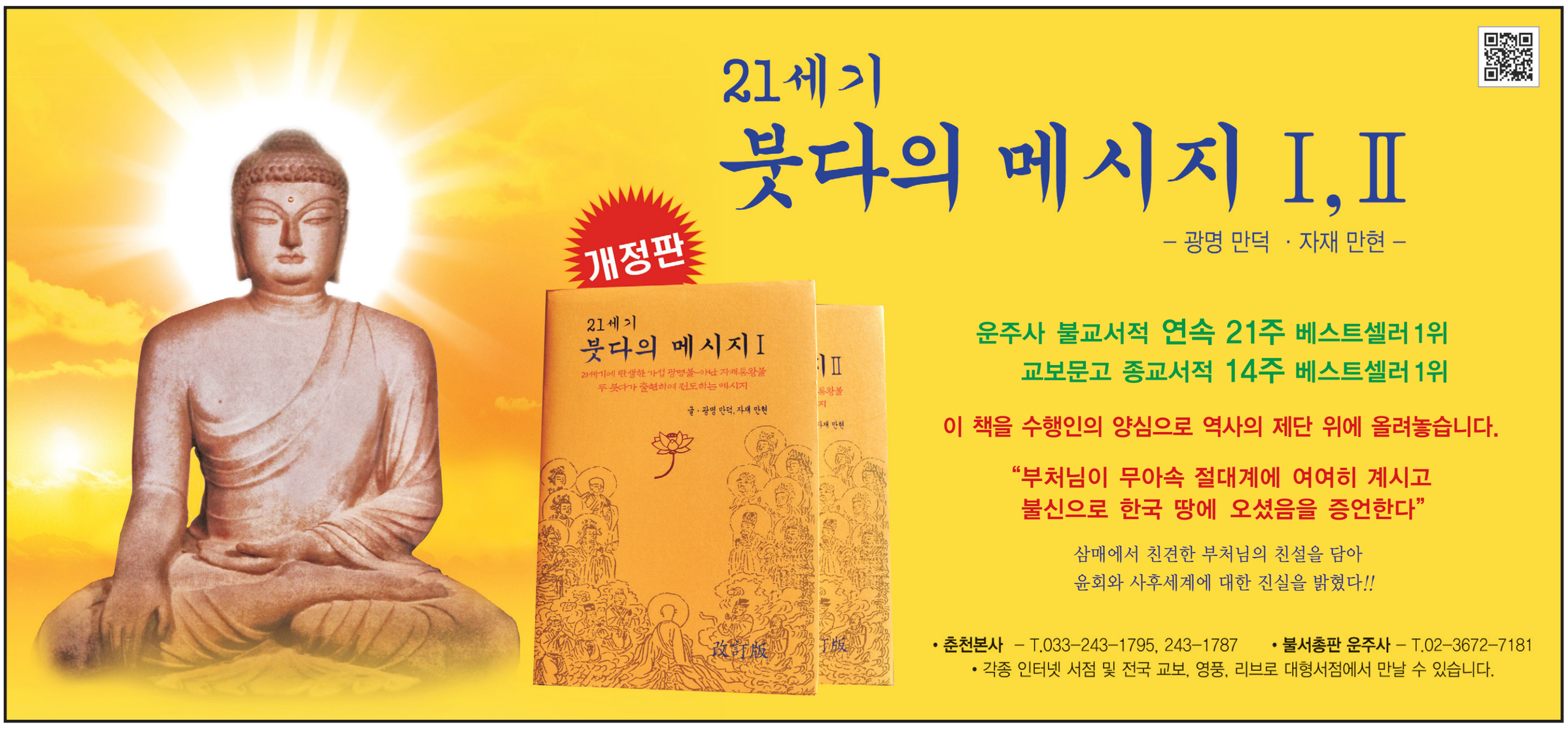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초심으로 되돌아가자고 마음을 먹은 류 위원장은 마이크로벨벳을 개발하면서 재기에 성공한다.

류 위원장은 "당시 회사 사원들과 그에 따른 수많은 사원 가족들을 생각하며 모두 함께 마음을 모으니 부처님께서도 도와주셨던 것 같다"며 "당시 부처님의 가피가 없었다면 회사는 문 닫았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조계종 제9교구 신도회장을 맡은 뒤 동화사의 팔공총림 지정, 비슬산 대견사지 복원,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등에 기여해왔다. 류 위원장은 2011년부터 펼치고 있는 장학사업을 확대해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의 학업을 돕는 장학재단도 설립할 계획이다.

류 위원장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던 중 이기흥 중앙신도회 회장의 승보공양 발원의 뜻을 접하고 조용히 있을 수 없었다"며 "전국의 신도들이 한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를 밝혔다.

류 위원장은 끝으로 "가톨릭의 경우 신부님들이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직자 후원회에서 일정 금액을 연금형식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은퇴 사제관을 지어 기거할 곳도 제공하고 있다"며 "불교계도 스님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승려노후복지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집중력 · 창의력 키워 한류 주역 되자

지혜경영연구소, 지혜인 명상법 보급 '활발'





지혜경영연구소는 현재 지혜인 명상 지도사(1급, 2급)양성과정을 개설해 매주 토요일 교수, 교사, 스님 등을 대상으로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손기원 대표

한류는 창조, 집중, 신명과 연관
한국인은 5천년전부터 명상해
지혜인명상은 유 · 불 · 도 통합 명상
4월 13일 지혜인명상 힐링 캠프 열어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펴낸 '2013년 한국 기업의 6대 경영이슈' 보고서에서 2013년 경영환경의 특징으로 '장기전, 전면전, 체질전'을 제시했다. '경영이 매우 어려워졌고 그 흐름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연구소는 '6대 경영이슈'를 소개하며 "치유와 격려를 통한 마음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학교 공동체, 기업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음치유'와 '힐링(healing)'에 주목하는 가운데 8년 전부터 기업과 단체에 유 · 불 · 도를 통합한 명상치유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지혜경영연구소(대표 손기원)는 자기혁신 프로그램인 '지혜인 리더십' 코스를 개발해 삼성전자, 신한은행, 충북교육청, KAIST 등 여러 기업과 단체에 도입해 각광을 받고 있다. 또 △지혜인 캠프 △청소년 집중력 캠프 △청소년 리더십 캠프를 활발하게 진행해 많은 수련생을 배출했다.

이처럼 지혜경영연구소가 여러 기업의 임직원과 공직자, 초 · 중 · 고 교장과 학생 등 수 만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지혜인 명상' 이다.

손기원 대표는 " '지혜인 명상' 은 한국의 5000년 명상과 불교식 위빠사나 호흡명상, 서구초월명상의 장점을 접목한 우리 고유의 신명나는 변화, 창조, 집중, 소통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손기원 대표는 한국이 K-pop과 B-Boy, 스포츠 및 제조업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떠오른 이유는 한국인이 갖고 있는 집중력, 신명, 창조력과 연관이 있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장점이 한국인의 정신문화 전통인 '명상'과 '진리학습'의 전통을 이어왔다고 분석했다.

손기원 대표는 "한국인은 '자기 수양'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전통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은 명상이었으며 그 전통은 한국의 역사 내내 이어져 왔다"며 "이런 수양은 단군신화, 신라 풍류, 유학, 불교, 노장 사상 등이 어우러져 이어온 것이다. 한국인의 집중, 신명, 창조는 그 뿌리에서 생겨난 열매"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가 강조한 지혜인 명상은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보통 불교의 수식관(數息觀)에서 숨을 들이 마실 때와 내쉴 때를 하나로 수를 세는데 이는 초보자들이 처음하기에는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지혜인 명상에서는 들숨에 '하나'라는 수를, 날숨에 '둘'이라는 수를 대입해 반복하게 합니다."

지혜인 명상은 서구의 초월명상에서 비롯된 감사명상도 포함된다. 날숨을 쉴 때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호흡과 감사한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손 대표는 "세상에는 감사하지 않은 게 없다. 심지어 스트레스도 감사한 일이며,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이상 감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상을 알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좋고 중요한 것인지 누구나 알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성이다. 손 대표는 올바른 명상 습관을 들이도록 수련자들에게 '1일 1생 명상'을 강조한다.

"명상은 최소한 100일 정도 해야 중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명상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명상으로 시작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명상으로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각 20분 내외가 알맞으며 바쁠 때는 3~5분이라도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인 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한 수련생들은 "직장생활에 회의를 느꼈는데 프로그램 참여 후 내가 몸 담고 있는 회사와 업무, 직장 상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 "여름 · 겨울 방학 때 참가했는데 집중력도 높아지고 성적도 오르게 됐다"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입을 모은다.

지혜경영연구소는 현재 지혜인 명상 지도사(1급, 2급)양성과정을 개설해 매주 토요일 교수, 교사, 스님 등을 대상으로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140시간으로 커리큘럼은 △한국인의 5천년 명상전통 △한국 · 동양사상의 진리와 명상 등으로 구성됐다.

진행 교수진으로는 지혜경영연구소 손기원 대표를 비롯해 이청길 심신수련원장과 이명순 이사가 참여하며,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박의동 원장도 특강에 참여한다. 수료자에게는 수료증과 지혜인 명상 지도사(2급, 1급) 자격증을 수여하며, 지혜인 명상 지도자로서의 소양에 따라 교육 진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한편 지혜경영연구소는 4월 12~14일 영월 망경대산 자연명상원에서 '지혜인 명상캠프'를 개최한다. 해발 800m 산속 청정지역에서 한국 전통사상과 명상을 접목한 수행 프로그램과 ,사찰 자연음식을 체험 워크숍도 마련된다. 참가 희망자는 지혜경영연구소 홈페이지(www.onwisdom.com)를 참조하면 된다. (02)766-9455 이나은 기자

노동자들 산사서 마음을 달래다

문화사업단, 29~30일 금산사서

고용불안의 시대,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자를 위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와 함께 오는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전국의 비정규직 및 해고, 파업 노동자 45명을 초청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노사분규, 해고 등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으로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백제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 금산사에서 전통문화 체험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다.

특히 금산사의 대표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인 '내비둬 콘서트'와 함께 지친 심신을 다독이는 수행 프로그램이 병행된다.

참가자들은 1박2일간 '나를 치유하는 108배', 새벽 숲길 걷기, 암자순례 및 명상 등 사찰 체험과 함께 자연 안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참가자간의 마음 나누기, 세상을 향한 회향의 시간 등을 통해 심신을 새로이 다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일감 스님이 참석,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오랜 파업과 갈등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참가자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02)2031-2000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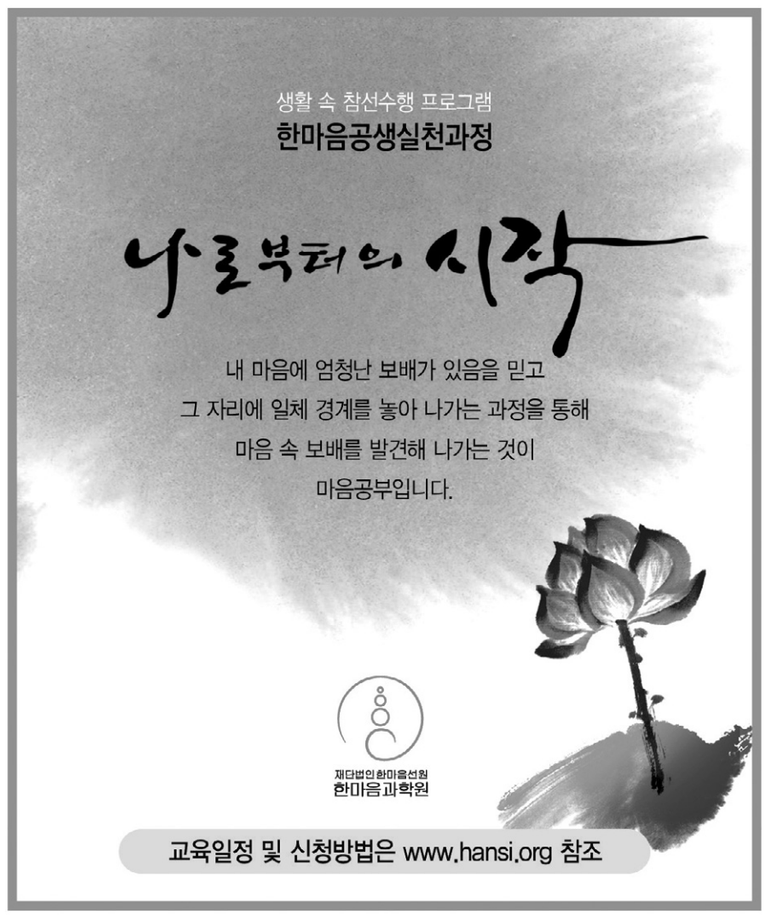
조계종 멤버십, 경희의료원서도 사용 가능

3월 22일 협약…진료비 10%, 검진비 20% 감면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3월 22일 경희의료원과 신도멤버십 협약을 맺었다.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하고 매년 교무금을 납부하는 신도는 경희의료원 진료 시 △선택진료비 10% 감면 △동서건강증진센터 기본 검진비 20%감면 △로봇수술 수가(비보험) 10%감면 △비보험 10%감면(MRI, 초음파)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40%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교원은 2009년부터 멤버십 신도증 발급 사업을 시작해 2011년 8월 신도멤버십 센터를 개설해 멤버십 혜택 확대에 나서고 있다. 포교원은 경희의료원 외에도 제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교원은 이원화 돼있던 조계종 신도증과 사찰 신도증을 통합하는 첫 행사로 3월 24일 봉은사에 통합신도증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국제선센터, 매월 간화선 템플스테이 연다

2박 3일 참선 집중수행 실시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매월 1회 '간화선 집중 템플스테이'를 연다고 밝혔다.

국제선센터는 "참선에 관심은 있으나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쉽게 마음을 내지 못했던 사람, 참선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른 지도가 필요한 사람, 좀 더 깊이 있는 수행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 마련됐다"며 "주말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므로 직장인도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제1회 간화선 집중템플스테이'는 3월 22~24일 국제선센터에서 열렸다. 예불, 공양, 청소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정진에 집중하도록 진행됐다. 지도법사는 혜연 스님(국제선센터 국제차장)과 선감 스님으로 초보자들을 세심하게 지도했다.

국제선센터는 오는 4월에도 '간화선 집중 템플스테이'를 연다. 참선 유경험자 및 초보자도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8만원이다. 2박 3일간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을 위해 1박 2일 동참자도 접수받고 있다.

국제선센터는 "간화선을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전 과정을 국제선센터에서 진행하므로 도심을 벗어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2650-2214 이나은 기자

대불청, 상반기 임원연수 실시

비전 공유하는 시간 가져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는 전국 80여 대불청 지구 및 지회임원을 대상으로 '청년 불교 리더 양성 연수'를 열었다.

'따뜻한 마음, 감동이 있는 불청'을 주제로 3월 16~17일 공주 영평사에서 열린 임원 연수는 전국 청년회 회장단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점 사업 소개 및 비전 만들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청년불자와 리더쉽 △10년 후 청년회! 비전과 목표 세우기 △긍정혁명,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성공적인 청년회 만들기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시간에 서로 토론하며 대불청의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나은 기자



전국 80여 대불청 지구 및 지회임원 70여 명이 공주 영평사에 모여 대불청의 비전을 공유했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전국 주지스님께 인사드립니다

금번 제 18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해 주신 불자 및 주지스님께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선거총괄본부 국민행복
불교조직 중앙본부장 회암(정영춘)
대한불교 본조계종 종정 회암 합장
대한불교종단진흥 총연합회 회장 합장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8가길 16-1 전화 : 02)3436-0796~7
인터넷 검색 (대한불교 본조계종)

※ 종단 가입등록 받습니다.

끙끙 앓지 말고 복지관 찾으세요

불교계 복지관 우울증 상담 치료

우울증을 앓는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70대 여성의 우울증 환자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종대)이 최근 5년간(2007~2011년)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환자가 2007년 47만 6000명에서 2011년 53만 명 5000명으로 늘었다.

성별로 이 기간의 연간 평균 환자 수를 비교하면 여성(34만6000명)이 남성(15만 2000명)의 2.3배였다. 특히 2011년을 기준으로 10만 명당 환자는 70대 여성(4178명)이 가장 많았다. 60대 여성(3217명)과 80대 이상 여성(2990명)이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경제력 상실, 신체기능 저하, 배우자 사별로 인한 여성 노인의 스트레스가 극심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여성노인의 우울증이 심각하지만 어르신들은 스스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지각하지 못한다. 노인 우울증의 증상은 주로 가슴통증, 마비, 소화불량 등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과 주변인들 모두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해 적극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교계 복지관들은 어르신들을 위해 우울증진단과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개별 · 집단 · 방문 상담을 비롯해 문화 활동을 결들여 우울감을 해소하는 프로그램,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울어르신상담센터**(02-723-9988)는 내방, 전화, 사이버, 이동순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1:1 상담을 하고 있다. △심리상담 △가족상담 △학대상담 △정서상담 (소외감, 우울감, 사별후 적응 등)이 주된 내용이다.


속초노인복지관이 진행하는 '위풍당당 할매들'의 참여자들은 미술심리치료를 통해 우울감을 감소시킨다.

우울증 환자 70대 여성 최다
우울증세 노화증세로 착각
적극치료해야 예방할수 있어

특히 센터는 풍경소리와 함께 4월 3~12일 4회에 걸쳐 대인관계와 감정다루기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명상집단상담 프로그램 '마음챙기기'를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마음챙김명상을 행선과 좌선 및 호흡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어르신상센터는 "자신의 통찰과 생(生)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우울, 분노 등 부정적 감정조절과 자아통합감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가 희망자는 4월 2일까지 접수받는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02-742-9500)은 우울감이 있는 홀몸어르신들의 노년생활 지원프로그램인 '이웃사촌'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은 홀몸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 · 금요일 웃음치료와 건강체조로 심신에 활력을 돋우고 아침고요수목원 탐방과 템플스테이, 사진찍기, 문화공연관람 등 취미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이웃관계를 형성해 건강한 노년기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02-922-6090)은 부설기관으로 어르신정서지원센터를 월 ·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일반상담(생활상담, 각종 노인복지정보 제공)과 전문상담(우울증상담, 치매상담, 법률상담)을 실시하며, 전문상담은 각 분야의 전문기관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연천군노인복지관(031-834-6080)은 무한돌봄네트워크를 실시하고 있다. 연천 북부지역내 집중사례관리대상을 선정해 노인자살 위기개입 및 우울상담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노인자살예방교육 및 노인우울증 진료비 지원사업(진료비, 약제비, 임상심리검사 무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032-667-0261)은 우울과 자살생각, 치매염려, 가족 및 부부갈등, 가정 · 성폭력 등으로 힘들어 하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또래 어르신들과 대화 및 상담을 통해 외롭고 아픈 어르신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있다.

속초시노인복지관(033-636-3373)은 사별로 상실감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속초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사별한 지 5년 미만의 어르신을 대상으로하는 외로움 ·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위풍당당 할매들'이다.

참가 어르신들은 매주모여 참여자 집단상담,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을 통해 우울증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어르신들은 매월 1회씩 전문상담가를 모시고 참여자 집단상담 및 미술심리치료를 실시해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부여받아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다.

속초시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만 해도 어르신들의 표정이 어둡고 소극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으나, 미술심리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많이 밝아지셨다"고 설명했다.

대전 용문종합사회복지관(042-537-0615)은 재가어르신 사회참여 지원 프로그램 '하하하 호호호'를 진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중도의 우울증을 가진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술치료(24회)와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동일한 문제나 욕구를 지닌 어르신들을 집단으로 구성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문제해결력과 정서적 지지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사례관리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또한 어르신들이 접하는 다양한 문제를 전문가 특강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쑥뜸서비스 실시

올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쑥뜸 서비스를 받는 복지관 이용자들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어르신들의 신체 · 정서적 안정을 위해 쑥뜸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2013년 12월까지 9개월간 매월 2~4째주 금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복지관 5층 으뜸터에서 쑥뜸서비스를 실시하며 쑥뜸서비스는 쑥뜸봉사단인 진불회의 봉사활동을 통해 제공된다.

진불회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재재단 소속의 봉사단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다.

쑥뜸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혜택이 낮은 의료보호 2종 수혜자, 기초생활 수급자, 경로식당 이용자, 거동가능하며 본 사업에 욕구가 있는 대상자의 순으로 선정이 이루어지며 매주 20명씩 매월 4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쑥뜸서비스를 이용한 김명진(가명, 72세) 어르신은 "요즘 혈액순환이 잘 안돼서 손발도 차갑고 손도 저렸는데 뜸치료를 받고 나니 손이 많이 따뜻해진 것 같다"며 "앞으로 꾸준히 쑥뜸서비스를 이용하면 손발시림이 많이 사라질 것 같다"고 하면서 기대감을 표했다. (02)362-3348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생명나눔, 이사회 개최…사업계획 승인

제주도 신임지역본부장에 제용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3월 21일 본부회의실에서 제34차 임시이사회 및 제32차 정기총회를 열어 2013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임시이사회는 재적인원 20명 중 19명이 참석해 2012년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 2012년 사업 및 회계 결산 보고, 2013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승인에 대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밖에 신임지역본부장으로 제주도 제용 스님과 강유주 경남본부장 선출 심의 승인을 진행했다.

이사회는 2013년도 사업 예산을 14억 9181만원으로 확정 결의하고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사업통한 사회복지 선도적 역할 △효율적 회원 및 후원자 관리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직책별 직무의 전문화 등을 진행한다. 이나은 기자

뇌병변 장애 노인 위한 죽음준비프로그램

홍천군복지관, 오는 9월까지 진행

지체 · 뇌병변 장애를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죽음준비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희유)은 "3월부터 6개월간 24회에 걸쳐 '죽음준비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관은 3월 13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모시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일에는 죽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24회에 걸쳐 죽음에 대한 이해, 인생그래프, 노년기건강관리, 용서와 화해, 감사하는 삶, 상실과 슬픔의 치유 등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한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은 "참여자들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부정적인 태도를 감소시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리함으로써 정신적 여유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033)435-7031 이나은 기자

송산노인복지관, 무료합동결혼식 연다

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관장 법일)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혼인식을 하지 못한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5월 11일 무료합동 결혼식을 개최한다.

이번 합동결혼식은 송산실버문화센터 강당에서 실시되며, 신부드레스, 식비, 사진 인화료, 피로연등 일체 경비를 행사주최측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결혼식 참가자에게는 선물도 증정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부부는 4월 19일까지 송산노인복지회관(031-852-2595)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나은 기자

한국다문화센터, 합창대회 개최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무원)는 6월 12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에서 제4회 전국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다문화센터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50%이상 다문화자녀가 포함 된 중창단, 합창단을 대상으로 열린다.

참가 희망자는 4월 1일~5월 21일 대회 참가팀을 접수한 뒤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2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에서 대회를 치르게 된다. 수상은 대상(상금 300만원)을 비롯해 금 · 은 · 동상 등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02)737-0467

우리은행, 종로노인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3월 21일 우리은행 종로구청점과 '미소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윤영만 우리은행 종로구청점 지점장이 정관 스님에게 희망나눔 후원금으로 써달라며 5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 이후 우리은행 임직원들은 복지관 청소 봉사활동을 했다.

이나은 기자



정관 스님(오른쪽)과 윤영만 지점장(왼쪽)

〈알림〉 3월 20일자 7면 'A등급 불교복지관 437개소 중 49곳'에 실린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A등급 불교계시설명단)' 노인복지관 명단 중 종로노인복지관이 누락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교육시간 : 초 · 중 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3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4월 중
◆ 개강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수행은 뇌의 정신 생리를 변화시킨다”



이성동 박사는 3월 21일 열린논단 강연에서 뇌과학과 불교의 만남이 인류의 행복을 이끌 것이라고 역설했다.



뇌모형으로 뇌과학을 설명하고 있는 이성동 박사



청중들이 이성동 박사의 ‘선과 뇌과학’ 강의를 진지하게 듣고있다.

불교평론 3월 열린논단 - ‘선과 뇌과학’

이성동 박사 (정신과 전문의)

불교평론이 3월 21일 ‘선과 뇌과학’을 주제로 이성동 박사(정신과 전문의. ‘선과 뇌의 향연’ 번역자)를 초청해 3월 열린논단을 개최했다.

불교의 선체험이 뇌과학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성동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뇌과학이라는 자연과학적 입장이 선적체험의 전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주관적 마음의 심상과 뇌과학적 규명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세기 초 동아시아 이민자를 중심으로 서양에 전해진 불교는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심리학자, 의학자와 같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1950년대 에리히 프롬 등 신프로이트학파 심리학자들은 스즈키 다이세츠에 의해 소개된 선불교와 함께 정신분석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테라와다 불교의 마음챙김 명상 또는 위빠사나 명상이 서양에 알려졌으며 1979년부터는 존 카밧진 박사에 의해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MBSR) 프로그램이 의료현장에서 만성통증 환자나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에게 시행됐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임상적인 효과를 거두면서 서양의료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불교명상을 포함한 다양한 동양의 명상이 심신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은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상은 임상적 치료 효과는 물론 행복증진에도 효과가 있음이 다양한 연구에 의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종교 체험 가운데 명상 체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뇌 영상을 촬영하는 기술이 급격한 속도로 발전을 이루면서 뇌과학 혹은 신경과학 분야에서 명상 체험을 하는 신경생리학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병원에 있으면 치매로 인해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세포가 파괴되며 인격이 무너진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머리가 좋고 연구를 많이 하던 교수들도 뇌의 기능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격이나 마음이 뇌세포에 의지 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서양학자들도 그러했습니다. 학계에선 인격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뇌과학자들은 그 이전부터 전두엽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후두엽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부분적인 부위의 역할을 살피는 국소주의적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중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의 사건은 학계에 뇌의 기능에 대해 연구하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철도노동자였습니다. 일을 하던 와중에 파이프가 뇌를 관통하게 됐습니다. 물론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만 전두엽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뇌에 손상을 입은 그 사람의 성격은 날로 변하게 됩니다. 온순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던 그는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국소주의에서 여러 부분이 네트워킹으로 연관돼 활동한다는 연구로 그 방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을 당하더라도 주변에서 보상작용을 통해 일정부분을 보완하는 것 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달라이라마가 서양에 가며 과학에 관심을 갖고 각종 뇌과학 실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명상을 하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변할까요? 특히 선 수행을 했을 때 뇌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뇌과학자들은 초월 명상에 주목합니다. 뇌과학 실험 중 좌뇌의 출혈이 일어나 우뇌 활동이 강화된 실험대상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실험대상은 우뇌의 활동이 강화되자 시간의 흐름이 살펴지며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해탈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 뇌과학은 원숭이 뇌와 로봇을 연결해 원숭이가 ‘왼쪽 팔을 올려야 겠다’ 고 생각하면 로봇이 왼팔을 올리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뇌활동 활발 열반 상태 비슷

명상으로 우울증 등 치료

수행통한 뇌의 기능확대 주목

삼성이나 애플에서는 눈동자에 따라 화면이 움직인다든지 하는 기술까지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뇌파와 고승들의 뇌파를 공명시키면 공상 과학에서 나오는 평화의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와 뇌과학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체험이 기반입니다. 임상적으로 환자를 돌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호소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파요’ 하는데 실험적으로 아프다는 것이 없다면 아프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까. 이를 달리 생각해서 선정의 깊은 체험을 뇌과학에서의 기계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없다고 할 것입니까.

임제종에서 한때 스님들의 뇌파를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깨달음의 뇌파가 나온 스님들이 있고 또 아닌 스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님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까.

불교는 내면적인 자기 관찰을 통해서 마음의 문제에 접근해가는 방법을 위주로 하지만 서양의 심리학 및 정신의학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서의 심리현상을 밝혀나가는 접근법을 중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 길의 궁극적인 길은 무엇일까요? 불교는 수행을 통해 우리를 산만한 생각에서 해방시켜주고, 현재 이 순간에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더욱더 잘 알게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이고 어떻게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직관을 부여합니다.

수행은 뇌의 정신 생리를 변화시킵니다. 현대 뇌과학의 연구성과들은 그 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랜 수행은 자기 훈련과 마음챙김을 더욱 발달시켜 서서히 자아중심적인 문제들을 드러하게 합니다. 수행을 더욱 집중적으로 할 때 스트레스 반응이 야기되면 뇌의 정서적 본능적 반응 등에서 큰 요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우리는 선정과 참선이 주는 행복을 현대과학을 통해 조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영역에 자양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뇌과학에서는 뇌부위마다 각각 일정한 능력을 담당하고 있지만, 수행을 통한 뇌의 기능을 확대하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행으로 대뇌의 감각피질을 확장할 수 있고, 시각피질이 손상되었어도 청각피질의 일부를 시각 쪽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측두엽의 언어영역을 활성화하여 어린이 난독증을 고쳤다거나, 명상과 수행을 통해 강박증 우울증등 정신장애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은 불교와 뇌과학의 미래에 무한가능성을 느끼게 합니다.

이성동 박사는 … 정신과 전문의, 명일 M의원 원장으로 신경과학과 불교의 만남, 마음과 뇌의 연관성 등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번역서로는 〈육체의 문화사〉,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선과 뇌〉, 〈스타벅스로 간 은둔형 외톨이〉,〈달라이라마-마음이 뇌에게 묻다〉,〈정신분열병의 인지 행동 치료〉, 〈정신분열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신분석가 카렌 호나이〉 등이 있다.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개가 온누리에 충만하시고 사중에 제반 불사가 원만 성취되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소승이 진골척추교정법을 창시하신 임상만 원장님과 인연이 된것은 얼마 안되지만 원장님에 탁월하신 진골척추교정법을 친견하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지 못하였습니다. 암환자, 고질적인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찾아와 척추교정을 받고 편안하고 즐겁게 웃고가는 것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웠습니다. 손으로 경추, 흉추, 요추, 천추을 보고 만지며 진단하여 교정하는 시간은 3~5분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과장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하여 소승도 허리, 목, 등, 전립선 등이 불편하여 교정을 받았습니다. 편하고 시원하였습니다. 정좌를 해도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감히 제반스님들께 추천합니다. 법체가 불편하신 법우님들과 불자님들께 권하오닌 진골척추 교정법과 인연지어 불사원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해동사 영도 동인 합장

‘재물을 잃는 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세상만사 인생을 살다가 보면 피치못해 건강이 악화되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못할때가 많은데요, 건강은 인간 최고의 복이요 양식이라고 불릴만큼 중요하기에 어떠한 질병이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소승도 10여년간 항시 등쪽과 오른쪽 허리가 뻐근하고 시큰 거려서 좋다는 운동법은 다해 봤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도반스님이 MBN의 천기누설과 방송을 한번 보라하기에 방송를 보다가 임상만 소장님의 진골척추교정법을 보면서 모든 질병과 만성병은 틀어진 척추와 골반에서 병이 온다는 임소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직접 진골척추교정법 교육을 3회정도 받고 보니 허리와 등짝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몸소 체험한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무수한 질병을 와하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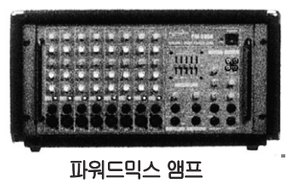
30여년의 노력과 열정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진골척추교정법을 완성시킨 임상만 소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내가족, 진적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들을 완화시킬수 있는 것은 진골척추교정법 밖에 없는는 확신을 하면서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이 익히고 배워서 고통과 질병없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계룡산에서 도림 합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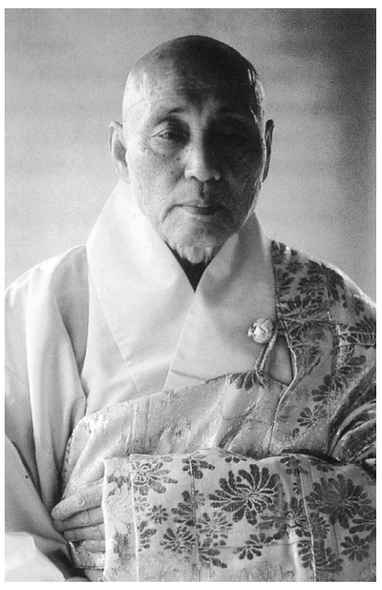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자운 스님 기념세미나 열린다

탄신100주년 기념사업회, 4월 24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한국불교 율맥 살린 행적
근 · 현대 계율수행 폭 넓게 조명

근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율사인 자운 스님의 탄신 100주년과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자운대율사 탄신100주년 기념사업회'(대표 세민, 원로의원)는 4월 12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원로의원 인환 스님이 '문수보살과 자운대율사'라는 주제의 기조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前 동국대 교수 법혜 스님의 '율풍 진작을 통한 한국불교 중흥의 행적', △허흥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대승보살계 홍포와 무생계첩의 재흥', △前해인사승가대학장 법진 스님의 '유교법회 정신의 계승과 봉암사 결사 · 해인총림 도량에서의 역할', △前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의 '선정율 일치의 수행문을 열다' △前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의 '참법 수행과 예참 의례의 유통', △前해인총림율원장 혜능 스님의 '삼밀을 엄정히 수행한 문수행자' 등이 발표된다.

기념사업회 대표 세민 스님은 "자운 스님은 한국불교의 율맥을 이어 받아 근세 한국불교 율풍을 크게 진작한 종단의 큰 스승"이라며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에 종단의 고승대덕과 사부대중께서 관심을 갖고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자운 성우(慈雲 盛祐) 스님은?

자비도량참법 등 참회계풍 펼쳐
범망경 등 번역 · 율풍 진작

1911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난 자운 스님은 재주가 남달리 뛰어나 7살 때부터 진부서당에서 ≪동몽선습≫을 배우기 시작하여 15살에 사서삼경을 모두 익혔다고 한다.

어느 날 오대산에서 고향 마을에 탁발(托鉢) 나온 혜운(慧雲) 스님에게서 '백년삼만육천일(百年三萬六千日)이 불급승가 반일한(不及僧家半日閒)'이라는 순치(順治) 황제의 출가시(出家詩) 한 구절을 들어 출가 발심한다. 1927년 1월 자운 스님은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각에서 3000배 후 혜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32년 동래 범어사 승가대학 대교과(大教科)를 졸업하고 울진 불영사(佛影寺)에서 3년 결사에 임한다. 1938년 용성 스님에게 입실해 법통을 전해 받고 제자가 됐다. 자운 스님은 청담(淸潭) · 성철(性撤) 스님 등과 함께 문경 봉암사에 특별 수도도량을 설립하고 한국불교의 중흥을 서원하며 3년 결사에 임한다.

자운 스님은 또 불교전통을 중흥하려는 원을 세워 오대산 적멸보궁(寂滅寶宮)에서 1939년 4월 15일부터 일백일간 문수(文殊)기도로 철야정진했다.

이후 감로계단(甘露戒壇)을 설치하여 율문을 강설하는 한편, 출가자의 수행이나 재가자의 신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자기 성찰'이 앞서야 한다는 〈자비도량참법〉을 간행해 참회정진 수행을 권장하고 토착화시켰다.

또한 한문본 〈법망경〉(法網經), 사미율의(沙彌律儀), 사미니율의(沙彌尼律儀), 비구계본(比丘戒本), 비구니계본(比丘尼戒本) 등을 번역하고 5만여 권을 간행해 계율 체계가 자리잡는데 크게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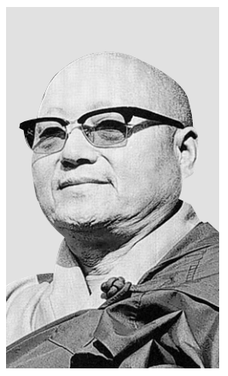
1955년 합천 해인사 주지, 1956년 재단법인 해인학원 이사장에 이어 1957년 조계종 중앙감찰원장을 역임했으며 1960년 5월에는 스리랑카에서 열린 세계불교승가연합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또한 1967년 부산 동래 범어사 주지를 비롯해 1975년 조계종 규정원장, 1976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1975년 3월 조계종 원로(元老)에 추대됐으며, 1977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1979년 동국역경원장,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조계종 단일계단(單一戒壇) 전계대화상(傳戒大和尙)을 역임했다.

1948년부터 1990년까지 자운 스님에게 수계받은 제자들은 10만명에 달한다. 자운 스님은 평생을 오후불식하며 한국불교의 기강 확립과 승풍 진작에 앞장섰다.

자운 스님은 1992년 2월 7일 해인사에서 '眞性圓明 本無生滅 木馬夜鳴 西方日出(진성원명 본무생멸 목마야명 서방일출)'이라는 임종게(臨終偈)를 남기고 입적했다. 저서로는 〈보살현감 菩薩玄鑒〉 · 〈제경정화 諸經精華〉 · 〈정토법요 淨土法要〉 · 〈연종보감 蓮宗寶鑑〉 · 〈수계의식 受戒儀式〉 등이 있다.

한국불교학회, 탄허 사상 학술대회

4월 26일 '인재양성과 교육이념 시대 정신' 주제로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4월 26일 오후 12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탄허 대종사의 인재양성과 교육이념의 시대정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학회는 월정사와 함께 2012년에도 '오대산 화엄의 특징과 탄허의 원융사상'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前교육원장 무비 스님이 '탄허 대종상의 사상과 가르침'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1부에서는 △동국대 교수 자현 스님이 '탄허 스님의 미래인식과 현대사회의 다양성' △윤선태 동국대 교수의 '탄허 스님의 인재양성과 교화활동'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가 '탄허 스님의 교육이념과 그 정신'을 △이원석 동국대 문화학술원 교수가 '탄허의 구도 민족의식 성장과 출가의 궤적'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탄허의 경전번역과 강원교육에 끼친 영향'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탄허의 주역선해와 노장번역' 등이 발표된다.

이 밖에 원로의원 현해 스님(월정사 회주), 탄허문화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등의 축사와 회고 등도 진행된다.

탄허 스님은 1913년 독립운동가 김홍규 선생의 아들로 태어나 20세까지 유학을 공부했다. 17세에 결혼해 아들을 두고 있었지만 1934년 22살에 오대산에서 한암스님을 은사로 만나 출가했다. 유불선 사상에 두루 통달했던 탄허 스님은 1955년 월정사 조실로 추대됐으며 1956년 오대산 수도원을 설치하고 교육결사를 일으킨다. 스님의 강의에는 함석헌 선생부터 양주동 박사에 이르기까지 쟁쟁한 사상가와 학자들이 포함돼 있었다.

1961년부터 10년에 걸쳐 〈화엄경〉 80권을 집필했는데 탄허 스님이 번역 · 주석해 집필한 원고지는 6만 2500여 장을 헤아렸다. 탄허 스님은 1983년 법랍 49세로 월정사 방산굴에서 입적했다.

노덕현 기자

"승려, 조선시대 천민 아닌 특수계층"

손성필 고전번역원 연구원, 보조사상연구원 세미나서 주장

조선초기 법제적 관료층
조선후기 문인 · 학자 역할
관부문서에도 고승 따로 분류



조선시대 천민 계층으로 평가 받았던 승려계층이 특수계층이었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이 3월 16일 서울 법련사에서 개최한 제102차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손성필 고전번역원 연구원〈사진〉은 '조선시대 승려 천인신분설의 재검토 - 법전(法典)분석을 중심으로' 발표를 통해 "조선시대 승려는 단일 신분층이 아니라 복합적 특수계층"이라고 주장했다.

손 연구원은 이날 "조선시대 법전 및 실록, 호적 등을 살펴보면 승려가 천민으로 천시받았다는 승려천인설의 근거가 없다"며 "승려들은 단일 신분층이 아니라 하층에서 상층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분층이 포함된 복합적 특수계층으로 시기에 따라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조선 초기 승려체제가 법제적 관료층이며 도첩승은 합법적 면역층이었음을 예로 들었다. 또 조선 후기 승려 일부는 체계적인 강학, 시문 교유, 문집 편찬 등을 통해 학자들과 교우를 나눴음을 들었다.

손성필 연구원은 승려천인설이 조선시대 이후 팽배한 이유에 대해 일제 강점기 연구가 조선시대 승려 지위를 팔천의 하나로 본 점과 상대적으로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연구가 적었음을 들었다.

손 연구원은 "호적 등에서 승려 위상의 하락 경향이 드러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 본격화 된다"며 "식민통치 과정에서 조선불교의 사회적 무능론 차원에서 포교권 국가탈취설(布教權國家奪取說), 승려무지설(僧侶無知說), 무종파설(無宗派說) ,부녀자서민신앙설(婦女子庶民信仰說) 등이 대두됐다"며 비판적 재검토를 말했다.

손 연구원은 조선초기 사료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관찬사서, 법전, 호적, 불교저술, 간행불전, 승려문집, 고승비 등을 재조명해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구를 전반적으로 재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종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는 17세기 중반인 조선 효종대 작성된 관부 문서를 토대로 당시의 불교정책을 고찰했다.

이종수 교수는 '1652년 관부문서(官府文書)를 통해 본 효종대 불교정책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관부에서 고승류, 선승류(善僧類) 등 귀감이 되는 승려 계층과 아닌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조선후기 중국 불서(佛書)의 유입과 사상적 영향'을 통해 조선 중후기에 승려문집, 불서, 진언집, 의례작법 서책, 승려 교육, 사기 저술 등 불서간행과 교학연구가 활발히 진행됐지만 이후 이를 계승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인도철학회, '苦와 해탈' 학술대회

인도철학회(회장 이지수)는 4월 12일 오전 10시 '고와 해탈'을 주제로 서울대 신양관 국제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학술대회에는 박찬국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소장과 이지수 인도철학회 회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김재성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교수의 '초기 및 테라와다 불교의 고와 해탈' △백도수 금강대 교수의 '초기불전에 나타난 고의 내용과 해탈관계에 대한 고찰 △안환기 서울대 교수의 '세속의 눈으로 궁극의 경지 비추기 - 유식 불교에 나타난 '상징'과 '비유'의 역할을 중심으로' △심준보 원광대 교수의 '쉬바파 일원론의 자아론 연구' △정성준 동국대 교수의 '생사에 대한 불교 딴뜨리즘의 과제' △김재권 동국대 교수의 '입무상방편상의 구조와 그 사상적 의의'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독립연구단 1주년 세미나…주제 '분류'

고등과학원 초학제독립연구단(단장 박창범)은 4월 18~19일 서울 고등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독립연구단 창단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상환 독립연구단 연구책임자의 '초학제 연구 - 분류, 상상, 창조' △이태수 인제대 석좌교수의 '인도유럽어의 언어구조와 서양적 분류방식의 상관성' △심경호 고려대 교수의 '한문과 한글의 언어적 구조와 동아시아적 분류방식의 상관성'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의 '불교의 인과론과 분류' △김준성 명지대 교수의 '확률인과론과 분류'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의 '분류, 그리고 통합의 방법론을 위하여' △장석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의 '한국적 근대성과 분류의 문제' △김홍중 서울대 교수의 '한국 현대사회와 분화의 문제' △이용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의 '동아시아적 분류법과 '雜'의 상상력'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익산 미륵사지 석탑 6월 복원공사 착공

2016년까지 기존 형태 복원 계획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며 동양최대규모를 자랑하는 국보 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오는 6월부터 복원공사에 들어간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1998년부터 12년 동안 해체작업과 학술조사가 진행돼 왔던 국보 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 국제 학술회의 등을 거쳐 기본윤곽이 확정됐고, 오는 6월에 착공해 2016년까지 복원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복원계획에 따르면 미륵사지 석탑은 6층 석탑의 기본 윤곽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약간의 변화가 예상된다.

6층까지 부분적으로 복원하는 서석탑은 기초보강과 기단부 1층에 대해서는 빠르면 오는 12월까지 훼손부재 보존처리 등을 실시하고, 2층까지는 4면으로 복원하고 3~6층은 해체직전의 원형으로 복원한다.

1층 하단부에 있던 석축을 일부 걷어내고, 2층의 훼손된 석탑 부분은 새로운 돌을 활용해 4면 전체를 복원할 계획이다. 또 3층에서 6층까지의 석탑은 기존 형태와 유사하게 복원하면서 훼손돼 콘크리트로 땜질 했던 부분을 1층 하단부에서 걷어낸 돌을 활용해 복원시킬 방침이다.

노기환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학예사는

기단부 1층 12월까지 보존처리

2층 4면 전체 복원

3층~6층 기존돌 활용 방침

"미륵사지 석탑은 원래 9층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고 높이는 석주 부분만 25m에 달하며 신라의 다보탑 · 석가탑보다 100년이 앞서고 목탑 건축 양식으로 쌓은 유일한 석탑으로도 유명하다"며 "미륵사지의 기본 이미지를 지켜가는 것을





현재훼손된 미륵사지 서석탑 3D조감도 및 복원 조감도.

기초로 2016년까지 복원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미륵사에는 639년 창건 당시 1338만 4699㎡ 면적에 3개씩의 금당(金堂) 건물과 탑, 그리고 그 주변에 회랑이 있었다.

중앙부에 중원 건물과 목탑, 서쪽에 서원 건물과 서석탑, 동쪽에 동원 건물과 동석탑이 일렬로 서있고 현존하는 미륵사지 석탑은 서석탑이다.

2009년 1월 해체 과정에서 진신사리와 순금 사리장엄, 창건연대와 창건주를 기록한 사리봉안기, 백제의 유리세공 수준을 잘 보여주는 유리제품, 구슬, 칼, 금전(金錢), 관식(冠飾) 등 공양물로 쓰였던 500여 점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광 스님, 강원 후원금 전달

"불교의 후학들을 위한 기부는 종단의 미래를 위한 불교인의 작은 실천입니다"

강원과 율원의 학인스님들을 위한 기부가 진행되어 지역불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은 3월 20일 순천 송광사 교구종회에 참석해 송광사 강원과 율원에 후원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기부금은 연광 스님이 후원을 위해 틈틈이 모아둔 금액으로, 강원과 율원에서 어렵게 학업에 정진중인 스님들과 학사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연광 스님은 "종단의 미래를 짊어질 후학들이 좋은 여건에서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후원금의 의미를 말했다.

이날 송광사 교구종회는 2013년 1/4분지 주지 품신현황과 사찰등록현황, 교역직 · 재가자 인사, 보조금 사용내역, 교



구내 불사 현황 관리 시행안내, 2013년 주요행사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한편 송광사는 지난 14일 경내 사자루에서 '송광사 불일학당' 제1기 입학식을 갖고 첫 학기를 시작했다. 모두 12주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불일학당은 주 1회 2시간씩 △불교문화 △불교란 무엇인가? △한국불교사 △송광사의 이해 △불자의 신앙과 수행 △현장학습 △템플스테이 △수계식 등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어르신들과 함께 배우고 놀아요"

전주서원노인복지관, 11월까지 방과후 어린이 교실 운영



전주서원노인복지관 어린이교실에서 할머니와 아이들이 밝게 웃고 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할머니 종이가면 만들어 주세요"

어린아이들의 재롱과 웃음소리로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이 웃음과 활기로 가득찼다.

전주서원노인복지관(관장 보연)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방과후 어린이 교실을 운영한다.

서원복지관내의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방과후 교실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동화구연,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생활한자 배우기, 종이접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교 후 복지관에 들러 어르신들과 재미있는 종이접기 놀이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들으며 자연스럽게 생활예절도 어르신들로부터 배울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교대부속초교 윤수민 양의 어머니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학원에 보내 아이들을 구속하고 싶지는 않다"며 "어르신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예절도 배우고 어르신들도 아이들을 귀여워하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도서관담당 박경덕 선생님은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더 반겨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관장 보연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 세대간 계층간 벽을 허물고 함께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돼야"

문빈정사, 한반도 위기 해소 위한 문화공연 개최



자주통일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선 스님(우측)과 최명진 목사

광주전남지역 예술인과 불교단체가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 해소를 위한 예술 난장을 펼쳤다.

광주 문빈정사(주지 법선)는 3월 16일 무등산 입구 사찰 앞마당에서 놀이패 신명과 함께 '불어라 평화바람'이란 주제로 문화공연과 이야기 나눔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반도에 고조되는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협정을 체결을 촉구하는 지역 시민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했다.

법선 스님은 이야기 나눔에서 "분단된 한반도에 자주통일을 이야기 하지 않는 진보와 보수는 존재할 수 없다"며, "전쟁이 없는 평화와 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진 목사의 진행된 이날 행사는 얼쑤그룹의 타악공연을 시작으로, 우물안의 개구리, 민족문화작가회의 평화시 낭송, 사자춤놀이 공연이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은 한반도의 평화협정체결과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최근 한반도의 위기해소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13일 광주YMCA에서 '전쟁 위기 해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광주평화선언'과 평화엽서쓰기, 온라인 평화물결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15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16일 문빈정사 앞 마당에서 문화예술공연을 열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회관, 출가에서 열반까지 특별정진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원감 보륭)는 불기 2557년 출가열반 정진기간을 맞아 3월 19~26일 8일간 4층 큰 법당에서 특별정진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출가의 의미와 진리가 하나된 열반의 큰 뜻을 되새기고 올바른 신행활동과 참되고 진실된 수행을 통하여 참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된 이번 특별 정진법회는 5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되새겼다.

정진 법회는 매일 자비도량 참법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돌아보고 나를 깨치는 108배, 신묘장구대다라니 봉독, 참선 등이 진행됐다.

보륭 스님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출가의 큰 뜻과 열반의 정신을 되새기고 올바른 신행생활을 통해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각종 제 2기 임원진 선출 및 임명식

선각종의 미래 행정을 담당할 제2기 임원진이 선출됐다.

대한불교 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3월 22일 광주 수자타에서 각 부처 원장 및 간부임명식을 봉행했다.

이날 임명식에서 원로의원에 동명 스님, 자공 스님, 혜운 스님, 혜원 스님, 법혜 스님, 정각 스님, 선지 스님, 선오 스님, 각림 스님이 위촉됐으며, 종책연구실장에 현암 스님이 임명됐다.

이어 중앙종회의장에 거산 스님, 부의장에 보안 스님, 승정원장 진환 스님, 중앙포교원장 벽해 스님, 중앙교육원장 혜명 스님, 법계고시원장 진원 스님, 국제불교문화원장 혜룡 스님, 사정원장 진하 스님, 호법원장 혜광 스님, 보건복지원장 혜관 스님, 교정교화원장 선오 스님, 문화예술원장 목언 스님, 환경원장 정각 스님, 사회복지원장 원주 스님, 국제불교포교원장 혜수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선각종 임원들이 종단 발전을 서원하고 있다.

또 각 지역교구원장과 총무원 각 부장이 이날 임명장을 받고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선각종이 한국의 대표적 종단이 될 수 있도록 종도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한불교총화종

害宗 行爲者 摭奪度牒 公告

(해종 행위자 체탈도첩 공고)

⑴ 부산 천불정사

속명 : 조성부 법명 : 고담 법호 : 수일

상기자는 본종 종헌 종법에 의하여 2013년 3월 15일 오전 11시 수진사 관음전에서 제 73차 중앙정기종회에서 다음과 같이 議決하였음을 공고함.

- 다 음 -

① 서울 종로소재 총무원 건물 보수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② 상벌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 상정에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상기자와 아래 동참 동행한 자 또한 같은 징계에 처하기로 決議하였음.

▣ 서울(약사사, 불무사) 박근성(현오)

▣ 서울(보광사) 엄동일(남오)

▣ 강원(보광사 - 타종단) 조동락(민호)

▣ 경북(일광사) 정운환(일광)

③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우리 종단을 와해시키려는 해종행위자들에게 현혹되어 동조치 마시고 더욱 애종하는 마음으로 굳건한 종단이 되도록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2013년 3월 19일

대한불교총화종

상벌위원장 이만오 종회의장 최만재 총무원장 전남정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한국전쟁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첫 행사로 범어사서 수륙재 봉행
틱낫한 스님 초청 등 월별 행사 다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는 부산지역 첫 행사인 '한반도 평화기원 수륙재'를 3월 26일 범어사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3월 21일 한반도평화대회 일정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 장면.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봉행위원장 총무원장 자승스님, 상임운영위원장 수불스님)는 9월 27일 부산 아시아드운동장에서 '한국전쟁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운영위는 부산지역 첫 행사인 '한반도 평화기원 수륙재'를 3월 26일 범어사에서 개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상임운영위원장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범어사는 한국전쟁 당시 임시정부의 국립 현충원 역할을 담당했던 한국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역사적인 장소"라며 "정전 60주년을 맞아 정전에서 종전으로 범국민적인 평화와 상생의 염원을 담아 '위로와 경의', '화해와 상생', '미래와 희망'을 다지기 위해 한반도 평화기원 수륙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부산 범어사는 한국전쟁당시 1950년 8월 18일 부산을 임시수도로 정한 이후, 군과 정부가 부산 범어사에 '순국 전몰장병 영현안치소'를 설치했으며, 1952년 6월6일 정부 주관으로 이승만대통령과 외교사절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산 스님이 법주가 되어 '전국군경합동위령제'를 봉행한 곳이다.

3월 26일 부산 범어사 대웅전 마당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기원 수륙재'는 1952년 6월6일 당시를 회상하고 재현하는 의미에서 전몰장병유족회와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외 부산지방보훈청, 해군작전사령관 관계자 등 각계의 주요 인사들과 5,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전몰장병유족회 대표의 발원문과 세계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수륙재란 국가를 위해 희생된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불교의 재례 행사로 범어사에서도 40년 이내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다.

대회 운영위는 이번 행사를 위해 범어사의 대형 행사시만 등장하는 대형 괘불과 만장 2,000기, 특별히 제작된 초대형 위패 등이 장엄됐다.

대회운영위는 오는 9월 부산 아시아드 운동장에서 개최될 대규모 한반도평화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3월26일 평화기원 수륙재 이후에도 4월 한국전쟁 참전국 대사 리셉션, 한반도 평화 및 남북통일기원 대법회(양산실내체육관), 5월 틱낫한 스님 초청 평화법회(범어사), 6월 청소년·어린이 세계평화 사생대회, 교리경시대회 및 한반대 평화대회 동영상 공모, 6·25전사자 위령법회, 7월 한반도평화세미나, 8월 평화의 빛 거리 조성(서울, 부산) 행사 등을 월별로 진행한다.

대회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문의는 한반도평화대회 공식홈페이지 www.budpeace.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예술 활동 지원하는 불교 될 터"

문화법인체 행복한나눔 창립법회

부산전법도량(회장 원허스님)은 문화법인체 사단법인 행복한나눔 창립법회를 개최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행복한 나눔(이사장 원허스님)은 3월18일 부산 연산동 혜원정사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사장 원허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스님, 조계종부산불교연합회장 수진스님 등 시민불자 300여명이 함께 축하했다.

초대이사장을 맡은 혜원정사 주지 원허스님은 "문화적 체험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문화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체험과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창의성이 존중되는 문화 예술 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힌 후, "문화적 소통을 통한 참여, 나눔, 봉사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문화공동체로 자리 매김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부산불교연합회장 수진스님은 "이제 부산전법도량이 만든 '행복한나눔'이 부산불교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며 "이제 문화예술을 방편으로 차별과 갈등, 분별과 다름을 해소해야 할 시대"라고 강조했다.

'행복한 나눔'의 초대이사진은 이사장 원허 스님을 비롯해서 상임이사에 목종 스님, 이사에 심산·정산·혜성·만초·지각·하림·정법·일철 스님, 감사는 의정·도영 스님이 각각 맡았다.



화승그룹 고영립 회장이 통도사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화승그룹 고영립 회장 통도사 신도회장

3월 19일 설법전서 이·취임식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고영립 화승그룹 회장〈사진〉이 영축총림 통도사 신도회장으로 취임했다. 통도사(주지 원산 스님)는 3월 19일 설법전에서 전정도 전 신도회장의 이임과 더불어 고영립 화승그룹 회장의 신도회장 취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태흥전 주지 스님, 경상남도 조진례 정무부지사, 임오경 경남도의회 의장, 박수곤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시민불자 1,500여명이 함께했다.

향후 2년간 신도회를 맡게 된 고영립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봉사가 곧 수행이라는 자세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영립 회장은 1976년 화승그룹 공채 1기로 입사, 30여 년 만에 전문경영인으로 그룹 회장까지 오르며 샐러리맨 신화를 만든 인물이다. 무엇보다 'IMF 사태'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화승그룹을 26개 계열사를 갖춘 글로벌 중견그룹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뚝심과 승부사 기질로 더 유명하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해수관세음보살 점안법회

3월 17일…미타선원서

부산 미타선원이 3월 17일 용두산 해수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중앙종회 전의장 지하 스님, 조계종부산불교연합회장 수진 스님 등 시민불자 500여명이 함께했다.

주지 하림 스님은 "원만하게 불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산미타선원은 시내중심가인 광복동에 위치한 도심사찰로 행복선수행학교를 통해 참선의 대중화를 펼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 수행전법도량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사찰은 절대금연구역

요즘 담뱃값 인상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담뱃값을 올리면 담배를 덜 피우게 될 것이라는 측과 담배를 덜 피우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소비자를 볼모로 잡는 좋지 않은 짓이라는 측의 의견이 팽팽하다.

담배가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각종 암이나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게 만드는 좋지 않은 작용을 한다는 것쯤은 각종 매스컴이나 입소문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담배로 인해서 6.5초 간격으로 사람이 사망한다고 한다.

어린 시절 담배피우는 아버지의 모습이 멋있어 보여 아버지 담배를 몰래 꺼내려다 들켜서 호되게 야단맞았던 기억은 얼핏 낭만적인 추억거리로 떠오르기는 하지만 그때는 담배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때였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담배피우는 사람들의 천국이라고 얘기했던 때가 있었다. 남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담배를 피워댈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좁은 비행기나 고속버스 안, 밀폐된 영화관, 심지어는 갓난아기가 태어나는 병원 복도에서도 담배를 피웠으니 말이다.

언제부턴가 담배의 해악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담배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담배로 인해서 세상을 버린 연예인 이모씨가 담배를 피우면 자기처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절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가슴 철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저런 일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었으나,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형편이다.

사찰이 청정구역이라는 것은 산수가 수려하고, 맑은 공기가 있어서가 아니다. 사부대중이 모여서 수행하고, 정진하는 모습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어떠한 오염원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청정환경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삼보를 공경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불자들이나 하는 짓일 것이다.

최근에 여러 사찰에서 불자들이 앉아서 쉬고 명상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면서 이러한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목격되곤 한다. 휴게공간은 사찰의 청규(淸規)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사찰경내는 어느 곳이든 부처님의 향기가 머무르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찰이야말로 엄격하게 흡연이 규제되어야 할 절대금연구역인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쉼터에서 발견되는 담배꽁초는 흡연의 증거이다. 서울 ㅂ사찰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부처님이 계신다



강원도 영월군 사자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법흥사는 신라 선덕여왕 12년 자장 스님이 당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흥녕사로 창건했다. 자장 스님은 진신사리의 정확한 위치를 남기지 않았다. 각자 마음으로 찾아야만 한다. 법흥사에 가면 마음으로 만 볼 수 있는 부처님이 계신다.

적멸보궁 3 - 영월 법흥사(法興寺)

"내 차라리 계(戒)를 지키며 하루를 살지언정 계를 깨뜨리고 백년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 율사 자장. 신라 조정의 재상 자리를 마다하고 산으로 들어가 정진하던 어느 날,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과일을 물고 날아와 공양하고, 천인(天人)이 다가와 5계를 주는 꿈을 꾼다. 그리고 636년(선덕여왕 5) 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오른다. 청량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부처님 진신사리 100과와 가사 1벌을 받아 돌아온 스님은 모시고 온 부처님 진신 사리를 오대산 상원사, 태백산 정암사, 영축산 통도사, 설악산 봉정암에 모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 영월 사자산에 모신다. 법흥사다.

법흥사에 가면

일주문을 지나 원음루 앞에 서면 불어오는 산바람이 나그네의 고개를 들춘다. 고개를 들어 바람의 뒤를 따라 가면 사자산이 병풍처럼 둘러있다. 산인 듯 마당인 듯 높지 않은 봉우리 위로 내려앉은 하늘은 분명 지나왔으나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하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하늘 어딘가로 날아간 시선은 아무런 기억도 찾지 못하고 돌아온다. 그 옛날 자장이란 조사도 저 산과 산위로 내려앉은 하늘을 보았으리. 그리고 그 하늘 속에서 기억할 수 없는 하늘의 이름을 찾았으리. 하늘 어딘가에서 기억할 수 없는 기억을 찾았으리. 조사의 아득한 시절과 지금의 시절이 닮았음은 기억할 수 없는 억겁의 기억들 때문일 것이다.

원음루를 지나면 사자산문을 열었던 징효 스님(826~900)의 부도가 보인다. 작은 언덕을 바라보며 서있는 스님의 부도가 도량의 분명한 어제를 설명한다. 징효 스님은 신라 말의 선승 도윤 스님의 제자이고, 도윤 스님은 중국 선종의 중흥조인 마조도일 선사로부터 선(禪)을 전수받은 스님이다. 825년에 당으로 건너간 도윤 스님은 남전보원 스님으로부터 "내 종의 법인이 동국으로 가는구나!"라는 말을 듣는다. 847년 당에서 돌아온 도윤 스님은 징효 스님에게 선법을 전한다. 징효 스님은 스승인 도윤 스님이 육조로부터 이어진 남전의 법을 이었고 그 법을 자신이 받았으니 자신은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징효 스님은 16년간 선원에서 정진하여 정각을 이룬 후 886년에 사자산 법흥사에 선문을 개창하니 우리나라 구산선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컸던 사자산문이다. 징효 스님이 산문을 창건한 지 4년만에 전쟁의 여파로 몰락했던 흥녕선원은 징효 스님이 입적한 지 40년이 지나서야 중흥하게 된다. 구산선문이 번창할 때 2천여 명의 수행납자들이 운집하여 수행하던 큰 가람이었다.

조사의 사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부도라면 세월의 사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자연이리라. 부도를 뒤로 하고 오솔길로 접어들면 장송들이 다가온다. 적멸보궁 가는 길이다. 법흥사 적멸보궁은 사자산 연화봉 중턱에 있다. 도량 입구인 원음루에서 약 500m 정도 올라가면 된다. 적멸보궁 뒤에는 자장 스님이 불사리를 봉안하고 수도하던 곳이라 전해지는 토굴과 사리탑이 있다. 하지만 자장 스님이 부처님 진신 사리를 정확히 어디에 모셨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의 적멸보궁에서 바라다 보이는 연화봉 넘어 어딘가에 모셨다고만 전해올 뿐이다. 자장 스님만이 알고 있다. 사리탑 앞에 서서 연화봉을 바라보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법흥사에 가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디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계시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보고도 볼 수 없는 부처님이 아닌, 눈을 감고 더듬으면 찾아낼 수 있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자장 스님이 진신사리의 정확한 위치를 남기지 않은 것은 꼭 부처님을 만나고 가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각자가 찾아낸 부처님을 만나고 가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법흥사에 가면 마음으로 만 볼 수 있는 부처님이 계신다.



적멸보궁 뒤 사리탑과 자장 스님 토굴



법흥사 적멸보궁

법흥사는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사자산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영월 10경의 하나인 법흥사는 신라의 자장율사가 나라의 흥륭과 백성의 편안함을 도모하기 위해 643년 선덕여왕 12년, 643년에 연화봉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흥녕사(興寧寺)로 창건했다. 중국 선종의 중흥조인 마조도일 선사로부터 선(禪)을 전수받았던 신라의 선승 도윤 칠감 국사의 제자 징효 절중 스님이 886년 이곳에 선문을 여니 바로 구산선문 중 하나였던 사자산문(獅子山門)이다.

1902년 대원각 스님에 의해 이름을 법흥사로 고치고 중건했다. 1933년 지금의 자리로 적멸보궁을 이전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흥사 가는길

중앙고속도로 신림IC→신림 삼거리→영월, 주천 방향→무릉 1교→법흥사로 진행하면 된다.

법흥사 진입로 들어서기 전에 만나게 되는 주천(酒泉) 풍경이 볼거리다. 술이 샘솟는 마을이라는 유래를 지닌 주천은 공순원주막에서 출발한 단종 임금의 유배행렬이 지나간 곳이기도 하다. 특히 해질녘의 풍경이 볼거리다. 주천강에서 법흥사 진입로로 이어지면 약 2km 법흥천이 이어진다. 법흥천은 영월군이 선정한 명소 중의 하나로 20여 곳의 펜션과 캠프장(야영)이 있다.

영월=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주변보기

▲ **'영박2일'**

"영월에서 하룻밤 자고 영월에서 이틀간 여행하자!"

법흥사 '영박2일'은 법흥사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지역문화여행 프로그램으로 영월군이 후원하고 법흥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차담, 108배, 예불, 좌선, 발우공양 만다라만들기 등 법흥사 템플스테이를 체험 하고 난 뒤 호야지리박물관, 괘연재도자미술관, 선돌, 선암마을(한반도지형), 장릉(청령포), 별마로천문대 등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의:법흥사 포교국 (033)375-9173

〈사찰〉

▲**보덕사** / 영월군 영월읍 영흥12리 1110

보덕사는 영월의 주산인 발산(발산)의 서쪽 기슭에 있는 옛 절로, 신라 문무왕 8년(668)에 의상조사가 지덕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한 뒤, 1457년 노릉사로 개칭되었다 1726년 보덕사로 바뀌었다.

〈가볼 만한 곳〉

▲**선암마을(한반도지형)**/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산180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5호인 한반도 지형(선암마을)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땅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으로 서강변에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 지형 전체를 조망하려면 한반도지형 전망대까지 가야 한다. 한반도지형 전망대 주차장에서 시작되는 왕복 1.6km의 탐방로 끝에 있는데 가족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길이다.

▲**무능리 마애여래좌상** /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산139

주천에서 법흥사로 오다보면 수주면 호야지리 박물관 뒤쪽 미륵암 뒷산 바위 한 면에 음각으로 새겨 놓은 마애불좌상이 있다. 조선시대 서예의 대가이고 정치가인 봉래 양사언이 평창군수 시절 이곳을 자주 찾아와 바위에



'요선암'이라 새긴 글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시인 묵객의 이상향 무릉도원이 발 아래 있으며 흥녕사에 주석하던 징효 국사가 이곳에 암자를 짓고 기거했다고 전해 온다.

▲**별마로천문대** /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10

별과 정상을 뜻하는 순우리말 '마루'와 고요할 '로'자의 합성어로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이란 뜻의 별마로 천문대는 동강와 서강이 만나는 봉래산 800m 정상에 있다. 국내 시민천문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직경 80cm의 주망원경과 여러 대의 보조망원경이 구비돼 밤하늘의 별자리, 행성, 달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영화 '라디오스타'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호야지리박물관** / 수주면 무릉법흥로 303

36년 간 교단에서 지리를 가르친 호야 양재룡 선생이 지리교육의 열정을 담아 2007년 개관한 국내 유일의 제1종 지리 전문테마 박물관이다. 50여 종의 각종 지구본과 희귀자료 600여 점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특별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숙박〉

-스카이펜션 (033)374-5486
-올리브펜션 (033)374-7789
-솔밭 캠프장 (010)5483-7066

〈식당〉

-풍류관 (033)372-8851~2
곤드레밥, 황태구이, 갈비탕, 꽃등심
-토지(033)372-7266
민물매운탕 소머리국밥 갈비탕
-두메산골(033)372-4777 토종옻닭, 한방백숙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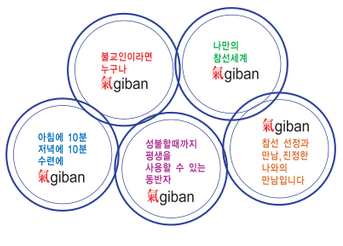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생태사회와 불교

녹색정치를 위한 10대 가치와 자연이용을 위한 원칙

자연이용 개발…공동체 활성화와 상호의존 중요

7세대 이후를 생각하는 녹색정치

생태적 가치는 새로운 세계관이자 사회이념이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정치도 마땅히 과거의 정치철학과는 다르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감을 강조한다. 몇몇 생태학자들은 이제 모든 행위는 '7세대 이후의 지속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7세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고,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남겨둬야 하며, 그들이 생태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사고하고 행동해야한다'고 한다. 이 강령은 이러퀴이 인디안의 위대한 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녹색운동은 생태학과 생태주의, 생태여성주의(에코페미니즘), 평화운동, 무정부주의 자유주의적사회주의, 생태사회주의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분화되어 있고, 또 그러한 이념적 다양성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들이 만든 녹색정치의 시작은 1972년 녹색정당으로 세계최초인 호주의 '태스마니아 연합그룹' 탄생을 필두로, 1972년 5월에는 뉴질랜드에서 밸류스당이 창설된다. 이듬해인 1973년 영국에는 유럽최초의 녹색당인 '생태당'이 탄생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성공적인 곳은 독일의 녹색당이다. 1980년 국민투표서 핵발전소 폐기와 공해 저감을 이슈화 해 큰 지지를 얻었고, 급기야 1983년 연방선거서 하원 27석을 획득하는 찬란한 성공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1972년 처음 세계최초로 호주의 '태스마니아 연합그룹'으로 시작된 녹색정당은 독일에서 완성됐다. 현재는 한국에서도 녹색당이 창당돼〈사진 좌 · 우〉녹색 생채정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녹색정치를 위한 10가지의 가치

독일 녹색당은 초기에 4가지 녹색정치 기둥을 선언했다. 그 첫 번째 중심 기둥은 관계망적 사고, 그물망적 사고의 의미로 '생태주의'를 강조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다. 세 번째는 풀뿌리 민주주의, 네 번째는 비폭력이다. 이것을 시발로 각 나라마다 추가해 대체로 아래의 10가지가 녹색정치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다.

첫 번째는 '생태적 지혜와 세계관'을 선언하고 있다. 생태적 세계관이란 생명과 자연이 서로 촘촘히 연결돼 있으며 이들끼리 서로 의존하고 상관관계를 갖는 관계망적 사고, 그물망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다.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눠 쪼개고 갈라놓는 인식이 바로 오늘날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구분과 분리의 인식이 바로 갈등과 경쟁, 대립을 불러온 뿌리인 것이다. 연결된 세계서 타인의 고통은 곧 돌고 돌아 나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다.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모든 인간 행위가 견지해야할 원칙은 바로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다. 이는 과거 지속불가능한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이란,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과정서 다음 세대가 누려야할 자연에 대한 이용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자연의 다양성과 생명 가치를 존중하고, 지구생태계의 활력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로지 경제성장과 발전만이 유일한 가치로 생각했던 인식을 버리고, 생태적 발전, 사회문화적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가치로 전향을 강제하는 요구다.

세 번째는 '자연과 공생하는 순환적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이다. 인간의 모든 사회적 행위는 인간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상호 공생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인간이 지구행성의 주인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경쟁법칙이 아니라 상호의존과 상호보완이 자연의 중심원리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자연에 겸손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수직적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직선적 세계관서 벗어나 순환하고 윤회하는 세계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것' '적은 것' '천천히 사는 것'을 추구하며 사람끼리 협력적 관계를 높여나가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한다.

네 번째는 '생태 민주주의'이다. 과거의 민주주의는 발전해왔지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인간중심적 대의민주주의는 더 진전되어야 한다. 스위스식 직접민주주의를 과도적으로 목표로 하되,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기서 나아가 자신의 권리를 대변할 능력이 없는 소수집단이나 생태계의 생물종, 미래세대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민주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사회정의와 환경정의의 실현'이다. 생태사회, 녹색사회는 공평성과 분배의 정의, 환경정의,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부자의 이익으로 가난한 사람이 희생되어서는 안되고,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간의 수탈과 착취를 반대하고 형평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추구한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뿐아니라 인종, 민족, 성별, 연령, 세대별 일체의 차별이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 환경정의가 없는 사회정의는 불완전한 것이며, 사회정의가 없는 환경정의는 부도덕한 것이다.

여섯째는 '분권화와 풀뿌리자치 사회의 지향'이다. 오늘날 같이 정치와 경제, 권한과 정보가 중앙집중화된 사회는 생태적 사회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탈집중화된 분권화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민주적 참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책임의지를 더욱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치와 자립, 순환적 사회가 풀뿌리 자치를 기반으로 해야 이뤄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태사회는 로컬푸드나 지산지소운동, 대안에너지, 마을만들기 등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 폐기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조절되며,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사회경제관계를 지향한다.

생태적 가치는 도덕적·윤리적 책임 강조
인간 사회적 행위…상호공생유지 필요
생태적 대안사회는 비폭력 평화 중시
자연이용 개발에는 '순환성' 지켜져야

일곱째는 '비폭력 사회의 구현'이다. 생태적 대안사회는 폭력이 없는 평화사회이다. 폭력적방식으로 비폭력사회가 될 수 없다. 적대와 증오, 비난과 분노는 파괴의 동력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루려는 녹색사회의 미래 가치가 될 수 없다. 폭력은 필연적으로 이분법적 대립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제의 세계는 이분화할 수 없는 세계이다. 이기고 지는 관계를 뛰어넘는 세계로서 녹색사회는 대화와 행동 모든 분야에서 비폭력으로 대응하며 국가폭력을 포함한 일체의 폭력도 단호히 거부한다.

여덟째는 '다양성의 존중'이다. 세계를 선과 악, 둘로 나누는 이분법은 투쟁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분법의 세계에서는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으로 인식하지만 다양성의 세계에서는 그저 나와 '다른 것'으로 인식할 뿐이다. 지구상의 생명은 오랜 역사속에 수천만종으로 진화해왔다. 생물다양성은 곧 자연의 안정성의 원천이자 지구의 생물학적 자산이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적용하여 '다양성'의 인정은 녹색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 이분법적 배타성에 반대하고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주주의를 더욱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아홉째는 '미래에 대한 초점'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치, 사회문화의 목적은 '현세대'였다. 그것도 오로지 '인간'만이 의미를 둔 대상이었다. 공간적으로 가난한 나라와 부자나라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성을 항시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앞으로 7세대의 이익'을 염두 해두는 것이다. 그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나아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문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뿐아니라 미래의 생명도 함께 고려하는 가치로 나아가야 한다.

열 번째는 '전 지구적인 책임감'이다. '지역적으로 사고하고 지구적으로 실천하라'는 말이 단순히 도덕적 권장사항이 아니라 이제 국가단위의 사고, 민족단위의 사고에 한정된 생각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애국이나 민족주의라는 말은 과거 피압박 민족의 독립운동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권장할만 한 덕목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자기 국가의 이익에 한정된 사고를 벗어나는 것, '한국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인식하고 지원하고 돕는 것이다. '지구인'의 관점에서 '한국', '지역'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연을 이용에 대한 가치와 원칙

압축성장 속에 급속히 발전해온 우리나라는 건설과 개발을 중심으로한 토건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곳곳에 수많은 도로가 만들어지고, 터널이 뚫리며, 4대강이 개발되고, 제한된 그린벨트과 국립공원도 해제하고 마구잡이의 난개발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녹색정치에서는 일체의 개발을 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자연을 개발하고 자연을 이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 번째로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분명해 해야한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거나 함부로 조작해서는 안된다. 마땅히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자연에 겸손해야 한다. 또한 모든 생명은 평등하며 인간에게 이용가치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인간은 생명과 자연의 지속성에 책임을 갖는다'는 원칙이다.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로 자연을 파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이유로 인해 인간은 의지를 갖는 존재로서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해야하며, 자연을 풍요롭게 가꾸고 뭇생명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공생사회를 만들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자연을 이용하는데 '순환성과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1) 재생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는 속도는 그 자원이 재생되는 속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2) 재생불가능한 자원을 소비하는 속도와 재생가능한 대체 자원이 도입되는 속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3)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속도가 그 오염물질이 정화되는 속도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네 번째는 '정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자연의 활동과 이용에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결정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수많은 동물과 식물 등 생물학적 약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결정이 되어야 하고, 미래세대의 의사를 고려한 정책결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초기 개발단계부터 반드지 지역주민과 전문가및 단체들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최소이용의 원칙'이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뭇생명의 삶과 생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이용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철저하고 오랜조사를 준비와 조사를 거치되, 최종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만큼의 최소한만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섯째는 '지역공동체 주체의 원칙'이다. 개발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바로 지역공동체이다. 지역을 보존하고 지키는 주체 또한 지역주민들이다.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상호의존도를 높이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치를 녹색화하는 것이고 녹색적 자연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즐거운 병영생활 마음 수련 지침서!

2년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현명할까?

"『군인과 함께하는 청춘 동행』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여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군법당에 『군인과 함께하는 청춘동행』을 보냅시다.
군법당은 모두 143개 입니다.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1법당 300권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 입영통지서를 받고 불안하고 초조한 청춘
- 군 생활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지는 장병
- 군 생활 2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장병
- 장병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싶은 가족, 친구, 연인

고명석 글 | 176쪽 | 9,000원 | 사륙판(125×187mm)



민족사 구입 문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농협 053-02-109450(예금주:윤재승)

세상 끝에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
세상의 끝 히말라야에서 날아온 스님의 편지.

기막히게 아름다운 아침의 꽃이라도
해가 지면 시드나니,
떵리 사람들이여, 당신의 육신에
너무 많은 희망을 걸지 말라.



The Hundred Verses of Advice

파담빠 상게 · 딜고 켄체 린포체 지음, 고수연 옮김 | 256쪽 | 13,000원 | 사륙판

“禪·敎 넘나든 대종사… ‘학승’ 단정은 잘 못”



方山老의 無影樹 〈7〉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현해 스님



현해 스님
동국학원 이사장 역임, 월정사 회주
조계종 원로의원, 탄허 스님 손상좌

매일 자정부터 6시간씩 좌선
한암 스님 편애는 유명
요령 잡고 직접 의식 집전도
당신 책 절대 공짜로 안 줘

–탄허 스님이 영은사 수도원에서 3년간 계시다가 1962년 가을에 월정사로 돌아오셨는데, 탄허 스님은 그때에도 큰스님으로 대접을 받고 대강백으로 이름이 나지 않았습니까. 현해 스님은 그 시절에 탄허 스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가요?

저는 처음에는 탄허 스님에 대한 인식을 좋게 갖질 못했어요. 특히 난 입산 이전 시절인 속가 때에도 불만세력이었어요. 그래서 비판적인 눈으로 탄허 스님을 보니까 탄허 스님의 주위에 별의별 사람들이 붙어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노스님(탄허) 주위에는 항상 협잡꾼, 사기꾼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스님(희찬)을 모함하고 노스님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 같아서 노스님에게는 영 마음이 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탄허 스님을 가까이하지 않았어요.

–입산 초기 시절에는 좋은 인상을 갖지 않았군요?

그래요. 그런데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우리 스님(회찬 스님)이 서울로 날 찾아오셨어요. 그때 탄허 스님은 동국대 대학선원장을 하실 때인데, 우리 스님이 나에게 노스님 시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시봉을 시작해서 딱 8일을 했는데, 그때에 나는 탄허 스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탄허 스님은 밤 여덟아홉 시가 되면 바로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게 노스님이 일찍 주무시는데 나도 같이 누울 수밖에. 그렇지만 탄허 스님은 밤 열두 시가 되면 딱 일어나셔서 좌정을 하시고 참선을 하십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연탄불을 때고 있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탄허 스님은 이불을 뒤집어쓰시고는 그때부터 여섯 시까지 꼼짝을 않고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노장님이 그렇게 앉아 계시니까 나도 할 수 없이 일어나 앉아 있었지요. 그런 생활이 8일 동안 계속이라, 변함이 없이.

대부분 노스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강사다, 학자라고 말을 하지만 선사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활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아, 세상 사람들이 노스님을 잘못 보고 있구나, 겉으로만 보고 실제 내면은 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요즈음 선방의 스님들도 두 시간 이상을 앉아 있지 못합니다. 두 시간 정도 앉았다가 포행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탄허 스님은 열두 시에 일어나서 여섯 시까지 좌정을 해요. 꼼짝 않고, 여섯 시간을 앉아 계시는 거예요.

–탄허 스님은 한암 스님의 법을 이은 법상좌입니다. 한암 스님은 탄허 스님을 어떻게 보았다고 볼 수 있나요?

탄허 스님은 한암 스님의 경학 전통, 강사의 맥을 이어받았지만, 본래는 탄허 스님이 입산하기 전에 한암 스님의 경을 이어받은 스님은 유점사 출신인 박동산 스님이라고 있었답니다. 그 스님이 한암 스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는데 유점사에서 강사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때에 한암 스님이 보시던 경 관련 책을 다 주어 버렸다고 해요. 당신이 사랑하던 제자인 동산 스님이 가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탄허 스님이 한암 스님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무렵에 편지가 3년간이나 오고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상원사로 입산을 하니, 한암 스님께서는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해요. 입산 당시에도 탄허 스님의 한문 실력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상원사에서는 선방에 들어오면 무조건 처음에는 3개월은 공양주를 시켰다고 그래요. 탄허 스님도 처음에는 공양주를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탄허 스님이 밥을 한 1주일을 하는데 밥에 돌이 나오는 거라, 돌밥이 된 것이지요. 그랬더니 한암 스님께서 “택성이 너는 글이나 읽어” 그랬대요. 다른 수좌보다 공양주 기간을 깎아준 것이지요. 이것은 탄허 스님이 범룡 스님에게 말하신 것이에요, 나는 범룡 스님에게 들었어요. 심지어는 탄허 스님 당신이 일부러 돌을 빼지 않고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한암 스님도 탄허 스님은 유학자가 돼서 밥할 줄도 모른다고 하였다고 그래요. 울력을 할 때에도 탄허 스님은 안 나와도 한암 스님이 잔소리를 안 하고 묵인하시는데, 다른 수좌들은 꼭 나와서 울력을 하였답니다. 이런 것은 동화사에 계시던 범룡 스님이 나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어이 나오라고 하시지만, 탄허 스님은 그러지를 않으셨다고 하시면서 한암 스님의 편애가 심해서, 그런 것을 보니까 범룡 스님도 섭섭하더라는 회고를 했어요. 평등성보살이라고 한암 스님을 모시던 보살도 나에게 한암 스님이 탄허 스님을 애지중지하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지 않겠어요? 탄허 스님은 스님이 될 때부터 한문은 좍 하고 나오니, 얼마나 시원하시겠습니까? 한암 스님이 유교, 불교의 경전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철저히 꿰고 있었어요. 또 탄허 스님은 어지간한 문장은 다 줄줄 외우고 있으니, 한암 스님이 반한 것이겠지요.

–탄허 스님의 은사는 한암 스님이십니다. 탄허 스님은 한암 스님의 법을 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나요?

내가 탄허 스님에게서 놀라운 것을 본 일이 있어요. 우리들은 노스님을 유명한 학자, 강백, 선사라고 부르지만 탄허 스님이 의식을 하지 못하고 어두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노스님이 개운사 대원암에 들어가서 화엄경을 만들기 이전에, 이문동에 보문난야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작업을 하셨지요. 그래 개원식을 한다고 해서 나도 갔어요. 갔더니 개원법회를 하는데, 절에서는 그럴 때에 영가천도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그날의 법회에는 우리 스님, 보경스님도 오셨는데 이 스님들은 의식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날은 노스님(탄허) 당신이 직접 요령을 잡고 의식을 하셨어요. 당신 상좌들이 있었지만 직접 하신 것이지요. 난 지금도 의식을 하게 되면 책을 보고 해요. 왜냐하면 의식집에 있는 것을 다 외우지 못하니깐. 그러나 노스님은 책을 보지 않고서 그 자리에서 의식을 하시는데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 음성이며, 요령을 흔드는 것이 그렇게 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지요. 역시 큰스님으로서 다 갖추고 있었구나 하는 점을 새삼 알게 되었지요. 한암 스님에게 법을 받을 만한 분은 다르구나 하는 점을 생각하였어요. 우리들이 노스님에 대해서 강사, 학자로만 생각하였기에 그렇지, 의식을 그렇게 잘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한암 스님은 상원사에서 모든 스님들에게 의식을 가르치셨지요. 그것이 오대산 스님의 특징입니다. 한암 스님은 스님들에게 참선, 경, 의식, 염불, 가람수호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라고, 할 줄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거든요. 옛날 만공 스님의 계열에서는 경과 의식을 부정하였어요. 그러나 한암 스님은 선방을 열면서도 경과 율, 염불, 의식을 가르치셨는데 이런 것이 오대산의 특징이고, 바로 그것을 이어받은 분이 노스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현해 스님은 동국대를 마치고 일본 유학을 다녀온 학승이십니다. 혹시 탄허 스님으로부터 공부 잘하라는 칭찬을 듣거나 도움을 받지는 않았나요?

저는 노스님으로부터 공부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받은 것이 없어요. 탄허 스님은 화엄경을 주로 공부하셨고 난 법화경을 공부해서 그런지, 격려나 지원은 없었어요. 한 번은 노스님이 화엄경을 번역해서 책을 내셨는데, 마침 그때 내가 방학이라 귀국하여 있을 때라 대원암에 찾아가서 일본으로 간다고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 탄허 스님이 여비를 하라고 5만 원을 주셨어요. 탄허 스님으로부터 한 번도 돈을 받은 일이 없었는데 그날은 여비를 주시길래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지요. 그리고 나서는 발간된 화엄경의 책값이 얼마냐고 하니깐 1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갖고 있는 돈에서 5만 원을 꺼내고, 방금 전에 받은 5만 원을 합쳐서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서, “제가 사는 책값입니다” 하고는 “제 책은 우리 스님에게 맡겨 주세요” 하였어요. 탄허 스님, 그 분은 어찌 보면 냉정한 것이지요. 그 책은 10만 원이나 가지만 공부하는 손상좌에게는 그냥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나 탄허 스님은 화엄경 책을 절대로 한 권이라도 그냥 안 줍니다. 보통 스님들은 책을 내면 주위 사람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허 스님은 책을 그냥 주면 책을 안 본다고 하시면서, 책의 가치를 알고 돈을 주고 사야 읽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의문이 나서 그 후에 노스님에게 물어 보아서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나로서는 섭섭하기는 하였지요. 그리고 내가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체의 격려의 말씀이 없었어요. 일본에 가거나, 나오거나 할 때에 가서 인사를 드리면 그저 “잘 왔어, 언제 가” 정도의 말씀 이외에는 일체 말이 없었어요. 다만 일본에 계시는 난암 스님에게 화엄경 한 질을 갖다 주라고 하신 일이 있었지요.



1972년 탄허 스님 환갑 기념 법회 후 찍은 기념사진 우에서 세번째가 현해 스님

–탄허 스님이 하신 수도원 교육에는 엘리트 교육의 성격이 나온다고 보입니다.

탄허 스님의 교육은 보통 교육이 아닙니다. 요새 전교조에서 쓰는 교육 용어로 말하면 평등교육이 아녜요. 엘리트 교육이지요. 노스님은 평소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부처님 한 분이 태어나셔서 만 백성, 중생을 제도하지 않았냐고. 그래 노스님은 몇 사람만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봤어요. 이게 바로 엘리트 교육이지요. 그리고 그때에 스님 주위에는 머리 좋은 사람, 수재들이 많았어요. 스님은 둔한 사람을 싫어하셨어요. 내가 보기에는 노스님은 월정사와 영은사에서 수도원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대산으로 들어오셔서 강원을 열 때까지는 승가 중심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1965년 이후에 동국대 대학선원장을 맡으시고 역경을 위해서 도회지로 나간 이후에는 대중 속으로 나오려는 것이 있었다고 봐요. 아마 그것은 도회지에 지식인, 엘리트가 많았고 그 무렵부터 엘리트 출신들이 노스님을 많이 따른 것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수도원을 하실 때 그때까지는 중심이 출가자 중심이었지만, 서울에 오시면서는 재가자 중심으로 옮기신 것으로 봅니다.

–10. 27 법난 당시 겪은 것을 회고하여 주십시오.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 제가 알던 어떤 큰스님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스님은 저에게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지금이 불교정화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불교정화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탄허 스님을 동국대 총장으로 모시고 자네가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올바른 인재양성을 해서 불교 재건의 길로 나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그 스님에게 “지금 이 전화는 스님의 뜻이 아니지요, 스님 지금 감금되어 있지요” 하니깐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 하면서 말이 우물우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스님에게 저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고려말의 불교가 부패해서 무학대사가 이성계와 결합하여, 권력을 이용해서 불교혁신을 하였지만 그 결과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결국은 훼불로 가지 않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불교가 부패해도 종교 내부에서 스스로 혁신을 해야지, 권력을 업고 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담할 수 없으니, 스님도 거기에서 손을 떼세요” 하였습니다. 그러니깐 그 스님은 “자네 말이 맞아, 알았어” 그랬어요. 그 후에 들어 보니 그 스님이 앰버서 더 호텔 10층에 감금되었다고 하고, 그 스님은 제 말을 듣고는 얼마 후에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불교정화는 종단, 불교 내부에서 자생적,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정화는 결국 실패합니다. 권력은 불교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바로 차버리거든요. 역사적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성공한 정화는 거의 없어요. 다만 아쇼카왕이 행한 것이 유일한 사례이지요. 이것도 아쇼카왕이 불자이었고, 아쇼카왕을 도와준 선지식인 목칼리풋타팃사라는 스님이 있어서 가능하였던 것이지요.

–현해 스님은 탄허 스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난 노스님의 위상, 성격을 요새 용어로 말하면 대종사(大宗師)라고 보지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이었지요. 노스님은 모든 것을 갖춘 어른이었어요. 한암 스님에게서 모든 것을 이어서 받은 큰스님이시지요. 다만 탄허 스님은 유불선을 종합하고 회통한 사상가였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선도(仙道)에서는 한 발자욱을 더 나가셨지요.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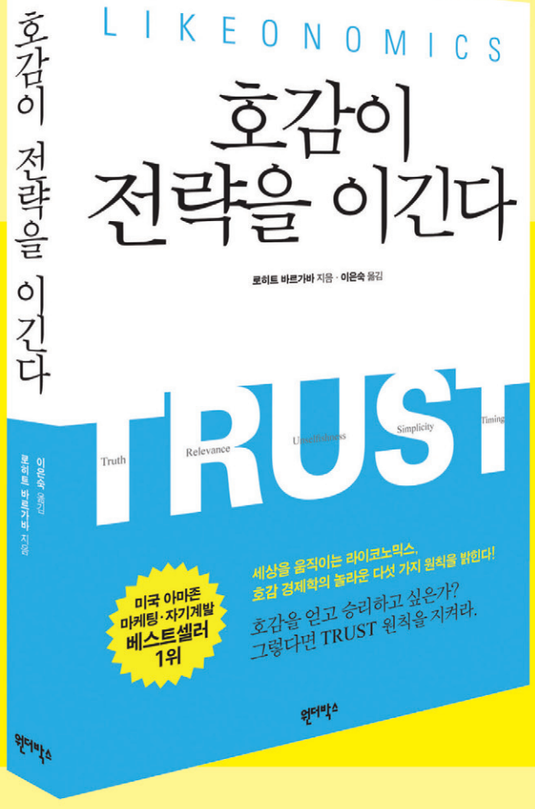
“호감 경제학(likeonomics)은 2012년에 회의실을 뒤흔든 가장 주요한 네 가지 마케팅 용어 중 하나이다.” - ≪마케팅 위크≫

LIKEONOMICS

지금은 ‘호감 경제학’의 시대!

세상을 지배하는 라이코노믹스,
호감 경제학의 놀라운 다섯 가지 원칙이 밝혀진다!

- 조지 부시가 엘 고어를 이기고, 버락 오바마가 롬니를 이겼듯 호감도 높은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기는 진짜 이유는?
- 영화광 스콧 디지아마리노가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76개 지점 가운데 실적이 173위이던 지점을 1년 만에 1위로 탈바꿈시킨 비결은?
- 한 번에 한 사람, 18분이라는 강연 시간이라는 단순화를 통해 큰 성공을 이룬 테드 컨퍼런스의 비결은?
- 바닷속에서 수중 각료 회의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UN 기후 변화 회의에서 강대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낸 몰디브 대통령의 비결은?
- 2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보내 줄리아 로버츠를 영화 〈오션스 일레븐〉에 출연시킨 비결은?
- 무명 배우 출신 TV쇼 진행자였던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시청자와 공유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미국 아마존 마케팅·자기계발
베스트셀러 1위

지혜로운 생각으로 가득한 이 책을 통해 시장에서 좀 더 개방적이고, 다가가기 쉬우며,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성공을 찾아가길 바란다.
- 다니엘 핑크(『드라이브』, 『새로운 미래가 온다』의 저자)

일에서든 인생에서든 성공에 이르는 길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가지 모두 성공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 디팩 초프라(『성공을 부르는 일곱 가지 영적 법칙』의 저자)

로히트 바르가바 지음 | 이은숙 옮김 | 328면 | 값 15,000원

원더박스 Tel. (02)420-3200 Fax. (02)420-340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3층 http://blog.naver.com/wonderbox13

“구함이 없고 집착이 없으면 부처”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12〉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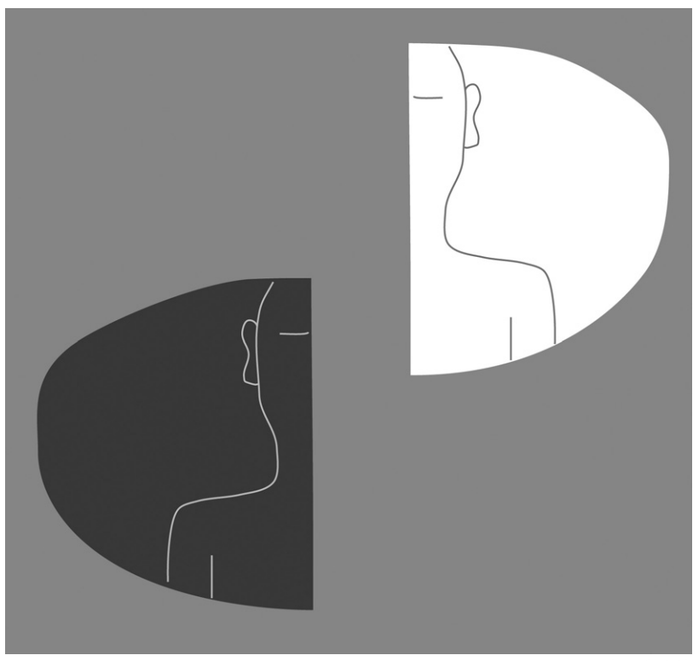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그들은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설법을 듣고 거기에 알음알이를 일으킨다. 혹은 신통이나 상서로운 모양, 언어, 동작 등에 의지하여 보리열반이 있다는 설법을 듣고 삼아승지겁을 수행하여 불도를 이루려고 한다. 이것은 모두 성문의 도(道)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을 성문불(聲聞佛)이라 한다.

성문은 아직 닦아야 할 무엇이 있는 줄 알고 계속 수행의 힘을 빌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노력을 하거나 않거나에 관계없이, 또 굉장한 업을 지녔든 업을 지니지 않았든, 그 본바탕 성품은 둘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업식의 작용에 따라 변한 모습을 이런저런 인연으로 쓸 뿐이다. 이것을 알면 내려놓으면 되는데, 성문은 수행을 통해 업식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래 마음자리를 증득하여 얻은 힘을 통해 세월을 보내면, 그것이 바로 약이다. 그러나 그런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안에 독한 것이 드러나면 억지로 없애려고 든다.

다만 당장에 자기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단박 깨달으면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으며, 한 행도 닦을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위 없는 도[無上道]’이며, 이것이 바로 진여불(眞如佛)이다.

불법의 바다[法海]에서 파도는 천차만별로 온갖 차별된 경계를 이루지만, 그 바탕은 한 번도 차별된 적이 없는 절대 평등의 대원경지(大圓鏡智)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 일어나는 것만을 두려워하면, 곧 도와는 멀어진다. 생각마다 상(相)이 없고, 생각마다 ‘함이 없음[無爲]’이 곧 부처이다.

하루 종일 생각해도 생각한 바가 없는 것이다. 본래 그 자리는 인과(因果)를 초월해서, ‘인’이라 할 것도 없고 ‘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흔적도 없다. 그런 상태에서 홀연히 바람이 일어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시공이 생긴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원인을 짓고 그에 따른 과보를 받는 것을 반복하면서 생사에 출몰한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깨닫고 우리에게 알기 쉽게 드러낸 것이다. 이것이 묘법이다. 묘한 법의 가르침은 다 드러나 있지만, 내가 몰라서 비밀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묘한 것일는지 몰라도, 아는 사람에게는 항상 가지고 쓰고 있어 묘할 것도 없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부처를 이루고자 한다면, 불법을 모조리 배울 것이 아니라 오직 ‘무구(無求)’와 ‘무착(無著)’을 배워야 한다.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 불생불멸(不生不滅)이 곧 부처다.

찾고 구하고 머물고 집착하는 것이 사라지면, 늘 여여부동한 모습이 함께 한다. 구하지 말라는 말은 설명하기도 어렵고 소화하기도 힘든 말이다. 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하면, 무기공(無記空)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되 한 바 없이 한다’ 혹은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는다’고 겨우 표현해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천차만별 경계 보이는 파도
法海의 근본은 절대평등
팔만 사천 법문은 교화 방편
본래 일체의 법이 없다

구하고 머물고 집착하는 것
사라지면 여여부동한 모습
‘하되 함이 없이’ 집착 말라

묘법 몰랐을때 비밀 같으나
알고나면 묘할 것 없다
부처님 법신은 허공과 같아
구름만 일어났다 사라진다

허공이 곧 법신

일체 모든 그림자를 포용할 수 있는 허공을 법신이라고 한다. 법신이란 어떤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천차만별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망라하여 하나의 모습으로 안고 있는 실상을 법신이라고 한다.

팔만사천 법문은 팔만사천 번뇌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다만 대중을 교화 인도하는 방편일 뿐, 본래 일체의 법이 없다.

본래는 한 법도 없지만, 미혹한 사람을 제도하기 위한 장치 수단으로 팔만사천 법문이 나왔다.

여의는 것이 곧 법이요, 여읠 줄 아는 이가 곧 부처다.

하루 종일 일으켰지만, 일으킨 적이 없다. 마치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지만 일으키는 실체를 찾아볼 수 없듯이, 법이란 따로 정해진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 세속적의 법은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은 지키고 말고를 떠난 법이다.

일체 번뇌를 여의기만 하면, 얻을 만한 법이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번뇌를 여의려고 자꾸 애를 쓴다. 본래 법이란 일체 번뇌를 만들기도 하고, 변화시키고 없애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것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 하루 종일 번뇌를 일으켰지만, 한 번도 번뇌를 일으킨 적이 없는 것이다. 허공이 과거의 허공이나 현재의 허공이나 미래의 허공 할 것 없이 한 번도 변화한 적이 없는 것과 같다. 변해진 것이 없는 가운데, 단지 구름이 일어났느니 사라졌느니 하는 이야기만 오고 갈 뿐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깨닫는 비결을 터득하고자 한다면, 단지 마음 위에 한 물건도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다’고 한 비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증명할 수 있는 깨달음이 필요하지, 말을 배우고 이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남다른 지식과 설득력을 지니면 세상 기준에서는 똑똑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만으로는 실상을 봤다고 할 수 없다.

법신이 곧 허공이며 허공이 곧 법신인데도 ‘법신이 허공계에 두루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허공 가운데 법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법신 그대로가 허공이며 허공 그대로 법신임을 모른다.

성성적적(惺惺寂寂) 공적영지(空寂靈知)를 빌려 법신자리를 설명하곤 한다. 모양은 허공과 같지만 허공은 차고 더운 것을 모르는데, 법신은 차면 찬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안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⑥②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반야심경〉

빗나간 예언

예언은 기본적으로 미래전망이다. 미래는 글자 그대로 아직 오지 않은 일이기에, 사실 알아맞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에 목이 말라한다. 그런데 정녕 중요한 것을 하나 잊어버리고 있는 것같다. 맞았다거나 틀렸다거나, 이런 평가에 대한 후일담이 없다. 그저 말해버릴 뿐, 그 뒤의 사후검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문제들 중에서 종교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인간의 지식수준이 높아지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은 합리주의적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대개 20세기 초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았다. 아마도 진화론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던가?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종교 고유의 영역이 확보되고 있지는 않은가. 죽음이 있기에 종교는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유한을 극복하고 무한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이 종교적 욕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틀린 예언 중의 하나로 주문(呪文)의 운명에 대한 것도 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비합리적인 주문과 같은 것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해졌다. 미래는 합리주의의 시대라고 높이 노래 불려졌다. 그렇긴 했다. 합리주의의 시대가 왔다. 하지만 종교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문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주문 역시 종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하나의 측면이 아니었던가 싶다.

부처님께서는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신 뒤에, 그 “반야바라밀이야말로 위대한 신주(神呪)이고 위대한 명주(明呪)이며 위없는 주문이고 어디에고 견줄 데가 없는 주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이 자리가 어디인가? 가장 진실한 최고의 지혜를 설하는 곳이 아닌가.

주문의 정체

“반야바라밀이야말로 위대한 신주이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볼 때, 주문의 정체는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앞에서 말했던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가지 법주)은 곧 존재하지 않는다(空)”라고 하는 인식,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이는 종래의 관점을 전복하는 것이 아닌가. 종래 우리는 많은 주문을 들어왔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은 주문이 아니라고 말이다. 진실한 주문은 바로 반야바라밀 그 자체라고 말이다. 이러한 논리는 쉽게 동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 뒤에 나오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없어도 되는 사족(蛇足)일까? 그렇게 보는 관점 역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분명히 반야바라밀이 곧 주문이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에 나오는 주문이 없어도 되는 것일까? 있어야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할까? 왜 “반야바라밀이 곧 위대한 신주”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다시 또 “곧바로 주문을 설한다”라고 하셨던 것일까? 그 주문으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를 말했던 것일까?



그림 · 박구원

만약에 경전의 마지막 결구(結句)로 제시되어 있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라고 하는 주문을, 경전의 제일 앞에 제시해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되었다면 그 뒤에 이어질 말씀들은 결국 그 주문에 대한 해석이 되었으리라.

이는 결국 〈반야심경〉에는 반야바라밀의 정체성을 두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하나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顯教)에 의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앎의 세계를 떠난 언어(密教)에 의해서이다.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라고 하는 밀교의 입장을 더욱 중시하면서, 〈반야심경〉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가 없어도 좋을 군더더기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초의에게 제주 유배 고단함 하소연

제주 대정리로 유배된 추사는 적거지의 고단한 삶을 초의에게 가장 많이 하소연하였다. 때로는 투정을, 혹은 달관된 불교의 경지를, 차를 보내달라는 걸명(乞茗)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는 간난(艱難)했던 제주 시절, 그의 큰 위안처가 차와 불교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그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중에 제주에서 보낸 것이 가장 흔한 연유는 여기에 있다. 이번에 소개할 편지는 〈완당전집〉 '여초의' 16신와 〈벽해타운첩〉에 수록된 것으로, 제주 유배 초기인 1842년 3월3일에 썼다. 제주 적소에서 초의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추사의 마음이 잘 드러난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다.

한 번 온다면서도 실제 오지 않았으니 이는 성문 제 2과입니다. 어찌 대아라한이 도리어 소승법문을 행하십니까. 범부의 관점에서 보아도 큰 바다는 하늘에 붙어 있어 있는 것인데 만약 법안으로 보면 이것을 꺼릴 것은 없을 듯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월행을 한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세간의 이치로는 시원시원하게 처리하지 못함이 있어서입니까. 청산이 깔깔대며 웃고, 백운이 웃은 것을 느끼지 못하시는군요. 내 편지는 잠시 묵혀두고 그대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영진(影塵:그림자와 티끌)으로 이어지지 않는군요. 이에 우리 집의 하인 편에 보내니 참선하는 자리에 걸어두면 좋겠습니다. 나는 관하의 주름져도 주름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증함도 없고 감함도 없을 따름입니다. 허 소치는 혹 대둔사에 왔습니까. 이만 줄입니다.

(一往來而實無往來 是聲聞第二果 豈大阿羅漢反作此小乘法門 以凡夫觀之 大海粘天 若使法眼觀之 似無此礙 未知謂何 聞作檀越行云 尚有世諦之拖泥帶水歟 不覺青山呵呵白雲笑笑 拙書留俟飛錫 影塵莫屬 玆因家伻付去 試挂之禪坐處爲佳 此狀 有觀河之皺而不皺者 無增無減耳 許痴或來山中耶 不宣 壬寅 3月3日))



제주 유배초기 1842년 3월에 쓴 추사의 편지 〈벽해타운첩〉.

"온다면서 오지 않았으니 소승 법문"

초의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표현

제주도를 찾아온다던 초의의 언약이 몇 차례 무산된 듯. "한번 온다면서도 오지 않았으니 이는 성문제 2과"라는 그의 불평은 초의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이리 표현한 것이다. 성문의 제 2과는 욕계 수혹(修惑)의 9품 중에 6품을 끊은 성자이다. 하지만 9품 중 3품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으니 천상과 인간 사이를 한번 오고간 이후에야 열반에 든다는 것.

따라서 천상과 인간 세상을 내왕해야 열반의 경지에 드는 것처럼 초의는 제주도와 뭍을 왕래해야만 최상이 된다는 말이다. 그 말이 은근하다. 제주도는 아득한 땅이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곳임을 그가 모르고 하는 말은 아니다. 대아라한의 경지를 넘어선 초의가 소승법문을 행하느냐는 그의 희언은 추사다운 멋이기도 하다. 범부의 눈으로 보아도 하늘과 바다는 붙어 있는 것, 법안으로 보면 꺼릴 것이 없다는 장쾌한 논리는 그의 자유로운 불교적 입각처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실제 초의가 단월행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전적인 의미의 단월행은 육바라밀 중에 시주물을 베푸는 재시(財施), 불법을 들려주는 법시(法施)인데, 실제 초의의 단월행은 무엇을 보시한다는 것일까. 또 초의가 오기를 기다려 편지도 묵혀두고 기다린 추사는 오지 못한 초의를 이해한 것일까. 자신의 정성을 담아낸 글씨를 써서 초의에게 보낸 것이 분명하다. 자신의 벗, 초의가 항상 곁에 두고 감상하기를 고대했던 추사였다. 살가운 우정이다.

관하(觀河)는 석가모니 부처께서 파사익왕에게 원래 생멸이 없음을 보여 준 법문이다. 주름은 변한 것이니 멸(滅)을 받고, 주름지지 않은 것은 변한 것이 아니니 생멸(生滅)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런 표현 기법은 추사의 사유(思惟)가 얼마나 깊고, 불교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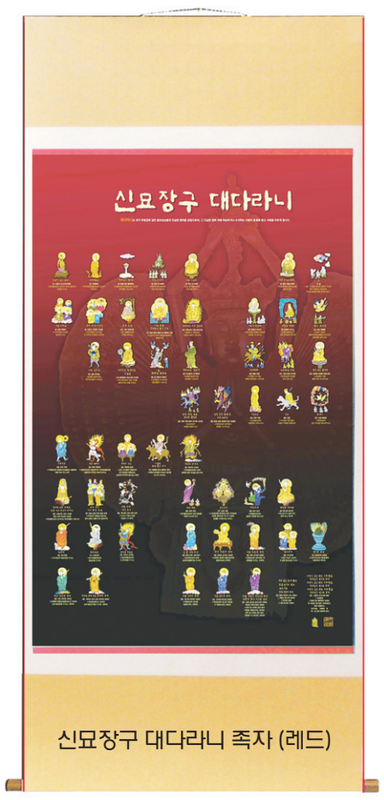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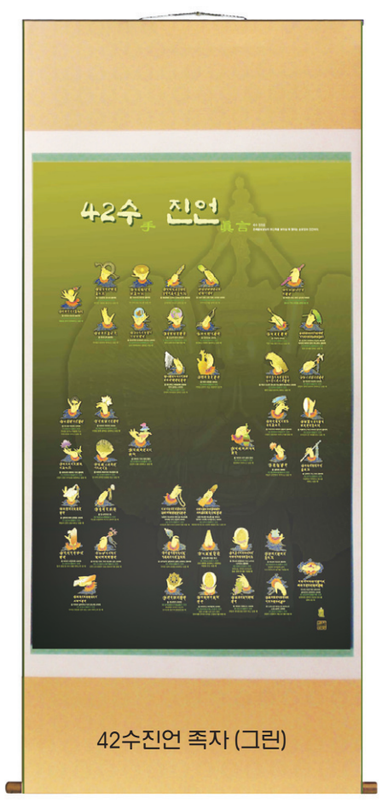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권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둥글고 밝은 빛' 주제 선화로 진리의 길 인도

선화가 동성 스님 (창원 봉국사 주지)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무궁무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현하시어 이 진리의 길을 수행과 설법으로 직접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제 그림은 부처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에게 진리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의 방편이고자 합니다"

선화가 동성 스님은 자신의 선화를 이렇게 설명한다. 1978년 첫개인전을 시작으로 스님은 연꽃, 축구공 달마도, 그리고 둥글고 밝은 빛까지 선화로 깨달음의 세계를 전해왔다.

동성 스님은 1955년 부산 동래에서 태어나 9세에 고성 스님을 은사로 통도사에서 동진출가했다. 스님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르면 밝은 지혜를 이루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팔만사천번뇌를 낳는다"는 은사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승려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익혔다.

학인 시절에는 팔만대장경과 역대조사들의 생생한 어록을 두루 섭렵하면서 경봉 스님과 지효 스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특히 성철 스님의 "오로지 부처님만 모시고 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은 동성 스님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런 풍부한 불법의 가르침도 좋았지만 동성 스님을 더 매혹시켰던 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교미술이었다. 스님이 살았던 통도사는 사방이 온통 단청, 탱화 주련의 글씨로 가득했다. 이 문양은 익숙하면서 독특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스님의 의식세계를 지배했다. 후원에서 찬상도 준비하고 가마솥에 불을 지펴 밥을 짓는 행자시절, 어린 동자승은 부지깽이로 그 문양을 따라 그리며 속세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랬다.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교복 입고 수학여행 오는 속가의 학생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들을 보면서 막연히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림보다는 글씨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은사스님이 미국으로 간 사이 서예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16세 때였죠"

이후 동성 스님은 당대 최고의 서예가였던 고천 배재식 선생, 평보 서희환 선생 등에게 글씨를 배우면서 서예의 묘미를 알게 된다.

"스승님께서 채본을 보내주시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글씨 공부를 했죠. 그런데 어느날 한계에 부딪혔어요. 너무도 훌륭한 분들을 스승으로 모셨으니 아무리 글씨도 잘 써봐도 스승을 능가할 수가 없었죠. 글씨를 쓰는 것은 나의 성취감이지 이것이 세상을 위해 쓰일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스님은 이후 그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역대 33 조사상을 베끼면서 희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을 평가받기 위해 당대 대가였던 운보 김기창 선생을 찾아나선다.

운보는 스님에게 이렇게 묻는다. "세속을 버린 사람이 어찌 세속에 다시 왔습니까?" 스님은이렇게 대답한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세속은 무엇이고 불법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불법을 떠난 세속이 없고 세속을 떠난 불법이 없으니 세속과 불법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평등법이고 진리 진실이라 알고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던 운보 선생과 스님은 이렇게 필담을 나눴다. 운보 김기창 선생에게서 화법을 익힌 스님은 자신의 작품을 다듬고 다듬어 1978년 한송이 연꽃이 되어라는 이름으로 개인전을 연다. 당시 스님은 진리를 얻기 위해 진흙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연꽃을 소재로 수행자가 걷는 구도의 길을 보여주었다.

당시만 해도 절집안에서 스님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는 스님에게도 하나의 고뇌와 번뇌를 안겨주기도 했다. "참선수행을 본분으로 하는 구도자로서 혹 외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선수행하며 묵을 가까이 했던 선풍납자들을 떠올리며 이 또한 분발하여 정진하면 또다른 수행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마음을 가다듬고 깨끗한 정신세계를 표현한다는 일념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님에게 창작행위는 숙세의 업장을 걷어내는 수행이 되었고 중생의 업연을 맑히는 공덕이 된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스님은 대중들에게 선의 세계를 알릴 수 있는 방편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달마도다.

배재식 · 서희환 · 김기창 등에게
서화 그림 사사, 선화 · 달마도 몰입
2002년 '공을 든 달마' 화제

중국 일본 미국 전시는 물론
몽골 인도 대학서 강의 펼쳐
한국 禪의 위대함 세계에 알려

"1990년대부터 그리기 시작한 것이 달마도예요. 사유하는 역대조사들의 인물도를 재현해 깨달음과 자유의 달마도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을 걷어내고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고뇌 정진 공덕으로의 회향'을 달마도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스님의 그림은 불교계를 넘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사건(?)이 생긴다. 바로 월간 〈아티스트〉에서 스님에게 표지 이미지를 청탁하면서 스님의 그림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것이다. 이른바 '축구공을 든 달마' 그림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것이다.

"고민이 많았어요. 축구와 선화를 연결시켜야 하는데 잘못 그리면 만화 같이 돼 버리니 이를 어떻게 불교적으로 표현해야할지 말이지요. 고민끝에 공이라는 것도 일종의 불교의 공(空)사상과 연결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스님은 공과 공이 하나로 통하는 세상을 달마와 축구공으로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공을 차면서 산을 내려오는 달마, 한일월드컵을 기념해 후지산 위에서 태양과 같은 붉은 축구공을 가리키는 달마, 축구공을 들고 있는 달마 등은 대중들에게 어필하면서 달마의 새로운 경지를 펼쳐보이기 시작했다.

"1500여년간 전형화 돼 내려오는 달마조사를 색다르게 표현했죠. 일체만유의 근본자리를 상징하는 불교의 공사상과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축구공의 참뜻을 접목시켜 그림으로 재현해 냈습니다. 즉 불교의 공사상, 월드컵의 축구공, 불교의 공, 월드컵의 공을 하나로 본 것입니다. '공을 든 달마도'는 만유의



천진불



달마도



2006년 중국 시안 대흥선사에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사문동성달마화비를 건립했다.



동성 스님은 … 통도사에서 고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4년 금강사에서 일붕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1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범어사 불교전문강원, 조계종 중앙교육원, 동국대학교 승가학과, 동 대학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에서 교학과 선리를 참구했다. 1970년대 원로서가인 고천 배재식, 평보 서희환 선생으로부터 서법을 사사하고, 원로화백인 운보 김기창 선생으로부터 화법을 개도 받았다. 1984부터 창원 봉국사 주지로서 가람수호와 계층별 도심포교에 주력하고, 35년간 선화를 통해 문화포교를 주관하며,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제3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진리를 상징하는 동시에 이러한 진리를 달마조사께서 들어 보인 것입니다"

색다른 달마도가 잡지의 표지 이미지로 실리면서 스님의 그림은 순식간에 세상의 화제가 되었다. 한 스포츠지에 축구공을 든 달마라는 주제로 크게 소개된 것을 시작으로 공중파 방송에서도 스님의 그림을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일본 불교언론매체에까지 소개되기에 이른다. 이후 일본쪽에서 전시회 제안이 들어왔지만 스님은 한국전시를 먼저 하고 일본 전시를 갖고 싶다는 원을 세우게 된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을 전시를 추진했으나 종교 그림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된다.

"세종문화회관에 그림 108점을 전시하려고 하니 종교 성향의 작품은 다뤄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다르마라 전이라고 이름을 붙여 추상화 4점을 기획안으로 제출해 전시회를 열 수 있었어요. 그렇게 2002년 월드컵을 맞아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에서까지 전시를 열 수 있었죠"

스님의 그림을 관람한 교토 고다이지 집사장 신행대화상은 "축구공을 든 유니크한 모습으로 선의 정신을 표현하는 달마대사의 회화를 보았을 때 놀라움과 함께 감개가 무량했다"라며 극찬을 했다. 또한 오사카 화종 총본산 세텐노지 관장 양응 대선사는 "스님의 선화는 단순한 미술작품이 아니라 대승보살 정신의 큰 자비와 원력이 담겨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이때의 전시를 인연으로 2006년에는 중국 시안 대흥선사에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사문동성달마화비를 건립하기까지 했다.

이제 스님은 '둥글고 밝은 빛'이라는 주제에 천착하기 시작한다. "이는 제 그림 속에서 강조하는 선의 정신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을 전해줄 수 있는 선화를 지향하는 거죠. 이제 저는 둥글고 밝은 빛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작품 세계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스님은 이후 일본 도쿄 · 오사카 · 나고야 등의 개인전은 물론 미국 뉴욕 플러싱오픈센터에에서 개인전을 갖게 된다. 특히 뉴욕 전시에서는 표현전을 통해 선화 그리기를 재현,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난 2009년에는 불교신문 창간 50주년을 맞아 서울 백악미술관 개인전의 수익금 전액을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하는 보시행을 펼치기도 했다.

대학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선화의 정신을 알리는데에도 적극적이었다. 2012년 몽골 울란바타르 몽골불교대와 2013년 인도 델리대, 뭄바이대 등에서 개인전과 특강을 펼쳐 한국의 선종 사상을 알리는데 기여했다.

스님은 이들 강연에서 "수행자는 자신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정진으로 열반의 공덕을 성취하기 때문에 수행이 곧 행복이 된다"며 "청정한 몸 법신(法身)을 이루고, 청정한 마음 정법안(正法眼)을 이루어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어 가자"며 선의 정신을 강조했다.

물론 스님이 그림으로서만 포교활동을 펼친 것은 아니다. 조계종 제 7교구 흥성 석련사, 제 8교구 금릉 백운사, 제 14교구 창원 봉국사 주지 등을 통해 포교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부산 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교화법사, 마산고등학교 생활관 강사, 육군 제 6128부대 군종담당관, 경남 향승위원회 위원장, 마산동부경찰서 경승실장, 한국부교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계층포교를 펼쳐오고 있다.

선화를 통해 불법의 진리를 펼쳐온 동성 스님은 선을 이렇게 얘기한다. "선이란 고요한 마음에 들게 해 부질없고 허망한 번뇌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자신의 청정한 본성을 찾기 위해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며 일체의 현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굴림을 당하지도 않고 모든 상황을 원만하게 굴리며 살아가는 이가 곧 수행자죠. 선화는 수행자들의 깨끗한 청정성과 정신세계에서 탄생되는 것임을 늘 명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스님은 오늘도 수행의 세계 그 둥글고 밝은 빛을 이루어 가기 위해 선화의 세계에 빠져들 것이다. 그렇게 동성 스님은 붓끝으로 부처님 진리의 세계로 다가가고 있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2009년, 백악미술관 개인전의 수익금 전액을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하는 보시행을 실천했다.



동성 스님은 2013년 인도 뭄바이대와 델리대에서 선서화전과 강연을 펼쳤다.

전법일기

당당하게 죽음을 맞자

어느 날의 일기-2

8월 22일

신도 여덟 분과 함께 혜각 거사의 병문안을 갔다. 52세, 암이 임파선을 타고 신장에 퍼져 있고 간까지 전이되었다고 하였다. 병실에 들어갔더니 그의 얼굴은 이미 납색이 되어 있었다. 통상적인 인사를 나누는데 그의 눈이 어느 순간 풀려 초점을 잃었다. 내가 그에게 정신이 가끔 풀어지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그렇다고 솔직히 대답했다.

"거사님, 지금은 가끔 그렇지만 점차 그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고통은 심해질 거고, 진통제를 더 많이 쓸 겁니다. 거사님의 육신은 병들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병든 육신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으셔야 합니다. 살겠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고통만 길어지게 됩니다."

그는 괴로운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나온다고 생각했던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아냈다. 병든 육신은, 그러나 눈물 한 방울조차 인색했다.

"거사님은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정신을 잃기 전에 거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도 정리하시고, 인간관계도 정리하시고, 부인과도 이별하시고, 자식들과도 이별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거사님은 평생을 잘살아오셨으니까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오른쪽 눈에 눈물이 딱 한 방울 맺혔다. 그가 손수건으로 찍어냈다. 나는 말을 계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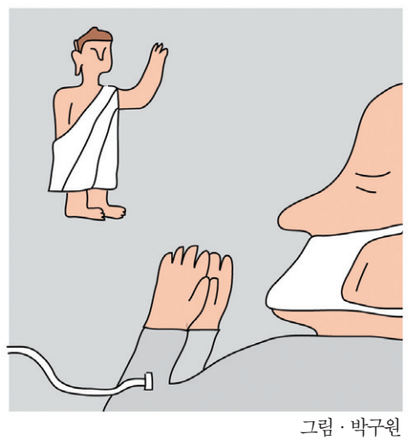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낡은 옷 버리고 새 옷 입는 죽음의 참뜻 전해 나무아미타불 부르며 이별

"마지막 순간에는 희고 밝은 빛이 거사님을 데리러 올 겁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순히 따라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평안한 삶을 누리실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육도 세계 가운데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세계에 가게 되면 고통만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세계로 가서는 안 되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로 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합장하고 따라하시겠습니까. 나무아미타불!" 그는 야위고 검게 혈관이 드러난 손으로 힘없이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따라 불렀다.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가고 싶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셔야 합니다. 다시 따라하시지요. 나무아미타불!"

그는 몇 번에 걸쳐 나무아미타불을 불렀다. 간절히 염불하라고 말했더니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작별인사를 한 후 병실 밖으로 나왔다. 부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따라 나왔다. 신도들이 그를 얼싸안고 함께 울었다.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저녁에 부인에게 전화하여 말했다.

"내가 많은 사람의 임종을 봤는데 남편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어요. 남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면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거사님이 자신의 인생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고, 덕분에 잘 살았다고, 고마웠다는 말도 해 주세요. 댁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전해 주세요."

8월 29일

오늘 다시 병문안을 가려고 했는데 그의 소식이 먼저 왔다. 어젯밤에 세상을 떠났다고.

어느 누군들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는가.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너나없이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잘 사는 법이 있는 것처럼, 잘 죽는 법도 있을 터.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두어야겠다. 남의 일이 아니므로.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남성용 여성용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 삼재 조심

2013년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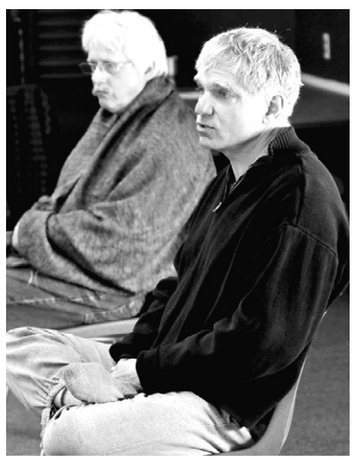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 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 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美 종파 초월한 불교명상 공동체 조직





3월 17일 미국 메인주 파밍턴(Farmington) 메인대학(University of Maine)에서 메인주 불교계 사상 처음으로 티베트 · 일본 · 테라와다 불교그룹 연합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은 참여자들의 명상 실습으로 시작된 세미나의 모습. 연합 세미나 공동주최자인 조 랜킨(Joe Rankin, 사진 오른쪽)과 팀 데이비스(Tim Davis)가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라임상가 등 3개 불교명상그룹, 사상 첫 연합 세미나 개최
'서쪽에서 온 메인불교' 주제 … 17일 파밍턴 메인대학에서

미국 메인(Maine) 주에서 종파를 초월한 불교명상 공동체가 조직될 전망이다.

켄네벡 저널(Kennebec Journal) 지는 "메인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라와다 · 티베트 · 일본불교계가 지난 17일 '서쪽에서 온 메인불교(Western Maine Buddhism)'를 주제로 메인대학교(University of Maine)에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보도하고,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세 개의 불교계를 아우르는 불교명상 공동체가 조직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메인 주에서 기반을 닦아오던 라임상가(Rime Sangha), 풀문상가(Full Moon Sangha), 건강네트워크(Health Network) 등 3개의 불교명상 그룹의 지도자들이 회원뿐만 아니라 명상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까지 아우르는 상가(sangha)를 조직하자는 의견을 모아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메인대학 연수관에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각각의 전통에 따른 명상을 시현하고, 이어 30여 명의 세미나 동참자들이 스스로 준비한 매트나 담요를 연수관 강당에 펴고 그 위에 앉은 채, 지그시 눈을 감고 집단 명상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각 불교명상 그룹의 지도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의미의 불교명상 공동체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라임상가의 젭 에녹(Jeb Enoch · 티베트불교) 법사는 "이번 세미나는 각각의 불교전통에 따라 최소 수년 동안 명상을 해온 불자 30명이 적극 참여해 진행될 수 있었다"며 "이 자리는 서로 다른 불교전통을 이해하고, 메인 주의 불교발전에 토대를 함께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상은 자신을 성찰하는 최고의 방편이며,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자연히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한 풀문상가의 조 랜킨(Joe Rankin · 일본불교) 법사는 "명상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 곁에 있는 타인도 편안함을 주는 게 명상"이라며 "우리가 명상을 최고의 힐링 방편으로 삼는 게 바로 이런 까닭"이라고 말했다.

"명상은 뇌 구조도 바꾼다는 게 지금까지 관련 의학계의 연구 결과"라고 강조한 건강네트워크의 팀 베이비스(Tim Davis · 테라와다불교) 법사는 "명상 중에 전두엽이 활성화되는데, 이곳은 사고 기능과 집중력, 감정 조절 등을 담당하는 부위"라며 "전두엽이 발달하면 집중력과 기억력, 사고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메저 콜미(Marjor Cormie · 43) 씨는 "3년째 명상을 하면서 묻고 싶었던 문제가 점점 늘어났는데, 이번 세미나는 그러 문제에 일정부분 답을 찾을 수 있었던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메인주 프랭클린카운티(Franklin County)에 있는 체스터빌(Chesterville)에 거주하며, 테라와다불교 전통의 '건강네트워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켄네벡 저널은 공동주최자인 조 랜킨 법사의 말을 인용, "자신의 신심과 수행을 돌아보게 하는 자리"였다며 이번 세미나를 평가하고, "세미나 동참자 마다 불교전통은 달라도 '자선'을 최고의 불교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똑같았다"며 "이는 세 그룹의 지도자와 회원들이 앞장서 메인주를 대표하는 '불교명상 공동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서 이들의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젭 에녹 · 팀 베이스 · 조 랜킨 법사는 "문화, 인종 등이 다른 다민족 사회에서 불교는 어떻게 평화와 조화를 보여줄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메인주에서 활동하는 명상그룹과의 논의 과정을 통해, 누구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상 공동체를 결성해, 메인주에서 명상이 더욱 보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종욱 편집위원

타클라마칸서 불교유적 발견

중국 고고학팀 "타클라마칸에서 가장 큰 사원"

중앙아시아에 있는 세계최대 사막 중 하나인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1500년 전 지어진 불교사원 유적이 발견됐다.

미국 불교 계간지 〈샴발라선〉 인터넷판 뉴스는 2월 28일(미 현지시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유물 3000여 점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굴은 중국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신장(新疆) 고고학팀이 진행했으며 2012년 6월 완료했다.

고고학팀은 불교사원이 1500년 전 남북조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발견된 유적 및 유물가운데 벽화에 주목했다.

이들은 "벽화는 기원전 2세에부터 400년대 고대 인도 북서부 간다라 지방(現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 발달한 그리스 · 로마 풍의 불교 미술양식인 '간다라 양식'"이라고 설명했다.

고고학연구소 신장 고고학팀을 이끈 우신화 팀장는 "정말 훌륭하다. 이제껏 타클라마칸 지역에서 이런 벽화를 본적은 없다. 유적을 통해 고대 중국의 불교보급과 함께 동 · 서양 문화의 융합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박사는 "이번에 발견된 유적지는 20세기 초부터 타클라마칸 사막을 조사해온 이래 최대 규모"라며 "사원의 구조는 매우 독특하며 사원 안에 있는 두 개 불상의 높이는 6m에 달한다. 이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사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사회과학원(CASS)과 신장위구르자치구 고고학자들은 2005년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 모래 속에서 길이 2.25m, 폭 2m, 4면의 담 높이 1.3m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불교 사찰을 발굴해 눈길을 끌었다. 고고학팀은 사찰 주변 반지름 100m 사막 모래 지역 일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4벽에 정교하고 뛰어난 대승불교 경전들을 그린 프레스코 벽화들과 불상들을 모신 이 사찰을 발굴했다.

투오풀루커둔이라는 이름의 이 1500여 년 전 사찰 중앙에는 높이 약 65cm의 불상이 한구, 북쪽 중간 지점에는 넓은 어깨에 가는 허리들을 가진 여러 불상들이 모셔져 있었다.

우신화 팀장은 나무와 진흙을 이겨 만든 "투오풀루커둔 사찰은 세계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작은 사찰"이라며 "이 사찰은 또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프레스코 벽화들과 불상들이 가장 잘 보존되고 원형이 비교적 잘 간직된 유일한 고대 사찰"이라고 밝혔다.

우 팀장은 이 사찰의 구조와 형태와 문물들의 발굴은 불교 연구와 중국 서북 지역과 내륙으로의 불교 전파, 불교가 번성했던 고대 위톈(玉田)왕국의 프레스코 벽화 및 일반인들 사이의 불교 신앙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3000여 유물 및 벽화 발견
벽화는 간다라 양식
1500년전 남북조시대 유적 추정
2005년에는 가장 작은 사원 발견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 위톈 왕국은 약 3천년 전 설립돼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던 '위치' 집안이 약 2천년 전부터 통치하기 시작한 후 많은 사찰과 탑들이 세워져 불교의 성지로 알려져 있고 대승불교 경전도 이곳을 통해 중국 내륙으로 전파됐다.

위톈 왕국은 서기 8세기 중엽, 타클라마칸 사막 서쪽에 있던 이슬람 국가인 칼라한왕국이 개시한 종교 전쟁으로 멸망해 수많은 사찰과 탑들이 파괴되었으며, 투오풀루커둔 사찰은 다행히 파괴를 면하고 1500여 년간 모래속에 묻혀 있다가 한 목동에 의해 최근 우연하게 발견돼 발굴이 시작됐다.

이로써 타클라마칸 유적지는 인도불교의 중국 전파와 중국의 사회 · 경제적상황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주요 연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중국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1500년전에 지어진 불교사원의 유적(좌)과 간다라 양식의 벽화(우).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민 사로잡은 명상센터

소토선불교협회, 에코요가공원 등 '아르헨티나 독립' 지 5곳 선정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일본문화원 내에 있는 소토선불교협회는 현재 불교철학 강좌를 개설, '선실수'를 실시하고 있다(좌). 푸엔테 카사칼레스(Puente Cascallares)에 위치한 에코요가공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수련생들(우).

남미의 정열이 가득한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도 명상은 도시민의 발길을 잡고 있다. 아르헨티나 독립(Argentina Independent)지가 20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상위 명상센터를 선정 · 보도해 주목된다.

선정된 명상센터는 소토선불교협회(The Association of Buddhism Soto Zen), 에코요가공원(Eco Yoga Park), 도시로터스(Urban Lotus), BA생활센터(BA Life Centre), 샤자요가(Sahaja Yoga), 에코요가공원(Eco Yoga Park) 등 5곳.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일본문화원(Japenese Cultural Centre) 내에 자리한 소토선불교협회는 현재 불교철학 강좌를 개설, '선실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불교의 전통수행을 체험할 수 있다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에 시작되는 이 수업은 20분간의 참선을 세 차례 하는 것으로 진행되는데, 수업 말미에 〈금강경〉을 봉독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인 푸엔테 카사칼레스(Puente Cascallares)에 위치한 에코요가공원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요가 캠핑장'으로 통한다. 유기농 아침 식사를 시작으로 시작되는 이곳의 수업은 티베트 불교의 벨 명상(Tibetan Bell Meditation)과 동서양의 고전음악을 들으며 진행하는 만트라 치유(Mantra Therapy) 등으로 구성되며, 텃밭을 가꾸는 울력도 함께 진행된다.

도시로터스는 평화롭고 따뜻한 조명의 명상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의 명상 수업은 앉기 보다는 누운 자세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팔레르모 (Palermo)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명상 속에서 휴식을 찾고자 하는 도시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BA생활센터와 샤자요가는 요가에 중점은 명상 과정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BA생활센터의 경우 힘과 균형에 집중하는 요가를 가르치는 반면, 샤자요가는 힘과 정신에 집중하는 요가를 가르치는 게 다르다.

오종욱 편집위원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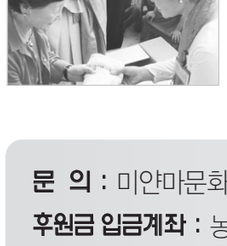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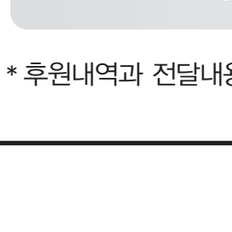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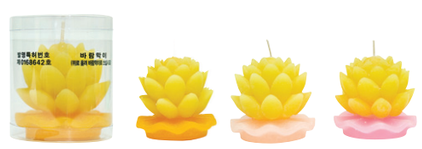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ϕ×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ϕ× 34㎝


육각초 7.0ϕ× 34


연화 大 9.5ϕ× 11㎝, 연화 中 9ϕ× 10㎝, 연화 小 7ϕ× 6.5㎝


밀납연화 小 7ϕ× 6.5㎝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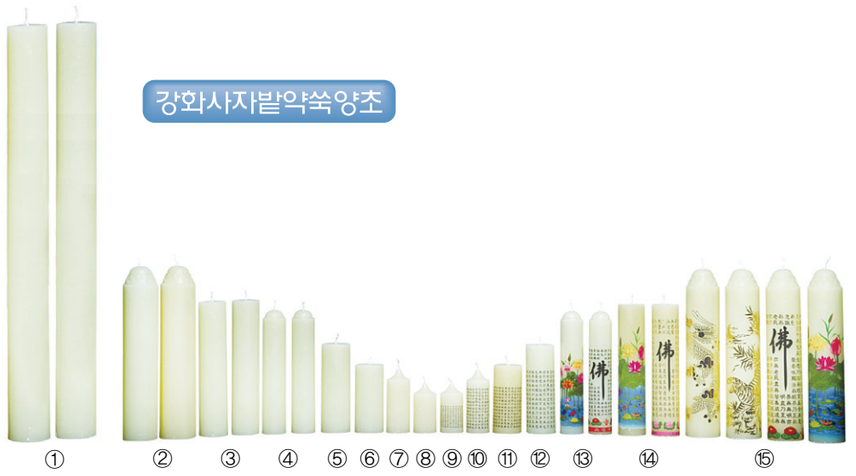

향수림


백목향,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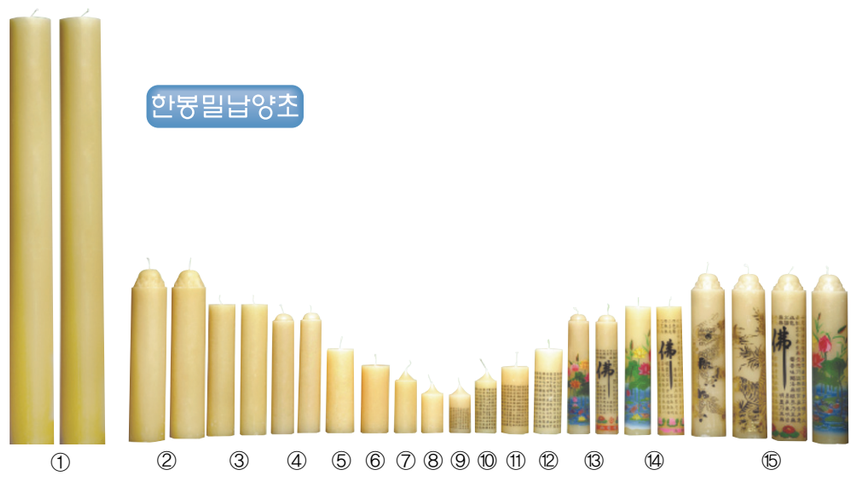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약쑥초 90cm×90㎝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ϕ×34㎝
③ 약쑥초 돈타레 5.6ϕ×27㎝
④ 약쑥초 밀대 4.7ϕ×25㎝
⑤ 약쑥초 1호 5.9ϕ×18㎝
⑥ 약쑥초 2호 5.9ϕ×14㎝
⑦ 약쑥초 3호 4.7ϕ×13㎝
⑧ 약쑥초 4호 4.7ϕ×10㎝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ϕ×10㎝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ϕ×13㎝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ϕ×14㎝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ϕ×18㎝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① 밀납초 90cm×90㎝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ϕ×34㎝
③ 밀납초 돈타레 5.6ϕ×27㎝
④ 밀납초 밀대 4.7ϕ×25㎝
⑤ 밀납초 1호 5.9ϕ×18㎝
⑥ 밀납초 2호 5.9ϕ×14㎝
⑦ 밀납초 3호 4.7ϕ×13㎝
⑧ 밀납초 4호 4.7ϕ×10㎝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10㎝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13㎝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ϕ×14㎝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18㎝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 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고려 '그림 부처님' 붓끝으로 나투셨네

혜담 스님 '위대한 민족문화유산 고려화불 대전'
4월 2일~13일 예술의 전당 V갤러리서

700년 전 초강대국이었던 몽골에 당당히 맞선 고려는 당대 최고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화불'(畵佛)을 창조한 문화선진국이었다. 그래서 우리 고려화불은 문화유산의 정수로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 화려함은 세계미술사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걸작 중의 걸작이었다.



월제 혜담 스님(계태사 고려화불학술연구소 이사장)은 40여년 동안 고려화불 재현에 매진해왔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오면서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으로 인해 고려화불의 맥은 끊기게 된다. 그리고 지난 700년 동안 그 맥을 잃고 수많은 화불 작품들 역시 해외로 약탈당했고 훼손되어 소멸되었다. 그래서 이제 고려화불은 전 세계에 불과 160여점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인류문화사적 가치를 지닌 고려화불은 국내에도 20여점만이 보존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고려화불의 복원과 재창조를 위해 무상무념(無想無念)의 붓끝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화폭에 펼쳐온 스님이 있다. 40여년 동안 고려화불 재현에 매진해온 월제 혜담 스님(계태사 고려화불학술연구소 이사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혜담 스님의 '위대한 민족문화유산 고려화불 대전'이 4월 2일~13일 서초구 예술의 전당 V갤러리에서 열린다.

스님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고려화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고려화불의 문화사적, 민족사적, 인류사적 가치를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고려화불을 복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잊혀진 불교 역사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양에도 상징하는 심오한 의미가 있으며 입체감은 보는 이의 위치에 따라 모양도 같이 변하죠. 이 모두가 우리 조상들이 빚어낸 위대한 문화유산이죠. 700년의 시간을 넘어 고려화불의 위대성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스님은 이번 전시를 위해 매일 하루에 18시간씩 작업을 하며 작품을 완성시켜 나갔다. 이를 통해 스님은 '오백나한상' '관경 16관 변상' '수월관세음보살' '열반상' 등 고려화불 65점으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특히 5m 크기의 초대형 수월관세음보살도는 3년의 노고가 담긴 작품이다.

"어느날인가 꿈속에서 관세음보살 화현이 나타나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 3년 걸려 작품을 완성했어요. 워낙 대작이어서 법당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가로로 눕혀서 작업을 하다보니 제대로 작품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와서야 작품을 세워서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섬세하게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오백나한상 역시 스님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오백나한과 공양발원하는 100여 대중을 합하면 600여 명이 한 작품 안에 들어간다. "그동안 오백나한상은 엄두가 나지 않아 부분도만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크게 발심해 오백나한상 전체를 그려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얼굴 표정도 몸짓도 다 다른 오백 나한상을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어 쌀 알 하나하나로 인물수를 세면서 작업했죠"

열반경을 화폭에 옮긴 열반상 또한 주목할 만하다. 스님은 "부처님은 열반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진리의 등불을 삼고 살아라 마지막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 속가 어머니는 이 그림을 보시고 통곡소리가 천지가 울리는 것 같다며 감동을 표현하셨다"고 설명했다.

혜담 스님은 지난 40여년 동안 고려화불 복원 작업에 매진해 왔다. 그렇다면 왜 스님은 이 오랜 시간 고려화불에 매달려 온 것일까? 이에 대해 스님은 잊혀진 우리 문화유산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라고 한다.

"고려화불은 고려시대 찬란한 불교문화 유산이자 종교를 초월한 선조들의 예술혼이 깃든 작품입니다.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보다 앞서 시작된 고려문화 전성기에 조성된 화불은 세계미술사에서도 빛나는 세계적 전통문화예술로 그 우수성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절되었던 고려불화를 재현하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국내 작품 외에도 다양한 불교 국가의 불화도 함께 선보인다. 인도 서역 9세기 작품은 물론 중국 9~10 세기 작품 일본의 13세기 작품 등을 복원해 관람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40년 동안 '고려화불' 재현에 매진
"부처님 그림 아니라 그림 부처님"
佛畵 畵佛
수월관음상 · 오백나한상 등 '주목'

스님은 앞으로 고려화불을 소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 부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부처님 그림)라고 하지 않고 '화불'(그림 부처님)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제 화불이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불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전시공간을 마련해 대중들이 부처님의 뜻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02)580-1708 정혜숙 기자



혜담 스님의 '위대한 민족문화유산 고려화불 대전'이 4월 2일~13일 서초구 예술의 전당 V갤러리에서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오백나한상' 등 고려화불을 재현해 관람객을 찾아간다.

금강경 한자에 '一佛'을 세우다

죽봉 황성현서전…4월 2일까지

'필묵연(筆墨緣) 60년'을 기념한 죽봉 황성현서전이 3월 27일~ 4월 2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황성현 작가는 〈금강경〉 〈반야심경〉 등을 작품으로 담아냈다. .

평소 금강경 쓰기에 몰입한다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금강경〉 전문을 12폭 병풍으로 선보인다. 황 작가가 〈금강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금강경〉이 지닌 거대한 사상 때문이다. 황 작가는 "시작이 끝이고, 끝이 다시 시작인 그 반복과 윤회의 세계가 바로 〈금강경〉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작가는 한 자 한 자 〈금강경〉을 쓰면서 마치 부처님을 대하듯이, 일자일불(一字一佛)의 몰입을 다해 작품에 임했다. 작가는 "한 자를 완성할 때마다 일불을 세우고, 한 자를 써낼 때마다 일배(一拜)의 정성이라 여기며 5400자에 성심을 다했다"고 전한다.

작가는 〈반야심경〉 역시 수천 번 이상을 썼다. 이번 전시에서는 〈반야심경〉과 〈화엄경〉을 새긴 양각 나무 항아리 작품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작가는 "불경을 많이 쓰게 된 것은 지영 스님의 〈해서천자문〉을 수백 번 임서하면서 욕심 없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금강경 5400자 병풍에 담아
나무 항아리 반야심경도 '눈길'

이밖에도 작가는 국전지 11장에 쓴 한산시를 비롯 〈채근담〉 〈논어〉 〈노자〉〈도덕경〉 〈천자문〉 등을 해서, 소해, 세필로 펼쳐냈다.



화엄경 나무 항아리

한편, 황성연 작가는 1941년 경기 고양 출생으로 고려대 경영대학원과 홍익대 미술대학원에서 수학했다. 1971년 일심서예학원을 창립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월간서예〉 전 발행인, 일심서예출판사 대표 등을 역임했다. (02)720-1161~2

정혜숙 기자

뉴욕에서 빛난 한국의 사경… '귀국전'

4월 3일~ 9일까지 갤러리M서

한국사경연구회가 제7회 한국사경연구회 뉴욕 플러싱타운홀 초대작품 귀국전을 연다.

4월 3일~ 9일까지 종로구 낙원동 갤러리M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한국사경연구회원 23명이 전통사경을 계승한 작품과 현대사경 작품 46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80일 동안 뉴욕에서 열린 특별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 회장은 "플러싱 타운홀은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링컨센터 등 뉴욕시의 지원을 받는 33개 문화 단체 중 하나이자 2012년 뉴욕시 랜드마크 건물로 지정됐다. 건물 준공 1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 행사로 열린 한국 전통사경 초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룬 것을 기념해 개최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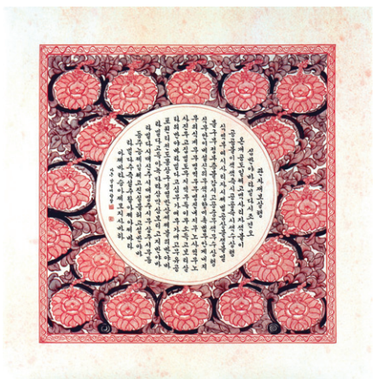
특히 이번 전시에는 1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현지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80일 뉴욕 전시 1만명 관람
사경연구회원 23명 작품 전시

또한 뉴욕의 정계, 문화계 귀빈들과 박물관, 미술관 관계자들이 대거 관람해 한국 전통사경의 세계사적 의의와 가치 및 예술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김 회장은 "사경은 고려시대 선조들이 이룩했던 빛나는 문화적, 예술적 성취였다. 하지만 조선왕조 이후 단절되었고, 이제 600년의 세월을 뛰어 넘어 한국사경연구회원들에 의해 세계 제일의 도시 뉴욕에서 다시금 부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02)737-0073

정혜숙 기자



한국사경연구회가 귀국전을 펼친다. 작품은 강경애 作



어머니의 땅 지리산을 품다

이호신 작가 진경순례전

실상사 쌍계사 화암사 등
자연 · 인문 · 문화유산 담아내
4월 4일~28일 아라아트센터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은 경상남도, 전라남 · 북도를 품고 있는 백두대간의 마지막 얼굴입니다. 백두산이 아버지라면 지리산은 어머니입니다. 천왕봉을 중심으로 흘러내리는 골짜기와 계곡, 너른 들녘과 맑은 강은 겨레의 젖줄이며, 민족의 대서사시입니다. 이 산 아래에서 역사의 바람이 불고 문화의 꽃이 피어납니다. 유난히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산이요, 온갖 삶을 다 받아주고 아픔을 삭여 주는 어머니의 품속 같은 산입니다"

지리산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호신 작가의 전시가 4월 4일~28일 종로구 견지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작가는 '어머니의 땅 지리산 진경순례' 전을 통해 지리산 전경을 담은 작품 200여 점을 선보인다.

여기에는 지리산이 품고 있는 남원신계리마애여래좌상, 구례 연곡사, 구례 화엄사, 남원 실상사, 하동 쌍계사 등 지리산과 어우러진 장엄한 불교 유산을 담은 작품도 선보여 불자들의 눈길을 끈다. 인문과 자연 사생과 사의를 그림 속에 함께 담아내고 싶었다는 작가는 평지에 위치한 실상사를 그리기 위해 20년을 기다렸고 쌍계사는 15년만에 다시 그려냈다. 그리고 이런 작품 뒤에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담아내고 싶은 작가의 의지가 반영돼 있었다.

"사찰을 그리다 보면 가람의 배치 건축물 탑 등 정확하게 그려내야 할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또 저의 시각으로 풀어내야 하는 작가적 사명도 있죠. 이 두 개를 조율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인 불교 문화재를 온전히 그림으로 남겨 세상에 회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이 터오는 맑은 첫새벽의 기운부터 하얀 달이 떠오르는 밤의 정취까지, 노란 산수유와 눈부신 벚꽃이 만발한 봄부터 흰눈에 덮여 꽁꽁 얼어붙은 겨울까지 지리산과 지리산이 품고 있는 다채로운 모습이 한눈에 조망된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산천을 돌아다니며 사찰과 그 주변풍경을 그려온 이호신 작가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스케치 화첩 50여권도 함께 전시돼 그간 작가의 노고를 엿볼 수 있다. 유료 전시로 입장료는 성인 8000원, 학생 3000원이다. (02)733-198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호신 작가의 '구례 화엄사' . 작가는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 200여 점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선원예술단 월드투어 공연

4월 5일~16일 전국 5개 도시서

선원예술단 2013년 월드투어 공연이 4월 5일~16일까지 서울 비롯한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린다. 선원예술단은 뉴욕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로 중국고전무용과 음악을 함께 보여주는 공연단이다. 2007년부터 공연을 시작해 매년 평균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300여회 이상 공연을 펼치고 있다. 신과 인간 영웅과 충신이 남긴 가슴벅찬 이야기들, 천재 예술가들이 남긴 문예작품들, 북방의 광활한 몽골 초원에서 풍요로운 수림까지 다양한 소재들을 공연무대로 펼친다.

△4월 5일, 대구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4월 9일,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 △4월 11일, 광주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4월 13일 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월 15일 서울 상명아트센터 계당홀 등에서 각각 공연이 진행된다.

1588-8808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귀갑문(龜甲文)→육각수문(六角水文)

길상 의미 보다 생명의 근원 '상징'

한국의 미술작품 뿐만 아니라 동양의 수많은 미술작품에서 자주 만나는 육각형은 그 중요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특히 연접하는 육각형은 매우 중요한데 벌집이 그러하여 벌집모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학자들은 귀갑문(龜甲文)이라 하여 논문이나 일반인들에게 널리 쓰이고 있어서 아무도 그 용어를 의심하지 않는다.(그림①) 태어나서부터 그런 용어를 듣고 배우니 그 용어가 틀렸다고 하면 화까지 내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귀갑문의 대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거북 등 무늬를 길상문(吉祥文)이라 부르는 까닭은, 거북이가 장수의 덕을 가진 생물이기 때문이다. 육각형은 견고하게 연접할 수 있으니 거북 등의 무늬와 같으므로 귀갑문이라 부른다. 귀갑문 안에 꽃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화귀갑문(花龜甲文)이라 부른다."

장수의 상징으로만 여겨 온 문양

즉 육각형은 거북 등의 무늬로 보고 그 연접하는 무늬를 길상문을 나타내는 귀갑문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거북 등은 모두가 육각형이 아니다. 실제로 거북들의 등을 살펴보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등 다양한데 거북 등을 그릴 때 육각형으로 연접하여야 가능하므로 그런 조형들을 머리에 입력하여 인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육각형이나 연접한 육각형 무늬를 보면 무조건 귀갑문이라 부르고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지나가고 만다.

우리나라는 물론 동양에서 아니 세계에서 육각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상징성을 추구해 본 분이라면 절실하게 느낄 것이다. 육각형은 물이 구조이다. 겨울에 내리는 하늘에 가득 찬 모든 눈의 형태가 육각형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것이다. 바로 그 물은 만물생성의 근원이니, 육각형 또한 만물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여래나 도(道), 그리고 태극 등 만물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인류가 그 만물의 근원을 보이도록 표현한 것들이 바로 용(龍)이요, 영화시킨 연화(蓮花)요, 연접한 육각형(六角形) 등이다. 그런 고차원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단지 막연한 길상을 상징하는 거북이의 등 무늬라고 하니 조형뿐만 아니라 사상사의 중요한 면을 상실하고 만다.

고구려 벽화에서 우리는 수많은 육각형의 구조를 보아온다. 덕화리 벽화에서처럼 천정에 육각형의 구조를 그려놓고 그 육각형에서 영기문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간단한 구조는 벽면을 온통 육각형을 연접하여 놓고 그 육각형 마다 연꽃을 그려 넣은 도상이다. 졸본의 미창구 벽화나 평양의 산연총이나 귀갑총 벽화 등의 예가 바로 그렇다. 그것은 '물에서 연꽃이 피는 것을 상징' 한 것이다. 연꽃 대신 육각형 안에 보주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귀갑문이라 부르니 조형을 읽을 수 없다. 더 깊이 해석하면, 무덤(소우주) 안에 그런 무늬로 가득 채운 것은 생명생성의 극치를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우주에 충만한 대생명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귀갑문이라는 아무 의미 없는 용어는 써서는 안 된다. 육각은 물의 구조이며, 물의 화학적 고리가 육각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귀갑문이란 용어가 잘못 된 것이므로 그 용어를 폐기처분하면 용어가 없어져 버리므로 내가 용어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무늬의 상징도 처음으로 밝혔고 따라서 그 용어가 틀리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기 때문에 내가 시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단지 육각이라고만 하면 또한 아무 의미가 없다. 육각은 물을 상징하므로 육각수(六角水)라 부르면 가장 확실하다. 육각이란 말과, 그 말이 상징하는 물이 합성하여 완벽한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귀갑문을 '육각수문(六角水文)' 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거북 등 육각형 연접 무늬
물의 구조 생명 상징
귀갑문은 육각수문이라 불러야

'물' '바다' '생성' 등으로 의미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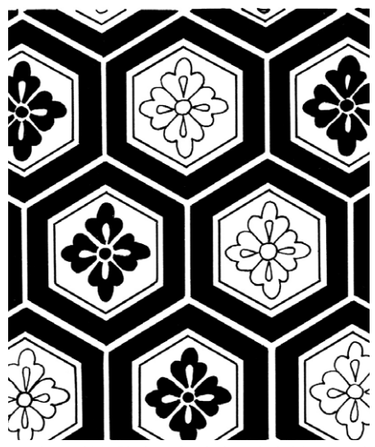
그 육각수문 안에는 연꽃이나 보주를 표현한다. 통일신라 말에 세워진, 제천 월광사지 원랑선사탑비(圓郎禪師塔碑,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음)의 용부(龍趺)의 등을 보면 육각수문(실제로 육각형은 아니나 그런 의도로 조각한 것) 각각 안에 보주꽃이 있다.(그림②) 그것은 물 가운데 보주가 가득 차 있다는 의미이다. 보주꽃에 대하여는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가가미 신사 소장 수월관음 고려 불화에서는 관음보살이 치마를 입고 있는데 육각수문 안에 연꽃을 그려 넣었다.(그림③) 그러므로 '물에서 핀 연꽃' 이지만 다시 이것을 더 자세히 해석하면 '영수(靈水)에서 탄생한 태극' 이다. 차차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귀갑문이란 용어가 분명히 틀렸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고종 때 중건한 경복궁 근정문(勤政門)에서 발견한 상량문과 함께 발견한 작은 육각형으로 만든 은판들이다.(그림④) 처음에 이들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따로 따로 벌려 놓으며 전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연접하여 전시하라고 의견을 냈더니 지금은 연접하여 전시하고 있다. 그 까닭은 육각형 모서리마다 물 水를 새기고 금을 칠했는데 연접하여 놓으면, 물 水자 세 개를 합친 글자가 된다. 그 글자를 옥편에서 찾아보면 淼(묘)자가 되며 그 의미는 "수면(水面)이 아득하여 넓은 모양"을 의미하니 바로 '바다'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나무 木자 셋을 합치면 森(삼:숲)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목조로 지은 궁전에 화마(火魔)가 덮치면 바닷물로 그 무서운 화마를 진압할 수밖에 없다. 사진은 내가 모든 은판을 연접하여 촬영한 것이다.

조형미술의 모든 장르, 조각-건축-회화-단청-건축-복식 등에는 육각무늬가 수없이 많다. 가장 중요한 조형이며 가장 중요한 상징을 띤 육각형이 연접하는 모양을 이제는 더 이상 귀갑문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 육각수문! 괜찮은 용어 같지만 좀 더 적당한 용어가 생각나면 주저 없이 말씀하여 주기 바란다. 귀갑문을 육각수문이라 부르면 세계의 무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늬의 문제가 쉽게 풀리고 조형미술의 차원이 드높아진다. 틀린 용어 바로잡기는 그 중요성이 역사를 바꿀 만큼 막중하므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용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① 일본 학자들이 귀갑문이라 부르고 안에 꽃이 있으면 花귀갑문이라 부른다. 둘 다 틀린 용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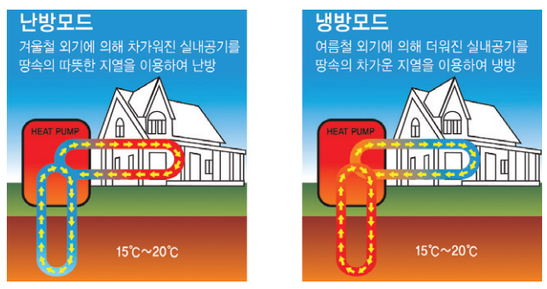
그림② 월광사 원랑선사탑비의 등 무늬



그림③ 가가미 신사 소장, 고려 수월관음도의 치마

그림④ 근정전에서 발견한 水자를 새긴 육각형 은판들

초절전형 슈퍼에너텍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지열히트펌프 냉 난방 기름값의 90% 절감
월난방비 40평 약 15만원(겨울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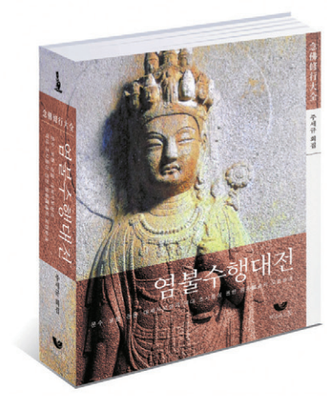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10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5,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성현과 범부가 함께 닦는 성불의 지름길!
"염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모든 법문을 뛰어넘는다!"
상중하 모든 근기가 두루 이익을 보고, 착수하기 쉽고 성공율 높으며, 힘 적게 들이고 효과 빠르며, 만 가지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는 수행법



제불보살과 역대 조사들이 권한 원통圓通의 묘법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회집
46배판 | 양장 | 2도 | 808쪽 | 38,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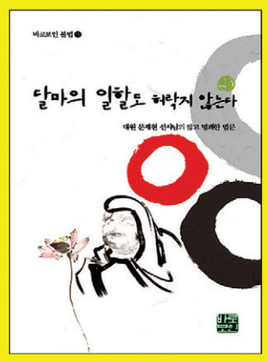
대승경전과 정토종 및 선종 조사의 염불법문 총망라
흥미진진하고도 상세한 주석으로 염불에 대한 확신과 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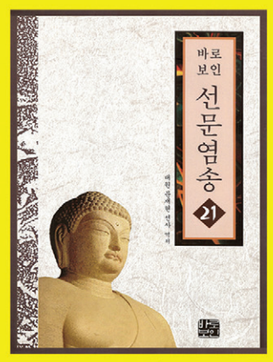
이 책은 '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보살님, 역대 고승, 거사님들의 말씀들을 모아서 해설하거나 주석(註釋)을 단, 무려 808쪽에 달하는 이른바 '벽돌책'이다. 염불, 그중에서도 주로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칭명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고승들의 고귀한 말씀들을 회집會集해 놓았다. 방대한 주석에는 살며 사랑하고, 염불하며 깨달아 가는 구도자들의 생활 속의 수행지침과 감동적인 예화, 역사적인 영험록이 가득하다.

출판 및 법공양(특별할인) 문의 02-2632-8739 | 비움과소통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

깨달음이란 바른 인식을 통해 실현된다

불교인식론

S.R Bhatt · Anu Mehrotra 지음
권서영 · 원철 · 유리 옮김 | 예문서원 펴냄 | 2만2천원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앎', 즉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인식론이다. 책은 논리와 지식의 본성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 즉 인식론 중에서 불교인식론을 다룬 것으로 불교인식론의 체계를 정립하고 집대성한 인도의 디그나가와 그의 제자 다르마키르티의 지식론을 분석했다.

인도의 철학자 S.R Bhatt가 지은 영역본 〈Buddhist Epistemology〉의 번역서인 책은 디그나가와 다르마키르티에 의해 확립된 불교인식론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분석서다.

인식론의 근간인 논리와 지식의 본성에 대한 탐구는 처음부터 불교 전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처님 당시부터 바른 지식은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기초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디그나가와 그의 제자 다르마키르티는 넓게는 중기 인도철학 전체에, 좁게는 인식론과 논리의 발전에 강력한 추동력이 되었다. 이들은 초기의 인식론 사상가들이었고 철학사상에 대한 이들의 공헌은 독특하고도 뚜렷한 것이었다. 이 둘은 인도철학에서 빛나는 별이었다. 따라서 다르마키르티에 이르러 정점을 이루는 디그나가의 공헌을 연구, 분석 그리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책은 형이상학과 가치론을 배경으로 하는 인식론 영역에서의 이들의 철학적 개념들을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쓰였다.

디그나가 · 다르마키르티 전통에서 마이트레야, 아상가,, 바수반두와 같은 선배 사상가들은 인식론을 불교적 방식으로 구성하려는 시도에 선구적으로 착수했다. 마이트레야는 실재와 앎의 방식의 본질을 자세하게 논의했다. 그는 불교학파들에서 논쟁술의 개조이다. 이어 아상가는 대체로 마이트레야를 따랐지만 논증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바수반두는 이 기획을 발전시키고 체계화시켰다. 하지만 불교인식론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독특한 성격을 부여한 사람은 바로 디그나가였다.

그는 논리의 형식적 체계와 특이한 언어 이론을 제출함으로써 인도 인식론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이론들 사이사이에 존재론적 문제들을 위치시켰고, 후에 존재론적 요건들을 견지하면서 구성되어야 함을 지적한 것이 바로 디그나가의 혁신적인 점이었다.

다르마키르티는 경량부, 유식 전통을 절충한 측면을 가

디그나가 · 디르마키르티 인식론 분석
중관 · 유식 중심 국내 불교인식론 탈피 기회

진 불교 사상가이다. 그는 아상가, 바수반두, 그리고 디그나가의 이론을 섭렵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고 있다. 그는 그의 저서 〈프라마나바르티카〉에서 부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다른 주장들과 함께 '일체지(一切智)'라는 불교 개념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지식과 본성, 기준, 그리고 수단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시하며, 찰나성과 흐름의 이론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불교의 근본적인 '연기' 개념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사성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탈의 본성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며, 유식학파의 중심 주제인 '유식' 이론의 논리적 토대를 제시하며, 업, 윤회 그리고 재생의 이론을 불교적 맥락에서 논의한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깨달음이란 바른 인식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그래서 바른 인식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불교인식론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른 인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각'이며, 또 하나는 '추리'이다. 지각은 언어나 분별적 사고의 매개 없이 대상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며, 추리는 언어나 분별적 사고의 매개를 통해 대상을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때의 지각 대상을 자상(自相)이라고 하고, 추리 대상을 공상(共相)이라 한다. 추리에는 자기를 위한 추리와 타인을 위한 추리가 있다. 전자는 논증인을 통해서 논증대상을 자신이 인식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라면, 타인을 위한 추리는 논증인을 통해서 인식한 논증대상을 언어를 매개로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본질로 한다.

지각, 추리, 자상, 공상 등은 불교인식론의 중요한 개념들인데 이러한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 불교인식론을 공부한다면 한결 쉬울 것이라고 책은 말한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쉽고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서론과 본론 3장 그리고 부록 1과 2로 구성되었다. 1장은 불교지식론, 2장은 불교지각론, 3장은 불교추리론이며 부록1은 디그나가의 논리학 개론서인 〈니야야프라베샤〉의 산스크리트어 원문이며, 부록 2는 부록 1의 영어 번역이다.

〈프라마나삼웃차야〉를 지은 디그나가는 논리의 형식적 체계와 특이한 언어 이론을 제출하여 불교인식론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확립한 선구적인 사상가이고, 다르마키르티는 나가르주나의 공(空) 사상뿐만 아니라 바수반두의 찰나멸 이론, 디그나가의 인식논리와 언어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불교인식논리학의 사유체계를 완성한 독보적인 존재다. 현재 국내 불교 연구 경향을 보면 중관사상과 유식사상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불교인식론에 대한 연구는 적은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이제까지 불교인식론에 대해 어렵게 생각한 독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쉽게 다가가는 한편, 불교 연구의 학문적 과제를 다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마음의 평안… '수행'이 답

대원만 수행 요결

직메최기왕뽀 지음 | 수다지 캔뽀 한역 | 지엄 편역
운주사 펴냄



어떻게 번뇌를 잠재우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인가? 인류는 문명 속에서 살아가게 된 이후로 늘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늘 누리면서도 늘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인류는 번뇌와 고민 등 정신적인 힘겨움을 감당해야 했고, 퇴적된 문명의 높이와 깊이만큼 정신적 평안은 더욱 얻기 힘든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번뇌를 잠재우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인가. 이에 티벳불교에서는 자기 마음을 밝히는 수행만이 번뇌의 불을 끄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은 티벳의 대표적 수행법의 하나인


티베트 라싸에 있는 포달라궁

'대원만(족첸) 수행'의 예비수행 지침서다. 수행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바로 깨칠 수 있는 마음의 요결서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책이다.

티벳의 고승들은 종파를 초월하여 〈대원만 수행 요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법은 불법에 정통하고 '발심'에 없어서는 안 되는 법이며, 티벳불교가 중요시하는 점차적 수행인 '보리도차제법'이기 때문이다.

'대원만'이라고 번역한 '족첸'은 대구경(大究境) 또는 궁극적 경지라는 의미로, 티벳불교를 최초로 정초한 빠드마삼바와(구루 린뽀체) 이래로 닝마빠(현존하는 티벳불교의 4대종파 중 하나. 티벳불교의 전전기 불교를 말한다.)에서는 물론, 타종파에서도 최고급 명상법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대원만 수행의 방법에는 예비수행과 본수행이 있는데, 책은 대원만 수행의 예비수행에 대해 닝마빠의 전승조사인 직메최기왕뽀가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논서다. 저자인 직메 최기왕뽀(뺄뛸 린뽀체 1808~1889)는 근대에 가장 유명한 닝마빠 전승조사이자 대성취자 중 한 명으로, 근본 스승인 직메 갤와 뉴규로부터 책에 수록된 대원만 예비수행법을 25차례나 배웠으며, 무문관 수행을 통해 실상의 대원만 경계를 체득했다.

책은 전체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에서는 '법을 듣는 방식'을 발심과 행위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발심은 법을 듣고 닦는 모든 순간에 항상 견지해야 하는 보리심의 마음을 내는 것이다. 행위는 끊어야 할 행위와 취해야 할 행위로 나누어 과실과 허물을 끊고, 육바라밀 등을 힘써 닦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공통의 외적 예비수행'을 인생난득, 수명무상, 윤회계의 결함, 인과불허, 해탈이익, 스승을 의지함이라는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3장 '공통되지 않은 내적 예비수행'은 성도의 기초가 되는 '귀의'와 대승으로 들어가는 '보리심', 악업의 장애를 청정케 하는 '금강살타 염송수행', 순연(順緣)의 자량(資糧)을 쌓는 만다라 공양과 단박에 네 가지 마(魔)를 끊어버리는 '자량 쌓기와 단법수행', 자기 마음속에 깨달음의 지혜를 일으키는 구경의 방편인 '상사유가(구루요가)' 등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특별한 수행법인 '왕생법(포와법)'을 세 가지 생각을 갖춘 왕생, 왕생 수행법, 왕생의궤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5장의 결론은 지금껏 설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하고, 게송을 통해 모든 중생이 이 수승한 〈대원만 수행 요경〉에 의지하여 해탈의 인(因)을 심기를 발원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대원만 수행 요결〉은 티벳불교 수행 전체를 구체적이고도 자상하게 다루고 있는 수행의 총 요결서라 하겠다 . 따라서 티벳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번뇌를 없애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책이라 하겠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3 ~ 3/19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4	마음 닦는 법	김재웅	용화
5	달라이 라마의 종교를 넘어	달라이 라마	김영사
6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7	받아들임	타라 브랙	불광출판사
8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9	진광불휘	유철주	담앤북스
10	중국불교의 거사들	김진무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불교 경전의 백미 법화경을 쉽게

가려뽑은 법화경 명구

탄경 세운 지음 | 미들하우스 펴냄 | 1천8백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 큰 비구 대중 1만2천 인과 함께 계셨으니, 그들은 모두 아라한이어서 이미 모든 새는 것(漏)이 다하여 다시 번뇌가 없고 스스로의 이익됨을 얻어 모든 맺힌 것(結)을 없애고 마음이 자재함을 얻었다." 법화경 서품 중에서다.

불교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전을 읽어야 한다. 하지만 경전을 읽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기만 한 일이 아니다. 〈법구경〉이나 〈현우경〉처럼 경전에 따라 전하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시구거나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가벼운 가르침을 설하는 경전도 있지만, 〈아함경〉이나 〈반야경〉 등 좀 더 교학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전들의 경우에는 그 안에 담겨진 사상만큼이나 등장하는 용어에서부터 인명과 지명, 고대 인도의 신화나 비유담 등 일정 정도의 기초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전들이 대부분이다. 책은 천태종의 소의경전인 〈법화경〉의 대표적인 문구들을 가려 뽑고 해설을 덧붙여 경전의 주요 가르침을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법화경은 예로부터 〈화엄경〉, 〈열반경〉과 함께 대승불교가 가장 수승한 사상을 전하고 있는 경전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법화경〉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일대사인연을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석가모니부처님은 아득한 옛날부터 성불해 있었고 쿠시나가라에서 반열반을 보이신 것은 중생제도를 위한 방편이었다는 구원실성(久遠實成)의 가르침을 펴고 있다.

〈법화경〉은 고대 인도인들의 취향에 따라 만들어진 일대서사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의 눈에는 장대하고 찬란하게 서술하려 한 의도가 지나쳐 일견 황망하기도 하고 반복이 많아 지루하기도 하다.

책은 법화경 사상의 핵심이 되는 대목들을 발췌하여 원문 그대로의 의미를 전하면서, 거기에 해설을 베풀어 법화경 전반의 맥락을 놓치지 않으면서 전체를 개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장인 '법화경을 읽기 위하여'에서는 불교 중흥기 사상적 배경에서부터 생애, 초기불교의 가르침, 대승불교의 등장, 법화경의 성립과정과 주요 사상들을 개설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법화경을 읽기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간략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아 좀 편안하게 경전을 시작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천하의 모든 성패(成敗), 이 원리에 따라 갈린다!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법칙-


"여기 그간의 광범위하고 면밀한 조사 연구의 결론으로, 전체를 10개 영역으로 대별해 각 영역별 성공법칙들을 제시한다.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이자 위력적인 이 전략들은, 때로 폐부를 찔리는 아픔일 이 일침들은 당신을 강한 전사(戰士)로, 지혜로운 책사(策士)로 거듭나게 할 것이며 마침내 뜻한 바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한국인재경영연구회 편/ 신국판/ 전10권/ 총3,600여쪽/
할인보급가 99,000원(정가 138,000원)
▶인간관계 : 반대자는 곧 협력자다 외 ▶창조력 : 아이디어맨들이 갖는 공통점 외
▶자기계발 : 완벽주의자는 위험하다 외 ▶행동력 : 문제는 많지만 세 가지 밖에는 없다 외
▶대화의 기술 : '알았대!'는 말의 의미 외 ▶관리력 : 어떻게 무엇을 꾸짖을 것인가 외
▶기획력 : 기획을 망치는 감정이입 외 ▶인간의 매력 : 가장 큰 약점, 허영 외
▶리더십 : 리더십과 통솔력의 차이 외 ▶사업성공 : 장사가 즘처럼 궤도에 오르지 않을 때 외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
본 시리즈는 직장인 직무능력계발을 위한 학습도서로 선정되어 독서통신교육 교재로 사용되고 있음.
"사람에 대한 명징한 이해 그리고 사람 간에 작동되는 상호 매커니즘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부터 허를 찌르는 기발한 역발상에 이르기까지 읽으면서 줄곧 몰라 놓쳤던 것에 대한 아픈 자각과 함께 섬광처럼 번뜩이는 힌트를 만나게 된다" -전형찬(누리기획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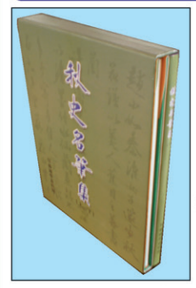
대부분의 병(病), 의외로 치료가 쉽습니다!
익생양술대전(益生養術大全)
-천연의약요법전서-

어쩌면 밟고 지나쳤을 그러나
현대의학의 방향을 틀게 한 경이로운 가치가 숨어있는
이 땅의 각종 약초들을 명쾌히 총괄 도감화 했으며
이를 활용한 질병별 처방 및 약성에 따른 응용법 등
전통의약요법 5천년 정수를 총정리,
실용화를 꾀해 집대성함으로써
장구한 세월의 터득과 임상으로 얻은 양질의 천연의술을
누구나 가정에서 손쉽게 활용토록 한
명실공한 자가진단치료 시대를 개막시킬 기념비적 위업!
권혁세 저/ 전3권/ 4×6배판/ 양장본/ 3,600쪽/
할인보급가 24만원(정가 40만원)/ 신용카드 및 현금 분할도 가능
▶1권 약초 편: 1천 종류 약초를 총괄 도해화, 폭넓은 이해를 돕는 본초학도감으로 꾸밈.
▶2권 처방 편: 1천여 각 질병의 원인 증상 설명과 함께 전통민간요법 사상 최고의 처방(22,600여 단방)을 약재별로 제시, 택해 쓰도록 함.
▶3권 조제 편: 당대의 명의(名醫)를 위시, 민가 · 사찰 등에 전수 발전되어온 각종 주침(약술) · 탕전 · 약차 · 식이 요법 등 2,600여 응용치유법 망라.
♦자연과 전통에서 찾아낸 쉽고도 가장 완전한 처방전♦
"현대판 동의보감 익생양술이 나왔다" -중앙일보-
"토종약초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을 담고 있다" -한방과 건강-
"무병장수를 향한 수천 년 지혜와 연구 노력의 집약판" -한국의약신문-
"건강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일간스포츠-
"명약이 꼭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님을 전통민간요법은 증명하고 있다" -권혁세(저자)-

사람아! 벗어날 수 없는 이 엄혹한 필연을 어찌할 건가.
업(業)

나(我),
결과이자 반드시 원인.
그 섭리
인과(因果)윤회 이야기!
1. 전생인연의 비밀 6. 영혼의 목소리
2. 사후세계의 비밀 7. 전생이야기
3. 심령치료의 기적 8. 빙의령이야기
4. 내가 본 저승세계 9. 살아있는 조상령들
5. 영계에서 온 편지
지자경 외 저/ 전9권/ 신국판/ 총 3,000여쪽/ 할인보급가 97,000원(정가 121,500원)
불(佛)의 세계

생생히 묘사된 업고(業苦)에 혹자는
전율할 것이며 뼈저린 각성을 하게 될 것!
그림(佛畵)을 통한 강렬하고
즉발적인 깨우침을 겨냥한 기획!
사바의 미몽을 깨우는 불가 교리를
대중 친화적으로 도해(圖解)해낸 역저!!
1. 제불(諸佛·관음 고승) 편/ 2. 지옥도 편/ 3. 탕카(탱화) 편/
손기창 외 편/ 전3권/ 국배판/ 양장본/ 올컬러/ 할인보급가 22만원(정가 65만원)
가장 해박했던 정신이 닿은 불교적 사유(思惟)와 성찰의 정점!
불교명저

1. 불교란 무엇인가
2. 선이란 무엇인가
3. 부처는 누구인가
4. 관음이란 누구인가
5. 반야심경은 살아있다
6. 선방야화
7. 윤회전생
8. 반야의 문
9.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10. 부처님의 위대한 열반
일붕 서경보 저/ 전10권/ 신국판/ 총 4,500쪽/ 할인보급가 175,000원(정가 250,000원)
서(書)로 도(道)를 이루려한 치열했던 구도자 김정희, 서화사에 가장 우뚝한 분수령 추사 미학의 절창(絶唱)!
추사명필집(秋史名筆集)

"투박한 듯 날렵 경쾌하며
섬세 치밀한 듯 질풍노도인
추사의 그 도저한 경지를
어찌 말로 형언할 수 있겠는가"
한국학자료원 편/ 전2권/ 대형판형/ 양장본/ 할인보급가 13만원(정가 70만원)
◈ 전화하시면 우송해 드리며 대금은 수령후 송금하시면 됨. 문의전화 02-2618-0700, 070-8811-5775 학술편수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여기'



내마음 아프지 않게 남의 마음 다치지 않게

프라유키 나라테보 지음
장은주 옮김
예담 펴냄 | 1만3천원

한없이 슬픈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경제도 예전보다 힘들고 앞으로의 날들도 그리 희망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력하게 회사를 다니고 매일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는 중에 사람들은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줄 사람, 마음 아프다고 말할 사람도 없어 혼자서만 고민하고 눈물짓는다.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부끄럽고 마음이 아픈 건지 슬픈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TV에서도 SNS에서도 매일마다 힐링을 이야기하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것만 같다. 다들 힘드니까 그냥 참고 살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때로는 지쳐 쓰러지기도 한다. 자신도 모르게 극단적인 유혹에 흔들리기도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2010년, 한국) 4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한다. 어느 누가 따뜻한 위로 한마디만 해줬어도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마지막 순간 그들에게 손내밀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태국 방콕서 동북쪽으로 35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 깊은 숲속에 작은 절이 하나 있다. 그곳에는 어느 누가 찾아가도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마음 아픈 이들을 맞아주는 스님이다. 이 작은 절에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 비행기 타고 와 스님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 지금까지 1천명 정도가 스님을 찾아왔다.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던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온갖 마음의 병들이 유키 스님을 만나 치유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게 소문이나 자꾸만 이 깊은 숲속으로 사람들이 찾아온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스님의 미소는 한 번도 아픈 마음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처를 온화하게 보듬어준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혀 생긴 멍든 마음을 유키 스님은 어떻게 보살펴주는 걸까?

이유를 알 수 없이 마음이 아픈 사람,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괴로워하는 사람,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 시도를 수차례 한 사람, 직장서의 불화 때문에 힘든 사람, 말 때문에 상처 받아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사람, 한 번도 현재가 즐거웠던 적이 없는 사람 등등 각자 처한 상황이 각양각색이다.

이렇게 다양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스님은 단순하고 조용한 대화로 천천히 어루만져준다. 그들이 며칠 동안 작은 절에 머무르며 스님과 풀어냈던 대화, 그리고 마음이 충만해지는 명상의 시간이 이 책에 고스란히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도록,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날이 되도록 스님은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지혜를 하나하나 알려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팍팍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아픈 마음을 이 숲속에 묻어두고 떠나간다. 다시 돌아간 그곳의 문제점은 그대로일지라도 달라진 마음으로, 달라진 관점으로 바라보는 일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저자와 대화하러 1천여명 찾아와
모든 사물 있는 그대로 보라고 조언
'이 순간' 에 집중하는 것 행복 비결

모습이다. 오히려 괴로운 일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 스님이 건넨 치유의 선물 덕분에 사람들은 막다른 길에서 새 희망을 찾아 돌아간다.

스님과의 대화는 어려운 종교 이야기도 아니고, 심오한 불법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다.

예를 들면 스님은 '내면적인 행복' 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번뇌와 세간의 소문에 농락당하지 않고 언제나 맑은 마음으로 있어라.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아, 넓고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고 타인의 번영을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을 갖는다."

스님이 전하는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는 모두들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지혜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순간' 에 집중하면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그때 그때의 인연과 관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스님은 이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독여준다. 그동안 숱한 아픔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제대로 살지 못했던 날들을 돌아보며 이 책을 읽어보자. 당신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 없이, 혹은 상대에게 상처 주고 괴로움 주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이 바로 이 책에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프라유키 나라테보 스님은?

대학 대학원에 유학하였다. 1988년, 유명한 명상 지도자인 루안포 카무키안에게 영향을 받아 출가했다. 이후 농촌을 위한 물심양면의 행복을 지향하는 개발승(자기의 수행에 더해 사람들의 정신수양이나 마을 개발에 힘을 다하는 승려의 총칭)으로 활동하는 한편, 일본과 타이를 잇는 가교로 활약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마음이나 신체의 병을 앓거나, 진정한 자신을 바라보고 싶다며 스카토사를 방문하는 일본인이 늘자, 부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하고 있다.

중국 불교 형성 과정에 거사들 큰 영향 미쳐

중국불교의 거사들

김진무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5천원



거사는 일반적으로 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경·율이나 중국에서 찬술된 전적에 '거사' 는 남성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여거사(女居士)' 라는 표현도 있다. 따라서 '거사' 의 개념을 설정한다면 남녀 양성을 모두 포괄해야 할 것이다.

중국 남경대 철학과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절강성 항주의 절강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서 겸임교수로 재직중인 김진무 박사(前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부교수)는 오랫동안 중국불교를 꽃피웠던 주역인 중국불교의 거사들을 연구해 왔다. 이번에 펴낸 책 〈중국불교의 거사들〉은 바로 그 결과물의 집합체다. 이 책은 한마디로 대표적인 중국불교 거사들의 삶과 사상을 통해 그들이 중국 불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밝힌 것이다.

서한을 계승한 동한의 황실에서는 새 통치사상을 찾고자 다양한 사상들이 모색됐다. 그것은 진의 법가, 서한 초의 황로학과 유학이 모두 한계를 노정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점차 중국에 전파되기 시작한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됐다. 또한 불교의 교의가 대제국의 통치에 적합한 사상적 내용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음을 빠르게 파악했던 것이다.

1백여 년의 준비작업을 거쳐 드디어 황실에서는 본격적으로 불교를 민중에 '이식'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그 표지가 바로 안세고와 지루가참의 역경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민중이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이 존재해야만 이른바 '이식'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불교는 그 초전의 상황부터 철저하게 '경세' 의 필요에 의해 수용된 것이고, 이러한 성격은 전체적인 중국불교사를 통해 견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식' 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어 불교는 오늘날까지 대다수의 중국민중이 깊이 신앙하는 대종교의 면모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중국불교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뛰어난 고승대덕들의 활약이 두드러지지만, 그에 못지않게 재가 거사들의 역할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절대권력을 가진 황권에서는 교의의 발전보다는 '경세'의 유용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고,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진 이들이 바로 '거사' 들이기 때문이다.

먼저 서론에서는 '거사' 개념 및 거사불교 관련 자료 정리들을 정리하고 나서 중국의 거사불교가 담당해 온 역할들을 호법활동, 사찰 건립과 유지 보수 등 재물 보시, 교학 활동 등으로 분류해 설명했다. 이어서 총 7장으로 구성된 본문은 구체적인 거사들의 행적과 사상, 역할을 통해 중국 거사들의 불교인생과 거사불교 역사를 고찰하고 있다.

본문 중 특히 제 3장에서는 수·당대에 활동한 쟁쟁한 거사들을 당시 불교계의 역동적인 상황과 연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양대 황제보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수 문제의 불교정책과 불교사상의 통일작업, 유불도 삼교정립에 크게 기여한 이사겸과 왕통의 사상, 최초의 불교역사서이자 목록서인 〈역대삼보기〉를 편찬한 비장방, 가장 전형적인 호법

중국 거사들 행적과 사상 조명
거사 불교의 역사까지도 고찰

논서를 펴낸 이사정, 〈신화엄경론〉을 저술해 거사로서 새 교의를 제창해 중국과 한국의 선종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이통현 등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제 4장에서는 오대십국과 송나라 때 활동한 거사로 〈호법론〉을 저술해 거사들의 책임을 강조했던 장상영, 〈용서정토문〉을 지어 기존의 선불교적인 유심정토로부터 서방정토로의 전환을 확립한 왕일휴 등을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제5장에서는 송대 이학가들의 배불론에 반박해 화엄의 원융사상에 입각한 삼교일치를 주창했던 〈명도집설〉의 저자 이순보, 조동선풍을 밝힌 〈종용록〉 편찬에 공헌했던 야율초재가, 제 6장에서는 명·청대의 거사들을 다뤘다. 희대의 기승이자 거사인 도연 요광효, 거사불교의 부흥 계기를 마련한 이탁오, 조사선을 선양하다가 정토로 귀의한 원굉도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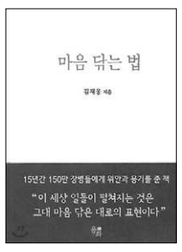
특히 이 책은 중국불교사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으나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온 거사들의 삶과 행적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김주일 기자

〈금강경〉서 가려 뽑은 마음 닦는 법

마음닦는 법

김재웅 지음 | 용화 펴냄 | 9500원



"모든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나 잘 살 원인을 지어야 한다. 부단히 복 짓기를 원세우고 실행이 이어지면 자기의 복그릇이 커진다. 또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복이 된다. 돈을 헤프게 쓰면 돈의 신(神)이 나간다. 음식도, 전기도 무엇이든 중하게 여겨 절약하는 마음에 복이 온다. 복은 누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어야 하고, 지은 만큼 받을 뿐이다."

40년째 불교신행단체인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를 이끌고 있는 김재웅 법사가 마음을 닦아야 하는 이유와 닦는법에 대해 말한 책이다.

1998년부터 비매품 책자로 군부대에 보급돼 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입소문으로 퍼져 계속되는 독자들의 요청에 의해 이번에 판매용 책자로 정식 출간된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나 격분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까? 입을 통해, 행동을 통해 실행하는 육신은 어떻게 다스릴까? 일어나는 마음을 참고 자제하고 견디고 하심하고 바치면 길이 보일 것이라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이런 수행이 생활 속에서 이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이 생을 다 살고 떠날 때 한 장의 성적표를 남기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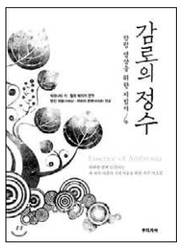
기록 내용은 죄 지은 것, 선행하고 복 지은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 등등이다. 이처럼 이 책은 저자가 대중들에게 강조 했던 〈금강경〉 강의 중에서 뽑은 것이다.

이번 판에서는 김 법사의 법문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유산에서 뽑은 아름다운 그림과 디자인이 더해졌다. 또한 〈법구경〉, 〈채근담〉, 〈명심보감〉, 세종대왕과 원효대사의 어록에서 뽑은 '성현의 말씀' 을 부록으로 추가 하였다. 작은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쉽고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크기도 작게 만들었다. 김주일 기자

행복 원한다면 명상을 하라

감로의 정수

따라나타 지음 | 석혜능, 허정훈 번역
부다가야 펴냄 | 1만4천원



현대인의 화두는 행복이다. 수많은 종교와 사상, 문화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현대인은 혼돈과 고뇌의 삶 속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극심한 아픔을 겪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명상을 권한다. 명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명상은 부처님이 현대인에게 주는 최상의 힐링 프로그램이므로 혼탁한 고뇌의 소용돌이로부터 해방 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깨달음을 구하는 티베트의 수행자가 구전으로 전한 명상법의 정수이다.

특히 정수는 티베트의 고승들이 전한 람림수행의 정수이다. 깨달음은 누구나 다다를 수 있다. 결심만 한다면 체계적으로 닦을 수 있다. 이 책은 근기에 따라 명상하는 법을 망라하고 있다. 명상법을 잘 몰라 아쉬웠던 독자나, 수행자도 간단하고 쉽게 명상할 수 있다.

람림수행의 동기는 3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낮은단계는 이세상과 다음생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수준이다. 이들은 사물과 사람의 무상함, 사람으로 태어난 기회의 소중함, 윤회세계의 중생들의 고통, 삼귀의, 업이론등에 대하여 명상하는 것이 좋다고 소개한다. 이어

중간단계 수준의 이들은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 수행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은 고, 집, 멸, 도라는 사성제에 대한 명상, 모든것이 조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십이연기법, 해탈로 이끄는 길인 계율 및 선정과 지혜를 닦는다.

마지막은 수승한 높은단계다. 모든중생이 윤회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 나와남의 입장을 바꾸기, 육바라밀을 닦는 것으로 수행한다. 김주일 기자

큰스님들과 불자 어르신들의 여법한 회향을 위한
'부처님 마을(실버타운형)' 개원

(사)금조선원은 도심 속 명산 명당터에 금조선원을
창건하고 여생을 회향하실 큰스님들과
불자 어르신들을 귀한 인연으로 모십니다.

위 치 : 분당 정자역 7분, 서울에서 30분 거리 (분당 태재고개)
운 영 : 약간의 시주금으로 종신제 운영
규 모 : 큰스님 15실 (1인 1실, 2인 1실 선택) /
불자 어르신 21실 (55세 이상 독신남녀 및 2인가족)
시 설 : 법당, 체육공간, 소극장, 문화예술전시실, 산책로, 텃밭 등
의 료 : 서울, 분당지역 병원과 협력진료시스템 구성으로
순회진료 및 관리
교 통 : 선원 자체차량을 언제든 이용 가능

※ 스님들의 포교원력은 그대로 (스님요양 특전)
1. 세수가 원만하심에도 포교의 원력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종합법당 친견실을 제공하여 신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대웅전, 문화전시실, 소극장 자유롭게 사용가능)
2. 원하시는 식생활 보장으로 개인 정진에 불편이 없습니다.
3. 일정액 시주금을 개인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4. 고승대덕스님들이 인정한 연화만개지상터 명당이며 도심과 거리가 가까워 신도 및 도반들을 손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금조선원 부처님 마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103-1 (분당 태재고개)
전화 031)713-4085 / 010-6440-4085(원장 直)

범주스님 선묵화 교실

선(禪)예술 문화원 서울 지부
제1기 회원모집

선묵화를 생활 속의 수행 방법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열린 공간

교육 내용
매월 2회 범주스님 직접 지도
1. 불교의 핵심 강의
2.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명상
3. 체계적인 선묵화 수련

교육 안내
1. 기간 1년 (각1회 수련 3시간)
2. 매월 첫째, 세째주 수요일

입회 문의처 : Tel.(054) 535-0378

선(禪)예술 문화원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모집중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⑥ 선학원 설립 배경, 사찰령 공포

한국불교 전통 '황폐화' 시킨 만행

1921년 5월 15일 서울 간동포교당(諫洞布教堂), 만공은 보살계 계단이 마련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조선(朝鮮) 중들은 자꾸만 일본(日本) 중처럼 변질이 돼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진실로 불조(佛祖) 정맥을 계승하려는 납자(衲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린 사찰령과는 관계가 없는, 순전히 조선 사람끼리만 운영을 하는 선방(禪房)을 하나 따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회의를 부치게 된 거올시다.

사찰령이 공포된 지 10년 후의 일이다. 사찰령은 조선불교를 일본불교와 합병시킨 조동종맹약과 함께 한국불교의 정통성이나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린 또 다른 내선일체(內鮮一體)였다.

정광호는 "선학원이라는 명칭이 ○○사(寺)나 ○○암(庵)이 아닌 일반 명칭 대신 막연하게 '선학원(禪學院)' 이라는 위장 칭호를 쓰게 된 것도 만공이 지적한 것처럼 처음부터 일제의 종교정책과 왜색승(倭色僧)에의 오염을 철저하게 경계한 결과였다"고 하였다.

선우공제회(禪友共濟會) 창설이나 재단법인 설립, 그리고 '조선불교 선종' 의 창종(創宗)의 배경에서도 만공의 지적과 일맥상통함을 엿볼 수 있다. 오늘날 선학원을 두고 '민족불교의 성지(聖地)' 라고 명명한 배경도 일개 종단이나 일부 스님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한국불교의 독자성과 그 존립을 자각한 결과다.

1911년 6월 3일 조선총독부는 전문 7개조로 구성된 사찰령(寺刹令)을 공포하고, 동년(同年) 7월 8일에는 전문 8개조의 그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사찰령 제3조에 의해 사법(寺法)이 나왔다. 사법은 사찰 운영세칙으로서 총칙(總則)·사격(寺格)·주지(住持)·직사(直司)·회계(會計)·재산(財產)·법식(法式)·승규(僧規)·포교(布教)·포상(褒賞)·징계(懲戒)·섭중(攝衆)·잡칙(雜則) 등과 같은 골격을 구성하고 있다.

사법은 조선총독부 종교과 주임이었던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가 일본의 승정(僧政)의 사례를 참작하면서 식민지에 맞도록 초안을 만든 다음, 이를 다시 본산주지로 하여금 작성 제출케 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었다. 1911년 9월 18일 총독부의 정무총감이 관통첩 270호로 보낸 통첩에는 사찰령 공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본년(1911) 6월 제령(制令) 7호로써 사찰령을 제정 공포케 함은 조선사찰의 훼폐(毁廢)를 막고 그 유지와 존속을 보존하기 위하여 상당히 법령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그동안 탄압과 소외로 일관되어 온 한국의 사찰과 승려들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인을 순량화(純良化)하기 위해 시세(時勢)에 조화로운 포교와 사찰령을 성실히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1916년 1월 3일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역시 당시 30본산 연합사무소의 대표 스님들을 불러 한국불교의 제반시책에 대해 지시하는 자리에서 "조선은 특히 임제종맥(臨濟宗脈)으로서 태고(太古) 이후 5백년을 통일된 종파로 전수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총독은 극히 가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국불교가 지닌 정통성과 독자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종교가 국가권력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했던 일본불교의 또 다른 속성이 담겨있었다. 요컨대 제국(帝國) 혹은 동양평화를 위해 한국불교가 분투노력하라는 의미로 한국인이 충실한 일본의 신민으로 살아가게끔 한국불교가 앞장서야한다는 것이 사찰령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1911년 공포 자주권 박탈
본말사법으로 일제통제
주지의 전횡 토대 만들어
산중공의제 말살의 원인
1926년 승려 '대처식육' 인가

"조선 사람의 선방 만들자"
한국불교 존립 자각의 계기
선학원 설립으로 이어져

사찰령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찰을 병합 이전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둘째, 사찰 터와 가람은 지방장관의 허가 없이 전법(傳法)·포교(布教)·법요(法要) 집행과 승려의 거주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총독과 지방장관의 허가 없이는 일체의 수행과 포교, 의식거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셋째, 사찰의 본말(本末)관계, 승규(僧規), 법식(法式) 등의 사법(寺法)을 각 본사(本寺)에서 제정하도록 했고, 또한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했다. 한국불교를 본말사법(本末寺法)에 의거하여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고, 사찰의 자주권을 박탈한 것이었다.

넷째, 사찰의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며, 그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하며, 사찰의 행정과 법요(法要)를 책임진다고 했다. 결국 주지제도를 통해 사찰의 재산과 종교 활동을 통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섯째, 각 사찰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土地)·산림(山林)·건물(建物)·불상(佛像)·석물(石物)·고문서(古文書)·고서화(古書畵) 등의 귀중품을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것은 한국사찰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였다.

나머지는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이다. 지금까지도 문화재 약탈과 반환문제가 한일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찰령의 공포와 시행으로 한국불교는 양법미제(良法美制)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조선총독부의 충직한 주구(走狗)가 되었다.

흔히 일제강점기의 한국불교를 '주지전횡시대(住持專橫時代)' 라고들 한다. 사찰행정의 기본 주체인 주지를 관권(官權)으로 임면(任免)하였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본사 주지의 임명과 해임의 승인권을 조선총독이 장악하고, 말사주지의 임명과 해임의 승인권은 지방의 도장관이 행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주지는 관권을 배경으로 사찰의 온갖 실권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한국불교의 산중공의제도(山中公議制度)를 없애버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과거 조선의 승가규범(僧家規範)에는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일에 관련된 사항과 일의 계획과 진행과정을 판단해 처리하는 영판법회(營辦法會), 기타 일체의 사무를 주관하는 승려가 있어 사중집회(寺中集會)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에야 집행하였다. 이를 곧 원융산림(圓融山林)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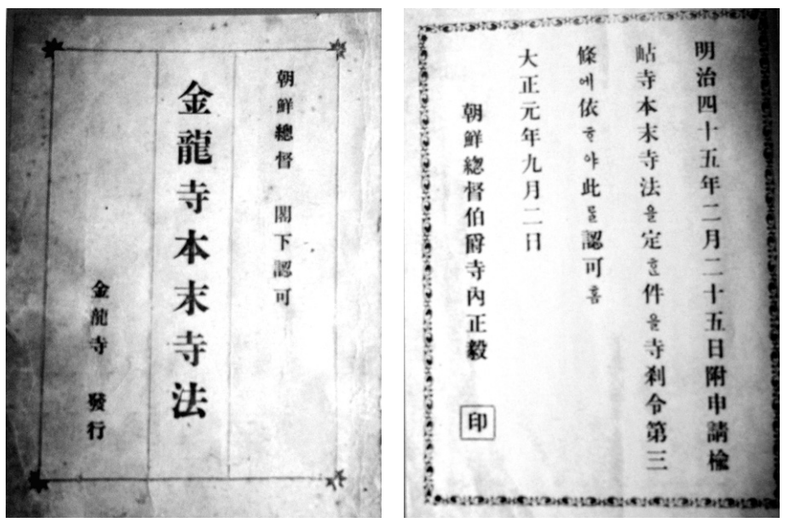

사찰령 반포 이후 폐해는 건봉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당시 건봉사는 신흥사, 백담사, 낙산사를 관할했다. 하지만 호국사찰의 상징인 건봉사를 일본풍의 절집으로 바꾸었다. 현재 십바라밀석주, 日자형 연못인 연지 등은 이때의 잔재다.

이능화가 규정한 공의제도의 개념이다. 이 지극히 민주적인제도가 점차 빛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능화는 주지전횡제도의 폐해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예컨대 옛부터 기도불사(祈禱佛事)가 끊이지 않았던 양주의 자재암(自在庵)이 당시에는 절이 빈한하여 겨우 유지되었는데, 시주하고 도우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시주물이 주지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 사중의 공용(公用)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본산 주지급의 호사(豪奢)는 5천석 지주(地主)부럽지 않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한편 당시 사법에는 "대처식육(帶妻食肉)하는 자에게는 비구계(比丘戒)를 불허(不許)(사법 58조)"하며, "처자를 사찰 안에 살게 하거나 여인을 절 안에 살게 한 자는 근신의 징계에 처한다(사법 85조)"고 하였다. 사찰령에도 "비구계를 갖춘 자만이 본말사의 주지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처자를 데리고 있는 자는 비구가 될 수도 없고, 사암(寺庵)의 주지가 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주지의 권한이 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타락한 주지들이 나타났고, 총독부에 대처식육을 인가해달라는 청원이 줄을 이었다.

총독부는 당장 인가하지는 않았지만, 급기야 1926년 10월 승려의 대처식육을 인정했다.


朝鮮總督 閣下認可
金龍寺本末寺法
金龍寺 發行

明治四十五年二月二十五日附申請檢
帖寺本末寺法을定ᄒᆞᆫ件을寺刹令第三
條에依ᄒᆞ야此를認可喜
大正元年九月二日
朝鮮總督伯爵寺內正毅 印

1911년 공포한 사찰령에 기초하여 조선총독부가 제정하고 인가한 김용사본말사법 표지〈사진 왼쪽〉와 유점사본말사법의 문건〈사진 오른쪽〉이다.

이에 대해 훗날 선학원의 설립조사인 백용성과 김남전을 비롯한 127명의 선승(禪僧)들은 전국 승려의 수도생활과 불교의 장래를 위해 취처식육(娶妻食肉)하는 등 계를 범하는 생활을 금지해 달라고 종독부에 연서하여 진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진정서에서 "오늘 출가대중으로서 청정한 사원에서 아내를 거느리고 고기를 먹으며 자녀를 키워 도량을 더럽히고 참선과 염불과 강당을 전폐(全閉)케 함은 불가(佛家)의 대적(大賊)이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찰령의 공포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키고 황폐화시켰던 만행이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오늘날에도 그 망령이 남아있어 한국불교가 지닌 정체성을 저해하고, 불교 본연의 정신을 온전히 실천하는데 근원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성지관음회에서 직접 스님들께만 알려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신도확보 및 불사에
큰 도움이 될 수있는 새롭고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스님들만 필요하신 방법이며,
스님들만 사찰에서 시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도들에게 바로 적용하시면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시대에 맞는 새롭고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주십시요.
안내책자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212회
3000배 용맹정진

정수리 ~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용천혈 챠크라를 열어주어 우주 태양의 氣를 받고
지구 땅의 기운을 모아 자동으로 수승화강!
완전 웰빙 심신건강 예방
숨통을 뚫어드려 가슴 시원, 숨 고요, 마음 고요
진짜 힐링 만병통치유 완벽한 절수행

◈날 짜 : 3월 30일(토) 저녁 9시 ~
3월 31일 아침 7시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수련복,기도포,수건)
◈장 소 : 법왕정사 울산 언양법당
KTX울산역3분, 서·울산IC3분, 언양버스터미널1분

홈페이지 : www.법왕정사.net

☎ 052)254-7768 / 010.3487.0035

※청견스님의 용체佛자 붓글씨+다보탑 황금카드+흑단염주+예불예경 선물

설법·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 합 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연수안내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지도교수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김철회 박사 직접 지도

• 회장 김철회 박사
• 원장 처 명(선광)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하는가

카루나 케이턴 (심리치료사 · 미국)

〈4〉 '나'를 놓아야 자유롭다

"이름 붙일 '나' 없어…배역 따라 연기 할 뿐"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 현실을 잘못 인식해 고통을 받는다고 말한다. 마음 오작동이 생각과 정서, 관념을 현실인 것처럼 여기게 해서 삶의 현실, 진짜 경험을 놓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아에 대한 개념, 모든 정서나 욕망의 중심에 있는 '나'에 대한 관념도 한 몫한다. 바로 "내가 느끼기엔…" "내가 원하는 건…" 할 때의 그 '나' 말이다. 달리 말하자면 나에 대한 일상적 인식이 틀렸으며,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편한 정서로부터 놓여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자아가 '거짓' 이라는 불교의 견해에 현대인 대부분이 당황해 하고 위협마저 느낀다. 도대체 자아가 거짓이라면 우리는 무엇이고, 누구일까? 답은 명백하다.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거나, 자아 또는 정체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핵심은 자아가 보이는 대로, 우리가 믿는 방식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불교에서는 자아가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 가장 큰 가치를 둔다. 이로써 지혜가 구현되고, 지혜야말로 불편한 정서와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해독할 열쇠다. 지혜를 완전히 구현하면 모든 왜곡이 떨어져 나가는, 소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데, 나는 이것이 '정신건강'을 돌려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거짓 자아의 초상

우리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그걸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이 믿음과 마주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공고하게 실재로서 존재하며, 독립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믿는 '나'는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유령이다. 이 유령을 실체로 보면,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끊임없이 혼란이 일어난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누군가 존재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험을 경험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니."라고 말한다. 경험하는 존재는 있다. 다만 그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여러분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려 한다. "나는 아이스크림이 좋아." "나 너한테 화났으니까 얘기 좀 해."라고 말할 때 과연 이 '나'는 누구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말로 자신을 가리키지만, 그 '나'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의 의식이 어디에 있는지 가리킬 수 있을까? '나'는 코, 얼굴, 다리, 뇌 등으로 이뤄진 내 신체인가? 하지만 팔이나 다리를 잃어도 '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저건 바위야." "친구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어." "내 이름은 스티브야." 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감각의 인식을 '정신적 산물'로 돌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울에 비친 모습, 혹은 마음에 구름처럼 떠다니는 생각일 뿐이다. '자아'라는 건 이름표를 달기 전 또는 이름을 붙이기 전 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아'는 철저히 상대적이며, 만들어지는 것이고, 수많은 요소에 의존한다. 그런데도 마치 독립적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우리의 무지, 혼란, 습관에 장악돼 있을 때 조차, 우리를 책임지는 대장이나 상관처럼 행동한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지혜의 큰 부분을 아는 셈이다.

타고난 진짜 '자아'가 있어 우리가 우리 자신이게 하는 거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자아를 끊임없이 '연기'하며 영구적이게 만드는 것이 된다. '자아'가 고유한 실체라고 믿으면, 오감으로 받아들인 모든 인식, 생각과 관념이 이 믿음에 힘을 보탠다. 모든 생각과 관념이 "나는…"으로 시작하니깐 말이다. 이런 각인된 생각은 절대로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적극 해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되며 점점 더 굳어질 뿐이다.

△사업을 벌였다가 돈을 잃고, 자신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돈을 버는 데는 젬병이라고 되뇌는 것 △학교 성적이 낮거나 인사고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간단히 "나는 멍청해" 라고 치부하는 것 △관계에 실패한 뒤, 자신이 비호감이라거나 "결혼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버리는 등 우리는 한 가지 경험을 '성격'으로 일반화해버린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거치면서, 대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더욱 굳힌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테두리를 쳐가며 만든 '이야기'에 맞춰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실패로, 혹은 자기 파괴적 습관으로 이끌 때조차 그렇다. 손을 쓰지 않는다면 끝나지 않을 악순환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불편한 정서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규정해버린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지가 우리를 속여 불편한 정서가 곧 '나'라고 믿게 하기 때문이다.

'나'의 수많은 역할

배우 톰 행크스는 자신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존 밀러 대위나 '포레스트 검프'의 포레스트 검프가 아님을 안다. 그러나 그가 좋은 배우로 평가받는 것은 이 역할들을 아주 잘 연기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톰 행크스처럼 여러 배역을 연기한다.

그러나 자신이 연기 중이라는 걸 아는 톰 행크스와 달리, 우리는 자신이 끊임없이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역할들은 잠깐 지나는 상대적인 것이며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일 뿐, 절대적인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역할이 곧 나라고 생각한다. 어떤 때는 관객을 위해 연기하고 있음을 자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역할은 다른 역할보다 좀 더 편안하고 성공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좋은' 배우가 된다 해서 모든 관계에서,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에서조차 우리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 무지에 싸여,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대본에 쓰인 대로 연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삶을 통제하지 못하며, 역할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상호의존적 세상 깨달으면
삶이 더 따뜻하고 행복해져

마음, 욕망 중심에 있을때 오작동
지혜는 '불편한 정서' 해독 열쇠

그런데 불교 심리학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지적한다. '톰 행크스' 자체가 하나의 배역일 뿐이라는 것이다. 분장을 지우고 세트장을 떠나면, 영화 속 역할을 떠나 실제 세상의 역할, 배우이자 부모, 아들 등으로 옮겨 간다는 것이다. 다양한 역할 밑바닥에 있는 '진짜' 사람을 찾으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불교에서는 '진짜 자아'에 이름을 붙이려는 순간 실패하게 된다고 이야기 한다. 그 순간 또 하나의 상대적 배역이 생기는 것뿐이다. 진짜 '톰 행크스'는 없다.

우리는 삶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변해가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또는 의도하지 않은 채, 한 정체성에서 다른 정체성으로 시나브로 옮겨 가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정체성을 갖는 것을 피하려 하고, 다면적인 정체성을 '정신분열증'과 혼동하기도 한다. 자신이 하나의 성격을 지닌 존재로 보이길 바라면서, 늘 일관된 변하지 않는 '자아'를 만들려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굳건한 의견이나 신념을 지니려 애쓰는 것도 이런 예다. 또는 의견이나 신념이 우리를 유지해준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모든 정치인은 부패했다." "극빈자를 돌보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다" 등 이런 신념은 삶의 여러 측면에 스며들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이런 원칙을 고수하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만에 하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

'나쁜 배우'처럼 오로지 하나의 신념을 고수하는 사람, 자신의 신념을 정체성과 뗄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흔히 '꽉 막힌 사람'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남에 대해서는 문제다 싶은 부분을 잘 찾아낸다. 신념이나 관점이 유연하지 못한게 문제라는 것도 금세 알아차린다. 자신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 신념을 바꾸는 게 마음 아플 수는 있지만, 일상을 잘 살아내려면 '나'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적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감정과의 융합

대부분 신념, 경험, 역할이 곧 자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머리로는 이 중 하나로 자신을 국한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도 우리는 흔히 그와는 반대로 행동하고 반응한다. 이게 문제다. 순간 흥분에 휩싸여 진실을 '잊고' 만다. 우리는 감정이 일으킨 환각에 빠져 살아간다. 이런 감정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듯 강력하고 직접적이어서, 우리 자신이 그 감정과 하나로 '융합'돼 버린다.

감정을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돌아보자. 우리는 신체적인 혹은 정서적인 느낌이 곧 나인 양, 다시 말해 "나는 어떻다." 라는 식으로 표현한다.

"나 배고파." 라거나 "나 슬퍼."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습게도, 이 순간 나는 오로지 배고픈 사람 혹은 슬픈 사람일 뿐이다. 우리는 이런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 한다. 감정이 진정한 나를 가늠하는 틀림없는 '계측기'라고 여긴다.

우울한 기분에 빠지면 이 기분이 영원히 계속되고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물론 우리는 아무리 강력한 느낌도 시간에 따라 바뀐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자신이 원래 우울한 사람이라고 믿기도 한다. 이런 감정이 자신의 변치 않는 성격으로 여겨지고 결국 "난 언제나 우울해지고 말 거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난 우울한 사람이야."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고 측은지심을 얻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자신에 대한 인식을 무너뜨리는 어떤 노력에도 저항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기도 한 자신의 정체성과 너무 친숙해져서, 그 정체성이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온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반문하기도 한다. "현실이 뭐 그리 대단하다는 건가요?"

"모르는게 약이다."라는 태도다.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태도가 틀렸다고 설득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오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오해는 결국 자신의 행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문제가 크건 작건, 더 나은 삶을 누릴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이해하기 전까지는 결코 개인적 문제 또는 세상 전반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없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더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더 따뜻하고 더 공감하는 사람이 된다.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실수를 저지르게 하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걸 깨달으면서,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게된다. 자신의 자아가 공고하며 견실하고 독립적이라는 관념을 누그러뜨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들의 자아가 그러하리라는 관념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 넓은 공동체와 세상 전체가 자신과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확장된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북돋움'에서 펴낸 〈마음은 어떻게 오작동하는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마음훈련4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의 내 모습들에 이름표 붙이기

마음을 차분히 한 다음, 가장 먼저 그날 아침을 되돌아본다. '나'라는 인식이 가장 먼저 생겨난 순간을 떠올린다. 예를 들면 "쉬는 날이라서 바닷가에 놀러 갈 걸 생각하니 나 정말 좋아" 라든지, "제길! 멍청한 회의 때문에 나 정신없이 달려가야해." 등 자신이 어땠는지 각각의 경험을 포착한 후, '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본다. "나는 정말 좋았던 존이야." "나는 짜증 났던 존이야." 처럼 말이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정체성과 경험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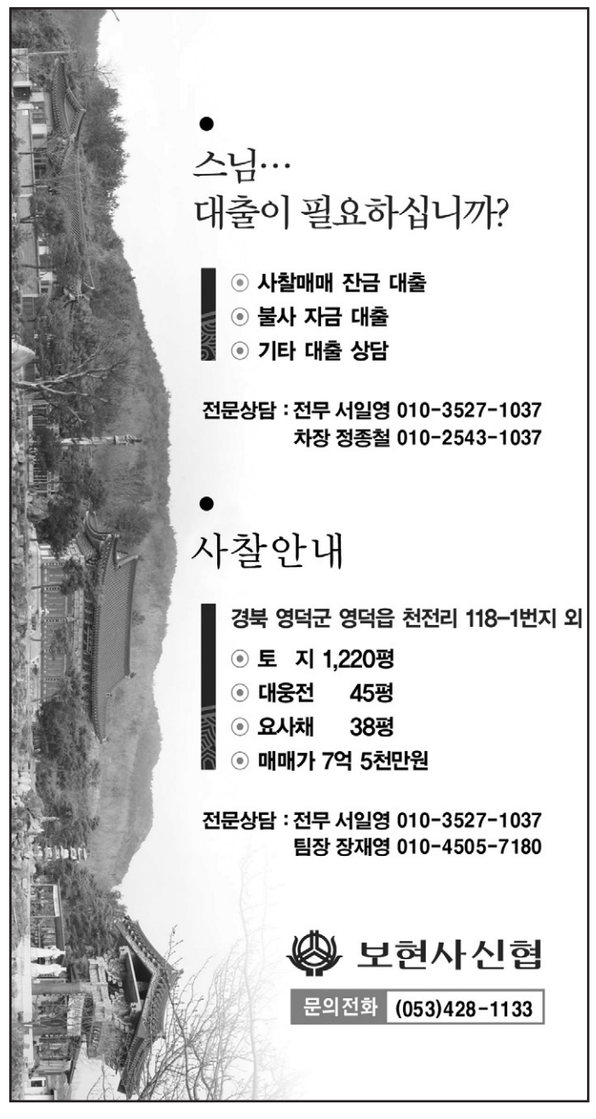
그런 다음 하루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똑같은 공식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살펴 보도록 하자.

남편 존, 팀장 존, 배고픈 존 등 수많은 이름표가 발견될 것이다. 이 훈련의 마지막에 이르면 자신이 단일한 인격체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양한, 심지어 셀 수 없이 많은 정체성을 지닌다는 데 익숙해질 것이다.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제1회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학인 모집 (서울범패)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염불승으로서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창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일차로 청강하시고 뜻을 함께 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강의내용
1. 기초 :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요령, 목탁, 태징,북 등 사물 다루는 법.
2. 중급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짖소리), 39위, 복청게, 고혼청, 헌좌게, 진령게, 칠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 짧은소리
범패 –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게, 다게, 법고춤, 호적
3. 상급 : 시다림, 다비, 일반장례, 산신제, 용왕제, 방생, 생전예수재, 수륙재, 종사이운, 괘불이운, 종사영반 화청, 공덕게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10만원, 6개월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흥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 055)332-1675
■ 강 주 : 민지효 010-4466-3575

제2기 영남 불교의식 (범음·범패) 학인모집
본 금수사 불교의식교육원에서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
초급과정 : 도량석, 쇳송, 천수경, 상단불공, 각단예불, 불공의식
중급과정 : 사물 (광쇠, 법고, 태징, 목탁) 요잡, 시다림
고급과정 : 49재,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작법무 (중급과정 부터)
1. 천수바라
2. 오공양 작법, 요잡바라
3. 화의재바라
개강일시
2013년 3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오후6시까지)
■ 주소 : 부산 동구 초량6동 843 금수사
■ 전화 : 051)467-3316 종무소. 010-8526-3356
행자 모집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대본산 금수사 영남범음범패



모든 것이 '업'… 석씨 멸망하고 유리왕 지옥에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13)

유리왕이 석씨 종족을 멸망시키다(하)

"석씨 무리가 많기도 하구나. 모두 발만 땅에 파묻고, 사나운 코끼리로 밟아 죽이도록 하라."

성문이 열리자 유리왕이 말했다. 그리고 5백 명의 석씨 여인들을 뽑아 처소로 데리고 갔다. 이때 마하남이 왕을 따라오며 간청했다.

"내가 지금 연못 속에 들어갈 테니 내가 물속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모든 석씨가 마음대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만약 내가 물에서 나오거든 뜻대로 그들을 죽이시오."

유리왕이 마하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마하남은 이내 물밑으로 들어가 머리카락을 나무뿌리에 매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동안 성안에 있던 석씨들은 다투어 도망갔다. 유리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마하남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는구나."

병사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보니 마하남이 이미 죽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유리왕은 마음이 왠지 개운치가 않았다. 유리왕은 외조부로 알고 있는 마하남의 죽음을 통해 자신 또한 석씨의 가계와 무관하지 않음을 새삼 깨달았고, 외조부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았다.

"나의 외조부께서 돌아가셨구나. 친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다니, 친족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이 저런 것이로구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일은 이미 엎지른 물이었다. 유리왕이 죽인 석씨가 9,990만 명이었으니, 피가 흘러 강을 이루었다.

유리왕이 처소에 돌아와 끌고 온 500명의 석씨 여인들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의 지아비이다."

유리왕이 한 석씨 여인을 끌고 가려하자 여인이 말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종의 자식 놈에게 몸을 주겠느냐?"

사실을 알게 된 난 유리왕은 진노하여 그 자리에서 여인을 참했다. 그러자 5백 명의 석씨 여인들 모두가 유리왕을 꾸짖었다.

"누가 제 몸을 종의 자식에게 주겠느냐?"

더욱 화가 난 유리왕은 5백 명의 석씨 여인들을 모두 참하고 사위국으로 돌아왔다. 이때 유리왕의 형인 기타 태자는 궁중에서 연회를 즐기고 있었다.

"돌아오셨습니까? 대왕이시여."

유리왕이 기타에게 말했다.

"너는 내가 석씨 종족들과 싸운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기생들과 놀 정신은 있고 왕을 도울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이냐?"

기타가 말했다.

"듣기는 하였으나 저는 중생을 멋대로 살해할 수 없음입니다."

화가 난 유리왕이 그 자리에서 기타를 죽였는데, 부처님께서 보시니 기타는 삼십삼천에 나 있었다. 이때에 5백 명의 석씨 여인들은 여래의 명호를 부르며 여쭈었다.

"여래께서는 석씨 종족으로서 출가하여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진 고통을 받는데도 어찌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은 다문천왕에게 말했다.

"여인들이 굶주린 날이 오래된 것 같구나."

다문천왕이 부처님의 마음을 읽고 이내 하늘의 밥(天食)을 차려 모두를 배부르게 먹였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고(苦)·집(集)·멸(滅)·도(道)를 말씀하시니, 여인들의 법안이 깨끗해졌다. 여인들은 목숨을 마치고 모두가 천상에 났다.

부처님께서 동쪽 문으로 나가 성안을 바라보니 성이 불길에 훨훨 타오르고 있었다.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옛날에 비구들과 함께 이 안에서 설법을 하였는데, 이제는 텅 비어서 백성들이 하나도 없구나.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

그리고 사위국의 기원정사로 돌아가셔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유리왕과 그의 병사들은 지금부터 7일 후에 모두 죽고 없으리라."

유리왕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는데, 도반이자 신하인 범지는 여전히 이롭지 못한 말로 유리왕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왕께서는 그저 지금처럼 왕좌에 계시면 됩니다."

드디어 7일째 아침이 되었다. 유리왕은 무사한 자신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모든 병사와 시녀들을 데리고 강변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그 때 갑자기 크게 천둥이 치면서 때 아닌 구름이 일어나 폭풍과 소나기를 내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일시에 모든 것이 없어지면서 왕은 살아 있는 채로 아비지옥에 들어갔다. 다시 하늘에서 불이 일어나 궁과 성을 다 태워 없애 버렸다. 비구들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석씨들은 어떤 인연으로 이런 고통을 당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왕사성 안에 고기를 잡는 마을이 있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어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서 먹으며 연명했다. 다행히 마을에는 큰 연못이 있었는데 물고기가 제법 있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



삽화 · 강병호

먹기 시작했다. 연못의 물고기에는 두 종류가 있었으니, 하나는 이름이 구쇄였고, 다른 하나는 이름이 다설이었다. 두 물고기는 서로 말하기를 '우리는 물에서 사는 중생이라 마른 땅에서는 살 수 없는데도 이 백성들이 모두 와서 잡아먹는구나.' 라고 했다. 마을에 여덟 살 난 아이가 있었는데 비록 물고기를 잡지는 않았으나 함께 기뻐했다.

왕사성 사람들은 바로 지금의 석씨 종족이요, 구쇄라는 고기는 지금의 유리왕이다. 다설이라는 고기는 범지이며, 여덟 살 아이가 바로 나이다. 나는 말리지 않고 함께 기뻐했기에 두통을 앓는데, 마치 돌로 누르는 것과 같고, 또 수미산을 이고 있는 듯하다.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함의 법을 듣고 수다원과를 얻었다. (〈석가필죄경〉, 〈장아함경〉, 〈법구비유경〉에 나온다.)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⑬



타산지석

일타 스님과의 추억 1–빈부의 구별

일타 스님께서 부산 영도 백련암에 보살계를 설하려 오셨을 때다. 법문을 마치고 스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기로 했다. 택시로 스님을 모시고 오는 길이었는데, 계속 누군가 우리 차를 따라오고 있었다. 설마 했는데 그 차는 우리 집까지 따라왔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리를 하게 됐고, 다닥다닥 붙어 앉은 채로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우리 차를 따라온 낯선 보살도 함께 있었다.

나는 주인인 관계로 손님 대접하느라 법문도제대로 듣지 못하고 분주하기만 했다. 꾀 늦은 시간까지 행복한 법회를 마치고 헤어질 때였다. 그 낯선 보살이 스님을 모시고 가겠다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스님은 "오늘은 대원성 보살집에서 묵을테니 그냥 가세요."라며 그 보살을 보내셨다.

이튿날 아침, 그 낯선 보살이 스님을 모시러 다시 왔다. 전날 동행했던 혜인 스님과 내가 동행했다. 도착한 그 보살의 집은 어마어마한 큰 저택이었다. 2층의 방 하나는 교실처럼 넓었고, 스님의 병풍도 보였다. 점심 공양을 마치고 그 보살이 나를 보자고 하더니 큰 소리로 따져 묻기 시작했다.

형편 어려운 이웃 만나면 더 '겸손'
늘 어딘가에 나보다 큰 마음 있어
'마음' 잘 가꾸는 것이 지혜로운 삶

"어제 내가 당신 집으로 따라간 건 스님을 넓고 조용한 우리 집으로 모시기 위해서였는데 당신이 눈치 없이 스님을 모시는 바람에 스님이 좁고 불편하시지 않았습니까. 신도로서 스님을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처음 본 그 보살은 매우 언짢아하면서 나무라듯이 말했다. 그 때 우리의 대화를 들으신 혜인 스님께서 그 보살을 향해 말씀하셨다.

"이보세요 보살님! 크고 넓은 집으로 스님을 모신다고 스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어찌 형편 좀 좋다고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여기 대원성 보살은 우리 문중이 다 잘 알고 스님을 진실로 모시는 우리 가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찌 하룻밤 머무는 곳에 크고 작음의 분별을 둔단 말입니까?"라며 그 보살을 나무랐다. 나는 당황스럽고 그 보살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몸 둘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 보살이 바로 내게 사과를 했다. 나는 그 날 이후부터 나도 그 보살이 했던 실수를 하게 될까봐 모든 행동을 조심스럽게 했다. 특히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볼 때는 꼭 그 날의 일을 떠올리며 '겸손'에 대한 생각을 하곤 한다.

일타 스님과의 추억2–늘 큰 생각하는 스님

1969년 여름이었다. 불교신문에 근무하던 김숙현이라는 친구가 혜자라는 친구와 함께 부산엘 왔다. 사흘 째 되던날, 우리는 해인사에 가게 되었다. 해인사를 처음 와본 서울 아가씨들은 말로만 듣던 해인사를 보고 신기해했다. 일타 스님이 계시는 극락암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다. 스님과 차담을 하고 우리는 스님이 내어주신 방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는데, 철없는 우리 일행은 평소에 스님을 편히 만났던 것만 생각하고 늦은 시간까지 떠들며 수다를 떨었다. 그 때 스님께서 찾아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절집에서는 조용조용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밤 9시면 모두 자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 부끄러웠지만 다시 떠들며 수다를 떨었다. 몇 년 후 스님이 그 때 많이 난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님은 아침에 대중과 공양하지 못하고 등산용 버너로 손수 밥을 지어주셨다. 반찬도 변변치 않았지만 우리는 맛있게 먹었다. 아침 공양 후 우리는 스님께 인사 올리고 절을 나섰다. 아랫마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자 스님이 뛰어내려왔다. 스님이 주셨다며 차비를 주셨다. 우리는 스님이 지난 밤 우리들 때문에 곤란해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스님이 주신 차비를 받아들고 올라왔다. 이후 우린 결혼도 하고 세월이 많이 흐른 뒤였다. 스님이 지족암에 머무실 때였는데 스님한테서 편지가 왔다.

"그때 극락암에 왔을 때 대중들 눈치가보여 더 있다가라 하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며 지족암에 놀러오라는 편지였다. 그리고 이번엔 편히 오래 지내다 가라는 말씀이셨다. 그 때서야 극락암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 때 스님이 겨우 마흔이었을 때이니 아래채 큰스님들 눈치를 얼마나 보셨을까 생각했다. 항상 어딜 가든지 행동거지를 조심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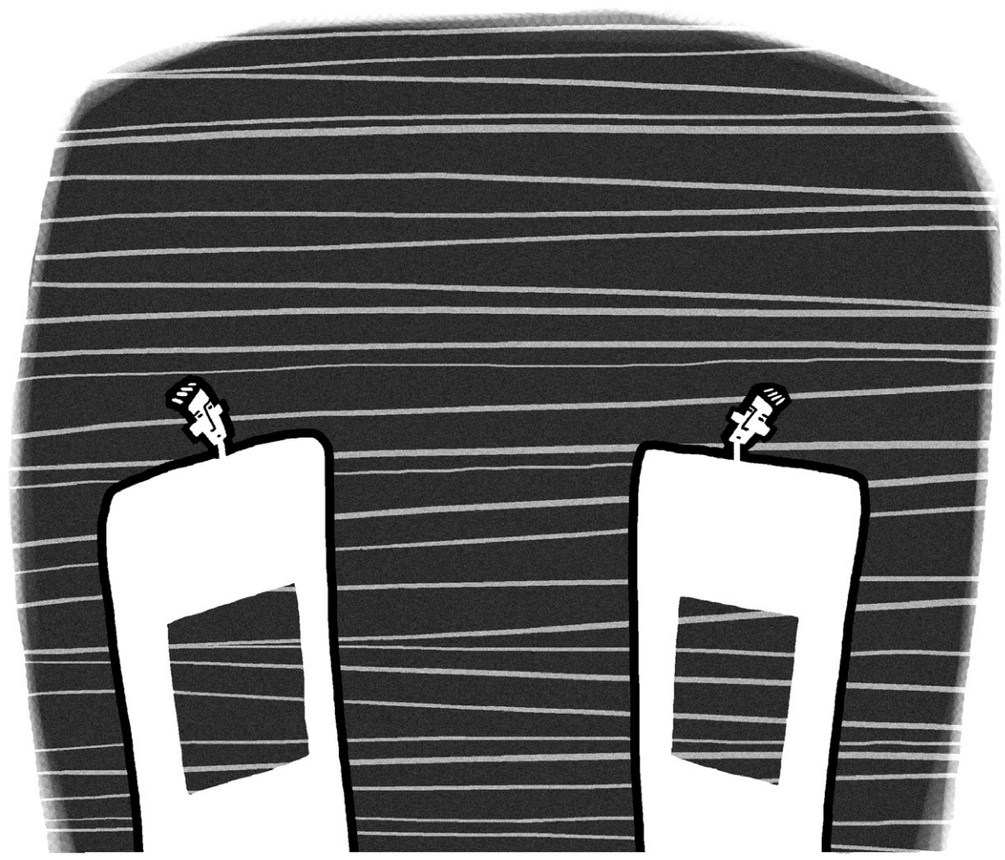
마음이여, 마음이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온 몸 다 뒤져도 마음이란 찾을 수 없는데, 모두가 네 맘 내 맘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안고 있으니 내 몸보다 더 큰 마음자리이지 않은가. 어찌 팔만사천 가지만 있을까. 수 억만 가지의 물체와 색을 알아보는 그 신기한 마음이여. 그러면서도 조그마한 싫은 소리도 용서가 되지 않고 보글보글 속을 끓인다. 좋아서 데굴데굴 웃다가도 슬픈 소식 앞엔 한없이 나약해지는 사람의 마음. 파도의 물결도 똑같은 바닷물이거늘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파도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시시각각 변하지만 그건 구름 같은 생각일 뿐, 마음은 언제나 하늘 같이 변함이 없음일세. 몸이 마음을 안고 살지만 마음이 몸을 부리고 살지 않는가. 마음과 생각을 잘 가꾸어 참된 '나'가 되어 살아야 지혜로운 삶일 터. 장미의 향기가 되고 여름철 수박이 되어 형체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인연마다 함께 나누어 살며, 보살이 되고 싶어라.

부산 연꽃모임회장



나 하나 버린다면 모든 게 붙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림 · 최주현

집착을 벗어나는 길은

문) 모든 고의 원인이 집착이라 한다면 그 집착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지요.

답) 우리는 모두 일체가 공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산다고 하고 내가 봤다고 하고 내가 들었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내가 해서 망했다고 하고 모두, 만남도 그렇고 가고 옴도 그렇고 모두 내가 했다는 생각에서 잠재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겹겹이 이렇게 착이 누적된다 이거죠. 쌓인다. 그래서 그릇이 넘치도록 그릇이 비질 않는다. 유전성이라든가 업보성 인과성 영계성, 이 모든 것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착이 없다면 그냥 다 벗어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겹겹이 착이 있는데,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이 겹겹이 쌓이고 쌓이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했다는 걸, '내가 공했다. 내가 함이 없구나. 함이 없이 그냥 날아다니듯 그냥 살고 있구나. 사는 사이 없이 살고 하는 사이 없이 하고 갖는 사이 없이 갖고, 모든 게 이렇구나.' 그런 걸 아신다면, 나 하나 버린다면 모든 게 붙을 데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의 내면 속에 다보탑이라는 그 한 줄의 자리, 바로 움죽거리지 않는 자불이 계십니다. 여러분 몸이 바로 법당이 되고 그 법당 안에는 다보탑 위에 자불이 계십니다. 아미타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태양과 같고, 즉 말하자면 에너지 창고와 같고 별빛 같은 겁니다. 모두 여러분을 온화하게 안 해 주면은 생물체가 살 수가 없어요. 물과 공기와 흙과 모든 게 겸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방편으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미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글자를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참 무지하고 어리석고 모르고 그렇더라도 이렇게 하자 그러고선 그냥 그냥 텀벙텀벙 사세요. 도가 별난 게 도가 아니라 텀벙텀벙 사는 게, 그냥 뛴다는 생각, 질다는 생각 뭐, 좋은 자리다 이런 것도 아닌 그 자리, 그냥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그냥 내 앞에 걱정거리가 닥쳐오게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퍽 사람이 살기가 쉬운데, 나 하나 버리면 아무것도 붙을 게 없는데, 버린다는 생각이 없이 버리면은 너무나 좋은 것을, 나 하나 버린다면 일체가 다 구성해서 같이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할 수 있는데, 같이 화목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내가 한다고 하고 내가 자만을 부리고, 내가 잘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따져서 시비를 오게 만드느냐는 얘기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아무리 악해도 악한 것을 악하다고 '너는 악한 일만 하고 있어.' 이렇게 해 보십시오. 그건 꼭 악한 일을 하고야 맙니다. '네가 얼마나 선한가 보자.'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악하더라도 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악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다. 이건 둘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 결정하는 그 마음이 진짜 자불의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벌써 99%가 부처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면 말입니다. 이 공한 도리와 내가 없는 도리와 내가 한다는 뭣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살 것을…. 왜 편리하냐. 금방 구정물이 막 들어오는데 저 구정물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큰일나겠다 이렇게 한다면 금방 맑은 물로 화하게 만들어서 써라 이런 겁니다. 일체를 다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나는 항상 내 생각이 부처와 둘 아니게 항상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나고 죽음이 공하다 하는 것인지요

문) 저는 아직까지도 죽음이라는 존재가 무섭고 두렵기만 한데 어찌 나고 죽음이 공하다 하는 것인지요.

답) 그게 본래 전부 공한 자리에요. 본래 비어 있는 자린데, 본래 비어 있는 자리라는 말조차도 없는 건데, 이게 서로가 공한 줄을 알게 만들려니까 이게 말, 대화가 필요하고 방편도 필요하고 그런 거지, 무슨 공한 자리다 공한 자리가 아니다 하고선 앨 쓸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공한 자리를 공한 자리로 알지 못하고 내가 나라고 하고, 이 환상을 보고, 주인은 주인대로 모르고 못 보고 내 것 네 것 하고선 서로 이러니까, 보다 못해서 부처님들이 나오신 거예요. 싸움을 말리려면 어른이 애 싸움에 나오듯이 말입니다. "야, 너도 옳다. 너도 옳으니까 고만 두자. 너도 옳으니깐 고만 두자." 이러곤 싸움 말리듯이 말이에요. 그러곤 나중에는 "이놈아! 네가 있으니깐 싸웠지, 딴 놈이 싸운 게 아니지 않느냐? 쌈 안 하는 것도 네놈이 있으니깐 싸움을 안 했지, 이놈아!" 하고서 그렇게 일러 줬다 이겁니다.

저 텔레비전을 보면 어떤 사람을 그려 가지고 영화를 지금 하는데, 아주 그거 어린애든 어른이든 그냥 아슬아슬한 데 가서 이렇게 섰다고요. 그냥 막 올라가고 저거 아슬아슬하니 떨어져서 죽겠네 해도, 떨어져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죽은 게 아니라, 그건 영화의 어떠한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떨어져도 우리가 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실감 있게 볼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형체가 바로 그런 셈이나 한 가지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져 죽게 생겼는데도 만약 깨친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죽는 게 아니니까. 진짜가, 그 실상이 아니거든요, 그게. 떨어져 죽는 건 그림자지 그게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아등바등할 게 없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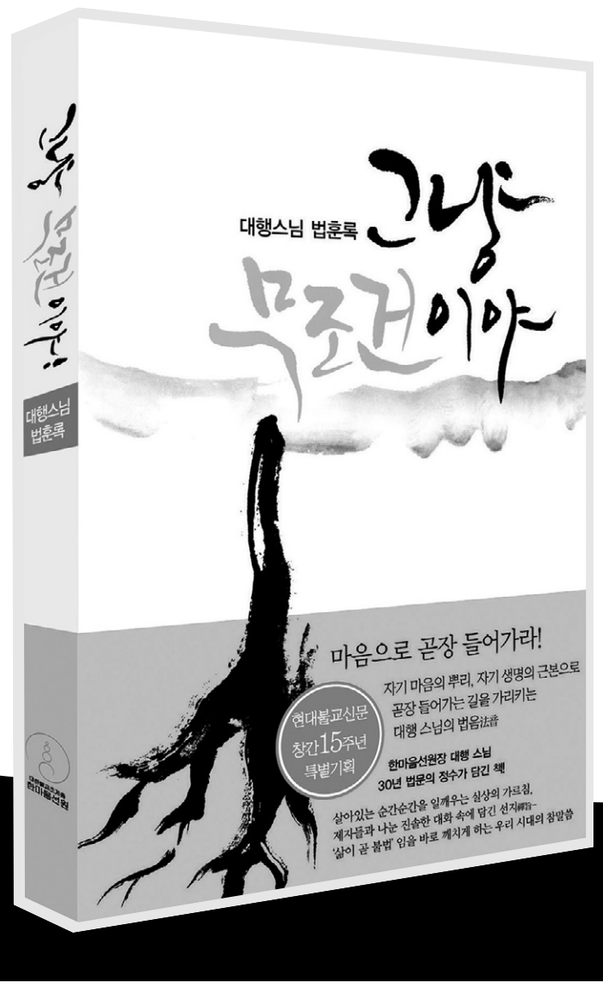
이 도리를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 모든 걸 붙잡고 욕심이나 어떤 망상이나 그 아상, 그런 모든 거를 가지고 얽매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 죽을까 봐 그렇게 쩔쩔쩔쩔 매느냐 이겁니다, 그건 껍데긴데. 천만 번 육신이 떨어져서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죽은 바는 없는 겁니다. 본래 산 바도 없고 죽은 바도 없고, 죽을 바도 없는 겁니다.

여유 있게 마음 쓰는 게 쉽지 않아요

문) 저는 중국에서 좀 크게 사업을 하다가 믿었던 사람에게 회사를 다 뺏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큰스님께서는 도둑놈이 들어와도 "가져갈 것도 별로 없지만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라." 또 한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구정물이 들어오면 금방 새 물로 화하게 만들어서 써라

☞ 29면에서 계속

걸음 더 나아가서, 뭔가 좀 갖다 주면서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 가져가시오."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일반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여유 있게 마음을 쓰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 그 오죽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럽니다. 어떤 때는 "그 오죽해서 왔겠느냐. 그걸 짜증내지 말고 주어라. 주되 줬다는 생각조차 하지 마라. 너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볼 때, 그렇게 없을 때에 그건 말이 그렇지 그 도리를 모르면은 자연적 마음이 가난해지고 궁색하게 되니까요. 그럼 행동도 궁색하게 해요.

그래서 내 집이 눈 깜짝할 새에 다 달아나갔다 하더라도 눈 깜짝도 하지 마라 이겁니다. 왜? 다 달아나갔어도 눈을 깜짝 안 하면은 그것이 달아나간 게 아니라 되돌아서 나투면서 또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애원하게 하고 원망하고 그냥 저거 하면은, 그 돈이 만약에 사람이라면요, 나갔다 '아이, 저 집은 저럭하기 때문에 아이 귀찮아. 저 집 들어가면 아주 귀찮아서 죽겠어. 그냥 붙들어 매 놓고는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그러기 때문에 귀찮아서 죽겠어. 난 안 들어가, 그 집에.' 그러고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걸 아주 허심탄회하게 그냥, '나가겠으면 나가고 들어오겠으면 들어오고 마음대로 해라. 에이그, 나가게 되니까 너 나가라.' 하고선 '나가겠으면 나가라.' 이렇게 탁 틔어 놓으면은, 그 돈이 사람이라면 나가서도 그냥 그 집 생각이 굴뚝 같을 겁니다. 그 집에선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그냥 여여하게 지냈는데 이게 나가다 보니까는 아주 궁색하고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서 다니다가 이 집에 도로 들어옵니다, 사람이라면. 비유해서 얘깁니다. 돈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리를 알면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지혜가 넓고 풍족해지고 마음이 그렇게 여여해질 수가 없으니 어찌 가난하랴. 죽을 먹은들 어찌 가난하랴 이겁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한 애착, 자식에 대한 애착, 그것이 아주 제일 크더군요, 내가 감지할 때. 그래서 상원사 지을 때 "야! 오천만 원 있으면 천만 원씩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너 해 달라는 대로 해 줄 테니까." 그랬습니다. 왜냐? "당신네들이 와서 덕을 빌고 쓰레기를 치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 오천만 원 있으면 천만 원은 가져와야지, 무슨 소리야?" 그럭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자로만 살던 사람은 가난한 도리를 모릅니다. 그 돈을 다 내 버리고 다 망쳐 버리고 난 뒤에야 자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래서 몽땅 파서, 파서 버려라! 버려라! 이러니까 어느 사람은 그냥 막 갖다가 그냥 버렸죠. 버리고서 난 뒤에 다시 버림 없이 버렸고 또 오는 것은 '내가 가져야지.'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알뜰하게 그 재산이 모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집 하나 지읍시다. 우리 병원 하나 지읍시다." 이러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만약에 오백만 원짜리 집이 있다면은 백만 원이라도 내놔서 이거는 짓게 되면은 그거는 거기서 다 또 나가게 되죠. 오백만 원짜리 집 짓고 있다가 백만 원 내놓으면은 사백만 원짜리 전세입니다. 그런데 그 전세가 나중에는 사천만 원짜리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모릅니다. 전체 몰라요. 그저 붙들고 내놓질 않기 때문에. 아까 내가 여북하면 그 돈을 사람으로 비유했겠습니까. 사람이 하도 붙들고 놓질 않기 때문에, 왜 이런 게 있죠.

사회에서도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그 여러 해를 그냥,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권태가 나죠. 권태가 납니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합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리로도 가 보고 저리로도 가 보고 이럴 때 비로소 그게 좋은 직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권태가 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은 그 돈이 지겨워서도 나갑니다. 반드시 그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수차에 그건 경험해 본 얘기고,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그 마음을 내서 사심 없이 왼손이 하는 거 바른손이 모르게끔 시주해라.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무한량 돌아다니다가 이 자가 붙고, 달라 이자가 붙고 그래 가지곤 너희 집으로 도로 찾아간다." 그러기도 합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예전에 어느 사람이 동네에서 전부 그 땅 아니면 딛고 다닐 수가 없으리만큼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나 그냥 노랭인지 말입니다, 그냥 붙들고 놓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자 대로 내려갔습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살다가 아들이 꼼짝을 못했으니까 손자 대로 내려갔어요. 아버지도 죽고 인제 할아버지도 죽고 손자 대로 내려가서는 그냥 몰락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도 저, 우산 고치는 거 있죠? 그거 억지로 못합니다. "우산 고치시오!"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돼 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부모가 그렇게 해 놓은 그 업이 내려가면서 그렇게 연결돼 돌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럭한다고 그게 꼭 붙들려서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 걱정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녁에 죽을 먹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이 소리에요. 걱정하지 않는다면 온다 이겁니다. 와요. 근데 그 생각을 그렇게 놓질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 천만 원 아니라 이천만 원이 생긴다 하는 거를 놓쳤다 하더라도 애원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또 쫓아가지도 말고, 오는 것 막지도 말고 가는 것 잡지도 말라 이겁니다.

아예 그냥, 그냥 놔 버려라. 그래야 그 도리를 알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걸 붙들고 늘어지고 그냥 모든 거를 다, 이 몸 아픈 것도 그렇고 애착을 두고 그냥 그냥 '아이구, 내가 이게 이렇게 아픈데 내가 설법을 어떻게 들어? 아이구, 내가 저기 드러누워야 좀 낫겠지.' 그까짓 몸뚱이가 뭐기에, 항상. 그렇게 아끼니까, '에이구, 난 네가 아끼니까 더 붙어 있겠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병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모든 걸 몽탕 그냥 다 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죽겠으면 죽고 살겠으면 살고, 그저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그 믿는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활짝 웃고 살라 하시는데

문) 스님께서는 활짝 웃고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 그냥 웃다 보면 왠지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싫거든요. 그래도 웃고 살아야 하는 건지요?

답) 무심으로 그냥 덮어놓고 무슨 생각 있이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아유, 내가 이거 웃으면 이게 좀 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 거고 좀 이상스런 사람으로 보일 거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좀 상태가 끈덕지지 못한 그런 상태로 된다.' 이런 것도 되지만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고 다 놓고 무심으로써 웃으면 그냥 다 웃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뜰의 나무들도 다 '같이 웃어줘서 참 좋아요.' 그러고 서로 나무들도 같이 웃는단 얘깁니다. 지나가던 구름도 웃고.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모여서 나와 나 공부하는 데에 전부 도와지는 형상이 된단 말이죠. 남이 미쳤다고 하든 말든 그것이 하등 상관이 없어요. 미쳤다고 한다면 남을 해롭게 하고 이러는 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이 마음공부를 하면 나무가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꽃이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지나가다 흙이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돌이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우스운 소리를 들으면 웃지요.

어느 누구가 말입니다, 임신을 해서 배는 부른데 입맛이 없다고 살아 있는 가물치를 사다가 솥에다 넣고 요리를 할 양으로 그러는데 가물치가 하는 소리가 "스님, 나 이렇게 이 물에 들어가도 들어간 사이가 없는데 웃지 않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도 들어간 사이가 없다는데 웃을 필요가 뭐 있니?" 그러니깐 "아휴, 좀 이 가물치라는 걸 이번에 꼭 모습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스님한테 이 가물치를 아니, 가물치라는 이름을 고아서 드리고서 스님, 인도환생으로 꼭 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웃지 않을 수가 없단 얘깁니다.

길을 가다가도 만약에 조그만 나무가 섰다가 금방 토끼가 돼서 깡충깡충 뛰면서 옷자락을 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또 돌아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 덮어놓고 웃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깐 생명 하나하나가 공생, 고 순간순간 공생이 되고 공체가 되고. 비록 볼 때는 토끼지만 모습은 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체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그냥 웃지 않을 때도 웃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웃지 않을 때에 이쪽에서 웃으면 상대방이 웃지 않을 건데도 빙긋이 웃게 돼요, 그냥 덮어놓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쪽 사람이 좀 속으로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저쪽 사람이 참 껄껄 웃고 "아니, 뭔 생각을 그렇게 하쇼?" 하고 웃을 때에 그냥 빙긋이 웃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웃어지죠. 웃어지면은 그만큼 속이 틔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웃지 않으면서도 웃고 또 울지 않으면서도 울고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는데

문) 여자로서는 성불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기를 발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행 스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받았어도 도를 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 여자는 깨달을 수가 없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당시에 여자라는 사람들이, 궁중에서 놀던 사람들이 인제 오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나중에 이것을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바꾸어도 된다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좁은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늘이 종자라면은 땅은 그 종자를 기르는 모든 산하대지가 되는데 그 산하대지를 버리고 어떻게 종자를 기릅니까.

생각을 하면은 모두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건데. 이 세상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작다면 아주 작고 크다면 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마음들을 그렇게 먹으니 언제 자기 몸을 털고 일어서겠습니까. 모든 걸 포괄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자기가 그 속에서 훨훨 털고 일어난다면 자기도 없고 모두가 없죠. 없는 그 가운데서 여여하게, 모두가 그냥 자유스럽게 배출할 수 있고 승화시킬 수 있고 모두가 그런 거죠. 그러니깐 이 공부하는 덴 여자 남자도 없고 가난과 부자도 없고 모든 게 늙고 젊고도 없고 모두 그렇다고 봅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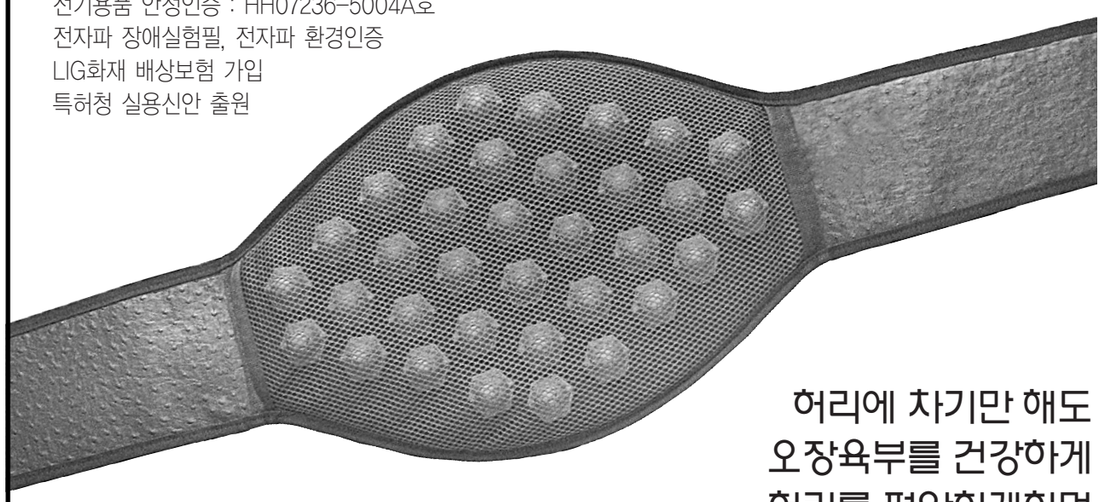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불자 세상보기

차별금지법 제정, 시대적 요청이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서강대 교수

차별금지법 논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개신교계 일부 지도자들과 단체들이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내용 중 '성적지향' 문제와 '종교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고, 전도나 종교교육은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심의마저 못하도록 세를 결집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종교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예방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07년 10월, 2010년 4월 두 차례나 입법을 시도했지만 의회선교연합 등의 저항으로 포기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2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진화로 받아들여 환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신교의 저항은 인권신장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몽니라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 우선 성적 지향은 지극히 사적인 문제다. 물론 성적 지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호, 불호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개신교인들만의 기준인 '성경'을 내세우며 동성애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배제시켜야 할 '악'이라고 단정하며 차별하는 것은 지나치다.

종교차별도 그렇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선교관행을 떠올리면 개신교의 반발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적·공적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공격적으로 전도활동을 해오던 관성에 제동이 걸리니 적응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타종교를 자신들의 잣대로 '이단·사이비'로 몰아 심지어 납치 감금까지 하며 개종교육을 하기도 했고, 종교사립학교에서 강제로 종교교육을 하거나 종교의식을 하게 해 대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고도 개선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들이기에 말이다.

1975년 미국교육연합회가 채택한 교직윤리강령에도 "인종, 성별, 출신, 정치적·종교적 신념, 문화적 배경, 성적 취향 따위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특정학생을 교육프로그램에서 배제하거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 차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개신교 전통이 더 강한 미국이 성경에 반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런 규정을 두었을 리는 없지 않은가.

이젠 대승적으로 내려놓을 때다. 먹고사는 문제와 사회민주화가 더 시급해 잠시 미뤄뒀던 '종교자유'를 되찾고 싶다는데, 터무니없는 논리와 종교이기주의로 인권선진국의 길을 막겠다니. 지난 수십 년 간 차별적 종교활동으로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들에게 준 마음의 상처를 사과해야 할 판인데,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종교차별을 돌아보기는커녕 아직도 보물처럼 끌어안고 가겠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수의 논리, 힘의 논리가 사회적 소수자들의 세상살이를 힘겹게 한다. 종교도 세력화되어 힘을 구사하는 공룡이 되어버렸다. 이익에 따라 편가르기가 몸에 배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몰아세우는 데 익숙해져 있다. 사회갈등을 중재하고 봉합해야 할 정치인들마저 종교지도자들의 무리한 주장에 편들기를 하며 종교권력화에 앞장서 사회를 더 어지럽게 만든다.

인류역사의 발전은 인권확보의 변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조건과 환경, 특히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몸부림의 흔적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1948년 유엔이 공식 발표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새삼 다시 새겨본다.

발언대

– 학교폭력 이렇게 해결하자

최근 경북 경산에서 고교생 최모(15)군이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 종합대책의 허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불교계전문가들의 대안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집단놀이 통해 배려심 길러야



이수경 교수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언어폭력 등으로 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

청소년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이해하는 이들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지난해 동국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명상과 집단놀이 등을 하며 아이들이 집중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라는 것을 보았다.

현재 학교 현장은 학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성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다. 먼저 교사들부터 모임을 구성해 인성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기술을 익히기 위해 교사 연수 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 심성교육을 학업성취도 평가에 판영하는 시스템 등도 고려해야 한다.

종립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효과 등을 널리 알려 일반 학교에도 도입함이 마땅하다. 교사와 부모, 아이들이 다 같이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

예방 외에 대처법도 중요



인경 스님
명상상담연구원 원장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경쟁구도에 내몰리고 있다.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니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왕따 현상과 청소년 폭력의 주요한 원인이다. 좌절, 실망감, 상실감은 우울증과 폭력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률은 1위다. 그 이유도 학업경쟁과 교내 학생 집단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 많다.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 학생들과 잠재적인 대상 학생들이 폭력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피해학생들이 가출, 게임중독 등의 행동으로 자신의 상태를 표출되지만 부모나 교사들은 그 상태를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그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악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태를 살피고 청소년에게 명상 등 심성개발을 통해 정신순화를 이끌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학교 현장에서 항시 아이들을 살피며 심리적 어려움들에 대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자기조걸 훈련법을 제시해야 한다.

학교폭력, 교사·학교에 달렸다



신순갑 정책위원장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산고 고교생 최 군은 지난 11일 '지금처럼 해서는 학교폭력을 백퍼센트 못 잡는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것은 현재 학교가 생활지도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위한 신고·상담지원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학교폭력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모두 입을 모으지만 이미 지난 2012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예방정책을 모두 쏟아냈다. 여기서 간과 하는 것이 있다.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 담임교사와 교장은 정책이 마련돼도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다. 담임교사들은 학교폭력사건에 휘말리기 싫어하며 학교에서도 학교 평가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까봐 쉬쉬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 모군 역시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지 않는 담임교사와 학교에 절망을 느끼고 죽음을 택했다.

담임과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CCTV가 100만~1000만대 설치된다 해도 학교폭력은 결코 줄지 않을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의 열쇠는 학교와 교사들이 쥐고 있다.

社說

부석사 관음좌상 환수 운동의 의미

부석사 금동관음좌상을 제자리에 모시기 위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가 3월 21일 공식 발족했다. 그간 서산 시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환수 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봉안위에 참여한 인선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고문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이, 지도위원에는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을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 4명과 서산시장과 시의회의장이 참여했다. 공동대표는 주경 스님 등 지역 불교 인사뿐만 아니라 북관대첩비와 조선왕실의궤 환수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원웅 前국회외교통상위원장 등이 맡았다.

사실 부석사 관음좌상은 환수돼야 마땅하다. 고려 당시 서산 지역에 왜구의 노략질이 잦았다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주장을 차제하더라도 현재 일본 대마도 관음사는 무인(無人) 사찰로 서산 부석사 불상을 봉안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불상의 설명문도 오류가 많아 보관 관리에 허술함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대마도 관음사 측은 '불상을 반환한 후 소유권을 논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봉안위는 부석사 불상의 약탈 가능성과 한국 문화재 수탈사 등을 조명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유네스코에 환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요청문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불교도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에 불상 환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당대의 민초들의 염원이 담긴 불상은 제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언론을 내세워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불상 환수를 놓고 갈등보다는 새로운 교류의 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봉안위의 바람이 이뤄졌으면 한다.

불교 주요 종단에 자살예방센터를

올해 연초, 참으로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야구선수이자 유명 연예인 故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2008년 최진실이 자살한 후 5년만이다.

조성민의 자살이후 부산에서는 하룻만에 무려 7명이 생을 달리했고, 경기도에서도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용인, 화성 등 시군에서 자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33.5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8년째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세 배정도 높은 수치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대 이상 남녀 700명 중 31.7%가 경쟁중심 사회때문이라고 답했고 양극화 심화를 두 번째로 꼽았다. 자살충동을 느껴 본 응답자들 중에서도 경제적 문제가 35.5%로 가장 많았다.

국민이, 특히 청장년층이 자살을 생각하고, 또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가장 큰 원인은 포괄적으로 대부분 '경제'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 일자리로는 자신의 입신영달은 물론이고 소중한 가족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자살은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정신무장도 필요하지만,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회, 국민에게 기대를 부여하는 정부 등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만 2013년, 올해는 세계 자살율 1위의 불명예를 벗어 던질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이하 인권위)가 3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종단 내 자살예방센터를 둘 것을 제안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불교계가 앞장서서 당연히 해야될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져 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들을 미리 예방시키고 막아야 한다. 이제 우리 불교계는 자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오색공단등


칼라(보카시)연등


공 단 등


영 가 등



팔각봉축접등





왕생극락접등







주 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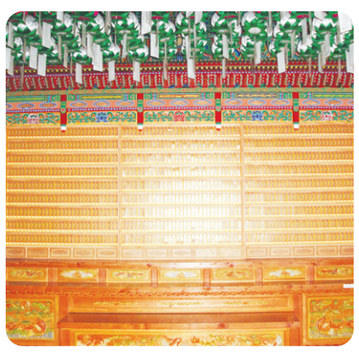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용주사 LED 인등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 종 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낱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